

2019

정책연구 2019-06

지역사회 기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진 이수인 · 이순미 · 최지훈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19-06

지역사회 기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 구 진

연구 책임	이 수 인 •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공 동 연 구	이 순 미 •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연구교수 최 지 훈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자 문 위 원	손 성 원 •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국장 이 지 훈 •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김 혜 경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 광 혁 •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 계 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문 강 • 전라북도 국제협력과 다문화지원팀장 정 은 주 •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청소년팀장 박 수 영 • 전북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사

연구관리 코드 : 18JU2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연구요약

1. 연구개요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필요성

- 최근 한국의 다문화 관련 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 개인과 가족의 취약성을 지원하던 것에서 자녀 세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다문화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책의 초점이 전환되고 있음.
- 그러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한 지배적 평가는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중심이고 사회통합을 위한 여건과 환경 조성 사업은 미흡하여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내국인 청소년들과 구별, 분리되어 낙인 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 프로그램의 측면에서는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체험, 멘토링 등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영·유아기, 초등학교 자녀로 정책 대상이 집중되고 중·고등학교 연령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부족하여 청소년기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이러한 한계들은 첫째, 관련 정책들이 통합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정책의 궁극적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당면한 현안 이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 시행되어 왔기 때문임. 즉,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인구학적 변화와 이들의 집단적 하향화 및 그로 인한 갈등에 대응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임. 당장의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이라는 낙인 효과를 발생시킴.
- 취약성을 보완하여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주배경청소년 전체를 소외계층으로 인식하게 하여 결국 사회통합이 저해될 수 있

음. 집단 범주가 차별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강점 중심의 접근, 전반적 다양성 수용도 증진 정책과의 균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통합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사회통합 정책으로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은 전체 청소년 정책 하에서의 통합적 접근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주배경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최소화하고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 집행되어야 함.

- 둘째, 지역의 특성과 자원 가용성을 고려한 지역형 사업보다 중앙정부 주도 사업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김도혜, 2012; 양계민 외, 2017), 사업의 일률성과 중복 시행, 정책 대상연령의 편중과 배제의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현실적 경험과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정책이 유연하게 집행될 때 개선될 수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 주도성이 필요함. 정책 네트워크의 필요성도 이에 기반함.

나.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지역적 특성과 정책 자원에 기반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델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첫째,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의 실행주체별 사업영역과 대상 범위 등 현황 파악을 통해 각 실행주체별 고유성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의 중첩과 사각 지대를 파악하여 이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함.
- 둘째, 부처별 정책 목표와 정의에 기반하기보다 전라북도 이주배경청소년의 삶과 생활 경험, 즉 수요에 기반하여 핵심 정책 영역과 일반 정책 영역으로 정책을 재설계하고 이에 기반하여 기능별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함.

2. 연구방법

가.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이론적, 경험적 쟁점 고찰 : 문헌연구

-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 용어와 범주 구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사회통합 정책으로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목표 정립
- 이주배경청소년의 삶과 생활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 동향 분석

나. 이주배경청소년의 서비스 만족도 및 욕구 분석 :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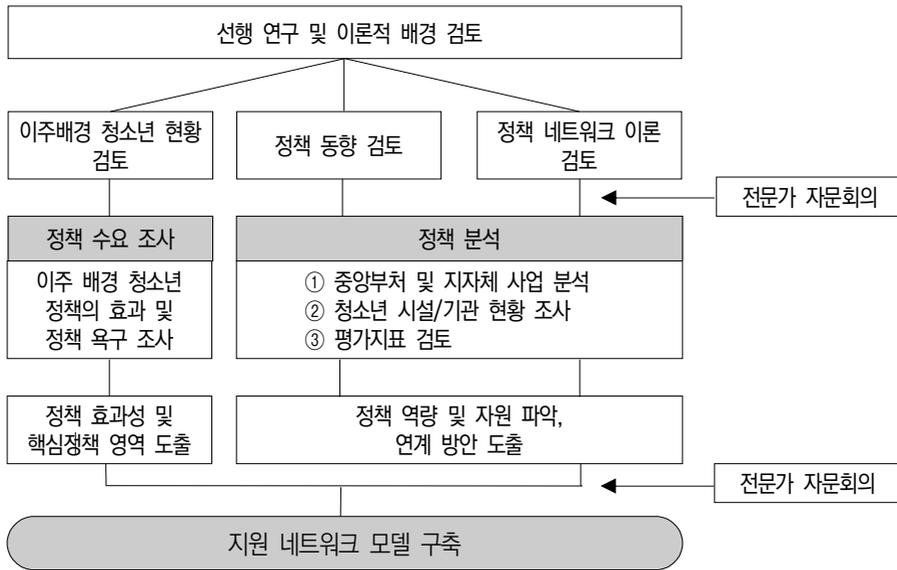
- 전라북도 거주 만9세~19세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해 지역별, 연령별 분포를 고려하여 300명을 표집, 시군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2018년 11월 26일~12월 20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내용은 개인 및 가족특성, 언어능력, 학업 및 학교생활, 여가 및 삶의 만족도, 심리정서적 안녕감, 건강, 다문화수용도, 사회적지지, 정책 수혜 경험 및 욕구

다. 전북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현황 분석 :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기관/시설 현황 파악
- 주요 기관/시설의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사업 현황조사 : 이메일조사 및 인터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2018년 청소년 대상 사업실적
 - 청소년 수련시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설로 지정된 청소년수련관 혹은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4개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담당자 인터뷰
 - 다꿈학교 : 다문화교육 지역거점 학교인 '다꿈키움학교' 2개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다꿈사랑방학교' 2개교, 다문화교육 특구

지역의 다문화교육 중점학교인 '다꿈터 학교' 3개교의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인터뷰

라. 연구의 흐름도



<그림> 연구의 흐름도

II. 주요 연구결과

1. 전북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책 욕구

- 전북의 만9세~19세 이주배경청소년은 2016년 11월 현재 3,088명으로 전북의 같은 연령대 청소년 인구의 1.5%를 차지함. 전북 이주배경청소년의 95%는 국내출생자임.
-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은 베트남, 중국 두 개 국가가 출신국을 대표하며, 다문화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9.6%로 높음. 그럼에도 최저생계비 이하 다문화가족 중 비수급가구 비율은 25.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전북 이주배경청소년 3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주배경'으로 인해 주목할만한 부정적 결과들은 대체로 나타나지 않았음.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학업성취 수준,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높은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학교생활, 학업, 외모, 친구관계 및 가족관계 등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있었음. 또한, 자존감과 주관적 행복도는 높고 우울감은 낮게 나타나는 등 심리적 안녕 수준도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이주배경청소년=취약청소년'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 그러나 외국출생 청소년, 학령이 높을수록,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긍정적 심리정서 상태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결과와 상반되게 응답자의 25.3%가 지난 1년간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국내 청소년폭력 피해 경험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언어폭력 경험율이 6.9%(2016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인 것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폭력에 순응된 결과일 가능성도 있어 우려스러운 대목임.
- 학업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큰 고민이 '공부(성적)'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외국출생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정환경, 학교

폭력을 고민거리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령이 높아질수록 공부와 진로 선택 고민 응답률이 높음.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경제문제, 용돈부족, 진로 선택 고민 응답률이 높음.

- 지난 1년간 지원기관 이용 경험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경험율이 74.1%로 가장 높고, 방과후교실 71.3%, 지역아동센터 47.4%의 순으로 나타남.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경험율은 32.6%로 전국 평균 23.8%(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1.1%로 낮음. 전북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가까운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지역아동센터이고 청소년 시설은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그간의 정책이 이주배경청소년 들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접근을 취해온 것에서 기인한 바가 큼. 또한, 고등 학생의 기관 이용경험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초등학교생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계층의식이 중상층인 청소년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방과후교실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시설 등에는 중간 층 청소년들의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이는 유사 프로그램이라도 실행 기관에 따라 계층이 상이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러나 유사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시설의 경우는 이주배 경청소년 수가 적은 농촌 지역에서 참여자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76.3%로 높고, 계층의식이 중하인 경우가 80% 수준으로 높았음. 지원받았던 서비스 유형은 문화체험, 문화공연이 55.2%, 42.2%로 가장 높고 언어 교육이나 학습지원 서비스 경험율은 10% 대로 낮음. 필요한 서비스라는 인식은 높으나 실제 수혜 경험율이 낮은 서비스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급식비 지원, 놀이공원 방문, 물질적 지원임.
- 향후 바라는 서비스로는 놀이공원 방문, 문화공연 관람,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문화체험활동 기회 서비스와 방과후수업료 지원, 학원비 지원, 급식비 지원 등 학교·학업 관련 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 반면 학습 보조교사 지원, 대학생 멘토링 등 학습지원 서비스 요구도는 낮음.

2. 전북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현황

- 전북의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시설들에는 14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시설, 학교가 있음. 학교를 제외하고 다른 시설들은 모든 시군에서 대부분 동읍 지역에 밀집해 있어 면단위 거주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취약함. 지역아동센터는 면단위까지 다수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청소년시설 중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참여율이 다소 높으므로 면 지역에 있는 센터의 경우 청소년 대상 사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

-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한국어 및 한국 생활 적응 지원을 중도입국청소년에 집중시키고, 청소년기에 필요한 사회성 및 리더십 개발, 진로 코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지도, 상담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센터 내 청소년 전문인력이 필요함. 전담전문인력 없이는 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이 외부기관 연계로만 이루어지거나 청소년 사업이 초등학교 이하 아동에 대한 사업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우려는 전북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이 2018년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해 실시한 사업들에서 많이 나타남. 실시한 사업의 유형은 진로지원, 학습 및 이중언어 지원, 심리정서적 안녕 및 관계성 증진의 3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지원 사업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비해 사업의 총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중도입국 및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전무함. 또한 대부분 초등학교생으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중고생 대상의 사업이 매우 부족하고, 중고생이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도 초등학교생과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중고생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진로지원 사업의 경우 초등학교 위주로 진행되어 중고생 대상 사업이 부족하고 중고생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초등학교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발달단계에 부합하는 진로지원이 미흡함. 그 결과 진로직업체험이 놀이 위주의 단순 체험으로 진행되고 있어 중장기 진로전망으로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 학습 및 이중언어 지원사업의 경우 학습지원에 대한 청소년의 요구가 크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센터들만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마저도 초등학교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교육부의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이중언어 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한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으나 지역 현장에서의 사업 실시는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학습 지원의 경우 사업의 중복성이 문제적이기보다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청소년들에게 유용하다는 인식이 필요함. 따라서 교육부 사업과 별개로 방문교육뿐만 아니라 방학 기간 등을 이용한 집중 보충학습 프로그램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학습 지원 서비스 자체에 대한 청소년들의 선호도, 필요성 인식이 낮다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습지원 정책 수단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함. 멘토나 방문교사와 같이 인적 자원을 매칭해 줄 것인지, 청소년의 선택권이 일정정도 허용되도록 현금 지원을 할 것인지 정책 수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함. 인적 자원을 지원할 경우 멘토나 방문교사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히 보증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또한 이중언어 교육 역시 이주배경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 사업이 아니게 설계하되 학교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청소년들의 의지와 선호에 기반하여 여러 언어를 교육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 심리정서적 안영 및 관계성 증진 사업은 가족관계 증진, 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사회성 발달 지원, 문화예술 활동 및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진행되었음.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사업은 초기 적응단계에 적합한 교육이 다문화가족 발달단계와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사업 부족도 개선되어야 함.
- 이주배경청소년의 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발달단계에 맞게 초등학교와 중고

생을 분리하거나 비이주배경청소년과 함께 진행하는 등의 바람직한 사업 모델이 진행되었지만, 이는 2개 시군 센터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센터들은 초등학생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었음. 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특히나 이주배경청소년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청소년 활동 지원정책 내에서 통합적으로 사업을 설계할 필요 있음.

나. 전북 청소년 시설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

-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시설, 프로그램, 청소년 지도사를 갖춘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복지지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학교밖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대표적임.
- 청소년 수련시설은 초등학교 고학년~중학생 중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돌봄 및 활동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위탁수행하고 있고, 여기에 중위가구소득 100% 이하의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전북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정 시설은 18개소로 김제시,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음.
 - 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은 많지 않음.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을 뿐 청소년 시설들이 이주배경청소년의 참여를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고 있음.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은 청소년 내부의 이질성보다 ‘청소년’이라는 동일성에 기반하여 사업을 진행하므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선별적 접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전체 청소년 지원 사업 내에서 통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업 필요성에 대한 무감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CYS-Net의 허브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개별 기관들에서 2차적으로 연계되는 전문기관으로 역할하고 있고 개별 기관 및 학교들의 요청을 받고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을 운용해 주거나 강사를 파견하는 등의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음.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와 연계한 사업시행은 거의 없었음. 청소년 수련시설은 지역복지협의체, CYS-Net, 지역돌봄협의체와 주로 연계하고 있음.

-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이 꼽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조건에 부합하고 사업이 도움이 될만한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임. 그 이유로는 첫째, 청소년들의 여가문화가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나홀로’형으로 바뀌면서 사회 참여 및 활동을 잘 하지 않는 것, 한 마디로 집 밖으로 잘 나오려 하지 않는 것 때문임. 두 번째는 인구규모가 적은 농촌 및 소도시의 경우 타도시와 동일한 사업 규모 및 예산을 배정받기 때문에 참가자의 중복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임.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방과후아카데미는 참여자의 소득 기준이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고 프로그램도 돌봄, 체험, 교육의 종합서비스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대상자 중복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함.

2. 전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델

- 네트워크는 수요자 이익의 최대화라는 공유된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과 조직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역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함. 지역복지는 상호연결된 사람들 간의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망을 통해 사회복지자원을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움의 총체이므로 공급 주체 어느 한 부문에 의해 배타적으로 지배되지 않음.
- 이러한 관점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델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 첫째, 네트워크의 지향점은 참여하는 기관의 이익이나 관심사의 실현이 아니라 ‘이주배경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것’임. 이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사업이나 중복사업을 단일화하는 방식의 조정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 지역사회의 자원과 서비스 연계를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의 다양화와 질의 제고

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마땅함.

- 둘째, 다문화가족정책 안에서 부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정책으로 통합적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청소년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이주배경' 특화 정책을 폐기하고 기존의 청소년 정책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청소년'이라는 특성을 중심에 두되, '이주배경'이 차별의 근거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체계가 필요함을 의미함.
 - 셋째,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 시설이나 학교를 네트워크의 허브로 하는 것은 '이주배경'이라는 특수성을 소거해버릴 가능성도 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의 다문화가족을 회원으로 등록하여 가족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에 기반하여 각 유관기관이나 외부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임.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네트워크의 허브로 하되 기관 중심 네트워크가 아니라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능별 네트워크별로 여러 개의 거점을 두는 것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방향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모델로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네트워크의 통합조정 거점기관으로 하고, 현재 부처별, 기관별로 산개되어 있는 지원사업들을 시행기관들의 고유 기능에 기반하여 특성화한 기능별 네트워크를 제안함. 구체적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전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네트워크 모델

3.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조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사업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함. 각 센터들은 아동청소년 사업 전담자를 배정하고 전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전라북도과 전북거점센터가 전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기획, 실시하고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전라북도 차원의 지역 사회자원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무주군교육청이 발간한 지역 사회자원 수록집 발간 사례에서 보듯이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시군에 국한된 정보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움.
- 셋째, 지역의 복지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이는 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제공서비스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서비스 및 대상자 중복과 사각지대의 발생을 피할 수 있음.
- 넷째,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환류체계가 부재한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임. 사실상 많은 사업들이 효과성 검증 없이 기존 사업의 반복 시행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차별화, 실효성을 꾀하기 어려움. 따라서 사업의 효과성을 꾸준히 검토할 수 있는 내재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 목 차 |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배경	3
나.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가.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이론적, 경험적 쟁점 고찰 : 문헌연구	6
나. 이주배경청소년의 서비스 만족도 및 욕구 분석 : 설문조사	7
다. 전북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현황 분석	9
라.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델 개발	10
3. 연구의 흐름도	11

제2장 이론적 배경

1.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이론적 쟁점 : 사회통합 유형과 목표	15
가.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	15
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목표로서의 사회통합의 의미	18
2. 이주배경청소년의 적응 및 발달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1
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21
나. 전라북도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4
다. 시사점	28
3.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	30
가.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법률	30
나.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본계획 분석	32
1) 제3차 다문화가족기본계획(2018-2022)	34
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39
3) 다문화교육지원계획(교육부)	40
다. 이주배경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44

제3장 전라북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수요 및 현황 분석

1. 전북 다문화가족 특성과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49
가. 전북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특성	49
나. 전북 이주배경청소년 인구 규모	54
2. 이주배경청소년의 서비스 만족도 및 욕구 분석	57
가. 응답자 기본특성	57
나.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	58
다. 사회생활	63
라. 정책에 대한 태도와 경험	69
3. 전북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현황 분석	76
가. 관련 기관/시설 현황	76
나. 사례조사 : 주요 사업내용 및 종사자 인터뷰	95
4. 소결	115

제4장 전라북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델 구축

1. 네트워크 개념과 특징	127
2.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델 개발 방향	130
3.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능별 네트워크 모델	132
가. 역량강화 지원 네트워크 모델	134
나. 심리상담 지원 네트워크 모델	135
다. 여가문화진로 지원 네트워크 모델	136
라.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모델	137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전북 이주배경청소년의 현황과 정책욕구	141
2. 전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델	146
3.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언	149

참고문헌	153
------	-----

부록 :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욕구 설문조사지	161
-------------------------	-----

표목차 | Contents

〈표 1-1〉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내용	8
〈표 1-2〉 이주배경청소년 설문조사 표본 할당(2016년 11월 기준)	8
〈표 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8년 청소년대상 사업실적 조사항목(예시)	9
〈표 2-1〉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의와 범위	16
〈표 2-2〉 사회통합 모형에 따른 정책의 목표	19
〈표 2-3〉 주요 정책별 사회통합정책 대상과 목표	20
〈표 2-4〉 전라북도 이주배경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	26
〈표 2-5〉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법률과 조항	31
〈표 2-6〉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추진체계 : 중앙-지자체, 민-관	33
〈표 2-7〉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중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36
〈표 2-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40
〈표 2-9〉 교육부 2018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	43
〈표 3-1〉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 외국인주민수, 결혼이민자귀화자수 현황	49
〈표 3-2〉 전국 시도별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	51
〈표 3-3〉 전북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	52
〈표 3-4〉 행정안전부 집계 전라북도 외국인주민자녀수 연도별 현황	54
〈표 3-5〉 교육부 집계 전라북도 다문화학생수 연도별 현황	55
〈표 3-6〉 전북 시군별 이주배경청소년 규모	56
〈표 3-7〉 전라북도 이주배경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특성	57
〈표 3-8〉 이중언어 가능 여부	58
〈표 3-9〉 학교 성적에 대한 인식	59
〈표 3-10〉 학업 수행에서 어려운 점	60
〈표 3-11〉 학교 내 관계에 대한 평가	61
〈표 3-12〉 학교폭력 경험 여부	61

〈표 3-13〉 학교폭력 유형별 경험	62
〈표 3-14〉 사교육 경험	62
〈표 3-15〉 평일 저녁시간에 하는 일(복수응답)	63
〈표 3-16〉 희망하는 교육수준	64
〈표 3-17〉 삶의 만족도	65
〈표 3-18〉 삶의 만족도 각 항목 간 상관관계	65
〈표 3-19〉 최근 고민거리(복수응답)	66
〈표 3-20〉 자신의 정서·신체 건강에 대한 평가	67
〈표 3-21〉 인적 지지체계 현황 및 지역사회 만족	68
〈표 3-22〉 관련 기관/시설 이용경험	69
〈표 3-23〉 다문화가족이라 하여 받았던 지원서비스	70
〈표 3-24〉 지원서비스에 대한 청소년들의 필요성 인식	72
〈표 3-25〉 향후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서비스	74
〈표 3-26〉 전북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76
〈표 3-27〉 청소년 수련시설의 유형 및 주요 프로그램	78
〈표 3-28〉 전라북도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개요	79
〈표 3-29〉 전라북도 시군별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현황	81
〈표 3-30〉 전라북도 2018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 현황	83
〈표 3-31〉 전라북도 청소년쉼터 현황	89
〈표 3-32〉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이용현황	89
〈표 3-33〉 지역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역할 분담 예시	90
〈표 3-34〉 전라북도 2018년 다꿈학교 현황	92
〈표 3-35〉 전라북도 2018년 다꿈학교와 주요 운영 프로그램	92
〈표 3-36〉 전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청소년 진로지원 사업실적(2018년)	97
〈표 3-37〉 전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청소년 학습 및 이중언어지원 사업실적(2018년)	101
〈표 3-38〉 전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청소년 심리적 안녕관계성 증진 사업실적	104
〈표 3-39〉 전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2018년 청소년 대상 사업실적 종합	122
〈표 4-1〉 전북 이주배경청소년의 역량강화와 관련한 주요 연구결과	134

〈표 4-2〉 전북 이주배경청소년의 역량강화 지원 네트워크 세부 내용	135
〈표 4-3〉 전북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정서와 관련한 주요 연구 결과	136
〈표 4-4〉 전북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상담 지원 네트워크 세부 내용	136
〈표 4-5〉 전북 이주배경청소년의 여가문화 및 진로 관련 주요 연구결과	137
〈표 4-6〉 전북 이주배경청소년의 여가문화·진로 지원 네트워크 세부 내용	137
〈표 4-7〉 전북의 다문화교육 관련 주요 연구결과	138
〈표 4-8〉 전북 이주배경청소년의 다문화교육 지원 네트워크 세부 내용	138
〈표 5-1〉 전북 이주배경청소년의 기능별 네트워크 모델	148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1-1〉 연구의 흐름도	11
〈그림 2-1〉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 종합계획(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6
〈그림 3-1〉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결혼이민자귀화자 비율	50
〈그림 3-2〉 전북 시군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	53
〈그림 3-3〉 서비스 수혜경험율과 필요성 인식 비교	73
〈그림 3-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서비스 지원절차	85
〈그림 3-5〉 청소년 동반자 사업의 업무흐름도	86
〈그림 3-6〉 1388청소년지원단의 운영체계	86
〈그림 3-7〉 꿈드림 사업 업무 흐름도	87
〈그림 4-1〉 전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델	133

1

장

서론

Jeonbuk Institute

-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 흐름도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 이민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 사회의 경험과 다문화 연구자들은 성공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이 이민1세대의 사회통합보다 자녀세대의 사회통합 정도에 달려있음을 공통적으로 강조해왔음.
 - 내국인 자녀와 이민자 자녀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이들의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누적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격차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이주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특정 사회계층을 형성하게 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손실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임.
- 최근 한국의 다문화 관련 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 개인과 가족의 취약성을 지원하던 것에서 자녀 세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다문화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책의 초점이 전환되고 있음.
 - 이주배경을 지닌 청소년을 가장 직접적이고 일상적으로 접하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선도적으로 제기되었고,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을 시작으로 이주배경청소년과 내국인 청소년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전개해왔음.
 -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부터 자녀 세대의 발달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을 도입하였고, 제3차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핵심정책으로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한 지배적 평가는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중심이고 사회통합을 위한 여건과 환경 조성 사업은 미흡하여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내국인 청소년들과 구별, 분리되어 낙인 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 프로그램의 측면에서는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체험, 멘토링 등 비

슷비슷한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영·유아기, 초등학생 자녀로 정책대상이 집중되고 중·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부족하여 청소년기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이러한 한계들은 첫째, 관련 정책들이 통합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정책의 궁극적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당면한 현안 이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 시행되어 왔기 때문임. 즉,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인구학적 변화와 이들의 집단적 하향화 및 그로 인한 갈등에 대응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임. 당장의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이라는 낙인 효과를 발생시킬.
- 각 부처별 정책계획서들은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배경으로 첫째,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양적 증가로 이들이 가시적인 사회집단으로 부상한 점, 둘째, 연령 상승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증가, 이혼·재혼·가족재결합 등으로 인한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자녀 유형의 등장 등 이주배경청소년 내부의 이질성이 증가한 점, 셋째,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발달 및 적응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국인 청소년들과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정책 배경들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응하는 것에 정책의 목표가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줌.
- 취약성을 보완하여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주배경청소년 전체를 소외계층으로 인식하게 하여 결국 사회통합이 저해될 수 있음. 집단 범주가 차별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강점 중심의 접근, 전반적 다양성 수용도 증진 정책과의 균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통합 정책으로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은 전체 청소년 정책 하에서의 통합적 접근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주배경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최소화하고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 집행되어야 함.
- 둘째, 지역의 특성과 자원 가용성을 고려한 지역형 사업보다 중앙정부 주도 사업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김도혜, 2012; 양계민 외, 2017), 사업의 일률성과 중복 시행, 정책 대상연령의 편중과 배제의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관련 부처들이 근거하는 상위법과 정책 정의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이 다양한 명칭과 범주로 분류되어 정책적 고려 대상으로 포섭되거나 배제됨. 또한, 별도의 사업예산으로 각기 정책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부처 간, 중앙-지자체-민간단체 간의 정책 경쟁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정책 수혜자 및 사업의 중복이 일어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현실적 경험과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정책이 유연하게 집행될 때 개선될 수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 주도성이 필요함. 정책 네트워크의 필요성도 이에 기반함.
- 셋째,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환류체계가 부재한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임. 사실상 많은 사업들이 효과성 검증 없이 기존 사업의 반복 시행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차별화, 실효성을 피하기 어려움. 따라서 사업의 효과성을 꾸준히 검토할 수 있는 내재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지역적 특성과 정책 자원에 기반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델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첫째,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의 실행주체별 사업영역과 대상 범위 등 현황 파악을 통해 각 실행주체별 고유성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의 중첩과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이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 이주배경청소년은 ‘이주’라는 소수자로서의 제약을 받음과 동시에 ‘청소년’이라는 권리와 제약을 갖는 다중적 존재이므로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은 현행 다문화 가족지원정책, 청소년 정책, 학교 교육 정책이 중층적으로 결합된 성격을 가짐.
 - 이들 정책은 중첩되기도 하지만 각각의 고유성도 가지고 있는바 각 정책들의 사업 내용과 범위에 대한 정확한 현황 분석이 필요함. 특히 정책이 직접 실행되는 지역 현장에서는 관련 실행 기관/기구들의 유무에 따라 서비스의 중첩이나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게 마련임. 따라서 실행기관/기구의 고유성은 유지하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중첩되거나 공백인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역할 대체 및 연계

사업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 둘째, 부처별 정책 목표와 정의에 기반하기보다 전라북도 이주배경청소년의 삶과 생활 경험, 즉 수요에 기반하여 핵심 정책 영역과 일반 정책 영역으로 정책을 재설계하고 이에 기반하여 기능별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 전라북도 거주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책 만족도 및 욕구에 대한 조사는 전수조사로 이루어진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자녀 부가조사에서 이루어진 이후 실시된 바가 없음. 당시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사업은 대부분 언어 교육과 학습지원, 사회적응 지원 사업에 치중된 반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은 진로 상담 및 진로교육과 학습지원이었고 한국어 및 사회 적응 교육 욕구는 낮았음.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정책욕구는 '이주'라는 소수자성보다 청소년기라는 발달상의 요구와 일치하였음.
 - 수요자 요구분석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은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오히려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당사자들이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거나 지원에 대해 거부감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음. 정책과 수요의 미스매치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이론적, 경험적 쟁점 고찰 : 문헌연구

-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 용어와 범주 구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이주배경청소년은 관련 법령과 부처에 따라 다양한 용어들로 지칭되고 있으며 이들 정책 용어가 포함하는 범주도 상이함. 이에 따른 정책 영역 및 대상의 중복과 배제의 문제를 검토하고 용어 부여의 원칙을 정립
- 사회통합 정책으로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목표 정립
 -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한 서구의 경험과 이론 고찰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에 부합하는 사회통합 유형과 목표 도출
 -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통합적 접근의 타당성 검토

- 이주배경청소년의 삶과 생활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이주배경청소년의 발달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 핵심영역 등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도모
-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 동향 분석
 -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분석 연구들을 검토하여 그동안 제안된 정책영역 및 과제들을 정리, 이를 전국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

나. 이주배경청소년의 서비스 만족도 및 욕구 분석 : 설문조사

- 조사 목적
 - 정책의 효과 및 정책 욕구 파악을 목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조사 내용
 -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청소년 자녀’ 조사표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조사표를 참고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과 생활실태, 정책 이용 및 도움 정도, 정책욕구를 중심으로 구성함.
- 조사 대상
 - 지역, 학교급별 제곱근비례 할당하여 총 300명 조사
- 조사 방법
 - 시군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조사 진행

〈표 1-1〉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내용

항목	조사내용
개인 특성	연령, 성별, 학교 재학 여부
가족 특성	주관적 계층의식, 부모의 외국인 여부
언어 능력	외국 출신 부모와 의사소통시 사용언어, 사용가능한 외국어, 외국 출신 부모나라 언어실력
학교 생활	학교 공부의 어려운 점, 집단괴롭힘 경험, 학업성취도, 성적만족도, 학교생활 적응(5), 과외 학습활동 여부
사회 생활	평일 저녁 시간에 주로 하는 일
진로	희망하는 진학 학교급, 진로 의식(결정성),
주관적 안녕	자아존중감, 만족도(외모, 학업, 학교생활, 친구관계, 가족관계), 행복, 우울, 고민
건강	건강상태
다문화수용도	문화적응스트레스(3), 이중문화 수용태도(3),
사회적 지지	친구수, 부모의 지지(2문항), 교사의 지지(2문항), 친구 지지(2문항), 지지망의 유무와 유형, 이웃안전 인식(5)
정책에 대한 태도	지난 1년간 이용한 기관/시설, 지난 1년간 정책 수혜, 지원/참여 정책, 정책 도움정도, 향후 원하는 지원 내용,

〈표 1-2〉 이주배경청소년 설문조사 표본 할당(2016년 11월 기준)

	만9세 이상 외국인주민 자녀		제공근비례할당			
	전체		전체	초등 (만9-12세)	중등 (만13-15세)	고등 (만16-18세)
전라북도	3,088	100.0	300	130	93	77
전주시	575	18.6	37	15	12	10
군산시	367	11.9	29	13	8	8
익산시	507	16.4	34	15	10	9
정읍시	267	8.6	25	10	8	7
남원시	200	6.5	22	9	7	6
김제시	187	6.1	21	9	7	5
완주군	228	7.4	22	11	6	5
진안군	95	3.1	16	7	5	4
무주군	63	2.0	11	5	4	2
장수군	107	3.5	15	7	4	4
임실군	82	2.7	15	6	5	4
순창군	109	3.5	16	7	6	3
고창군	170	5.5	19	8	6	5
부안군	131	4.2	18	8	5	5

자료 :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7.11.1. 공개)

다. 전북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현황 분석 :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 정부문서를 통한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추진체계, 정책영역, 정책과제 분석
 - 정부 부처 및 전라북도에서 발행한 각종 기본계획, 사업지침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처별, 중앙-지자체별로 구분된 정책영역 및 과제를 내용별로 재분류하여 네트워크 모델의 내용 및 기능을 구성함.
-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시설들에 대한 조사 : 사례조사 및 인터뷰
 - 청소년 정책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청소년 활동 및 상담 시설의 2017년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사업의 내용, 목적, 이용현황 등을 파악함.
 - 기관별 고유성 확인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에서의 위상과 역할 도출
 - 이용현황 파악 : 이주배경청소년의 접근성, 편의성, 편익성 등을 파악
 - 사업내용 및 목적 : 이주배경청소년 연계사업 전망 도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전라북도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 다문화지원팀의 업무협조를 14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2018년 청소년 대상 사업실적을 서면으로 조사

〈표 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8년 청소년대상 사업실적 조사항목(예시)

기관명						청소년 참여자 기본통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사업 목적	사업 유형	사업 대상	사업 기간	주요 내용	총 참여자수	이주배경 청소년
			①공통(중앙) ②공통(전북) ③자체				00명	초등 0명 중등 0명 고등 0명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 “다꿈 학교”라는 브랜드명을 부여하고 유형을 구분하여 운영.
 - 담당 장학사의 업무협조를 받아 다꿈학교 유형별로 학교급별 1개교씩 추천을 받아 담당교사 인터뷰 실시. 인터뷰 내용은 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의 적정

성, 프로그램의 긍정, 부정적 측면,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향후 지원의 방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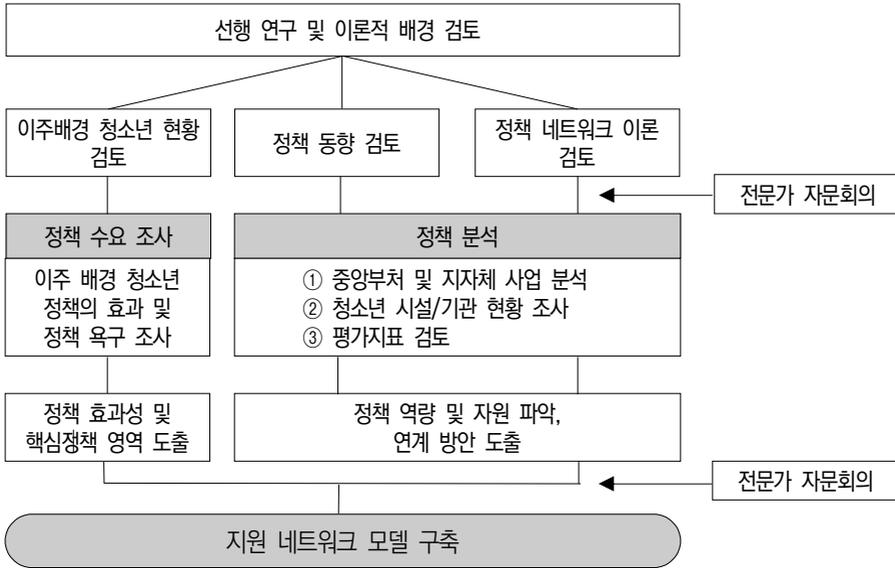
- 다꿈키움학교 : 다문화교육의 지역거점 학교로 문화다양성 교육, 이중언어교육,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 인터뷰 대상 학교는 언어교육 이외의 프로그램이 활발한 초등학교, 중학교 각 1개교씩임.
 - 다꿈사랑방학교 :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인터뷰 대상 학교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 중학교 각 1개교씩임.
 - 다꿈터학교 : 다문화교육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인터뷰 대상 학교는 다문화이해 증진 및 진로 프로그램이 잘 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교씩임.
- 청소년 활동 및 상담 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현황을 조사함.
 - 청소년 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인적 유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배경청소년의 이용 현황 파악이 조사 목적은 아니며, 타 기관과의 연계사업을 모델링하는데 필요한 사업의 내용과 목적, 효과 등을 파악함.
 - 청소년 활동 시설은 국가 정책사업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시설로 지정된 곳 3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4개 지역의 센터를 방문하여 조사함. 조사내용은 다꿈학교 조사와 동일함.

라.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델 개발

○ 네트워크의 개념, 방향, 운영원칙 수립 : 문헌연구

- 네트워크는 전달체계와 혼용되는 측면이 있으나, 수요자 이익의 최대화라는 공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과 조직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김희연·한인숙, 2002) 지역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지역복지론 관점에서의 네트워크 이론을 중점적으로 검토함.

3. 연구의 흐름도



〈그림1-1〉 연구의 흐름도

2

장

이론적 배경

Jeonbuk Institute

-
1.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이론적 쟁점 : 사회통합 유형과 목표
 2. 이주배경청소년의 적응 및 발달 현황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3.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이론적 쟁점 : 사회통합 유형과 목표

가.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

- 이주배경청소년은 관련 법령과 부처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학생, 외국인주민 자녀’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정책 용어가 포함하는 범주도 상이함.
- 행정안전부는 매년 11월에 직전년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를 통해 ‘외국인주민 자녀수’를 공개함. ‘외국인주민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국적자의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의미함. 즉, 부모 중 한 명 이상은 외국 출신이면서 한 명 이상은 반드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의미함. 외국인주민 자녀의 범주는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중도입국 자녀)와 국내 출생자녀로 구분됨. 따라서 부모 모두가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부모의 자녀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이 정책범주는 국적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 청소년’ 구분도 이와 동일함. 다만 외국인주민 자녀는 국내 거주자 전체를, 다문화가족 자녀는 집단거주시설 거주자를 제외하고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다문화가족 자녀수가 외국인주민 자녀수 보다는 적게 추산됨(행정안전부, 2017).
- 교육부에서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정책 대상이므로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다문화학생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로 구분되는데, 행정자치부 기준과 달리 외국 출신 부모의 국적 취득 여부는 고려되지 않음. 이는 UN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함임. 이에 행정자치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부모 모두가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부모의 자녀도 범주에 포함됨(교육부, 2018). 교육부의 정책 범주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청소년들은 포함되지 않음.

〈표 2-1〉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의와 범위

부처	정책 명칭	정책대상의 정의	포함 범주		미포함 집단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자녀	부나 모 한 명 이상이 외국 출신이고 이중 한 명 이상이 한국인(귀화자 포함)인 가구의 미성년 자녀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중도입국 자녀	부모 둘 다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부모의 자녀
			국내출생 자녀		
교육부	다문화 학생	부나 모 한 명 이상이 외국 출신인 (국적 취득 무관)가구의 재학 중 자녀	국제결혼 가정 자녀	국내출생 자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국제결혼 혹은 외국인가정의 자녀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자료 :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7.11.1.)
교육부,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2018.2)

- 정책 명칭과 범주의 상이함은 체류 자격과 정책적 편의로 신분이 한정됨으로써 이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적 배제를 초래함.
 - ‘다문화’ 혹은 ‘다문화가족’을 전제한 용어는 ‘다문화’의 본원적 의미와 달리 정책적 정의에 따라 ‘국제결혼’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가정의 자녀는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자녀’ 혹은 ‘아동’을 정책 용어에 포함하는 경우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 연령대를 주로 상정하기 때문에 10대 후반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한 문제들을 다루기 어려움.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연령대는 부모의 전적인 보호 하에 있기 때문에 이민자인 부나 모의 적응과 사회통합이 중요하지만, 10대 후반의 청소년기에는 자아가 형성되고 본인의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이므로 부모보다는 이들 스스로의 사회통합 수준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사회통합에서 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존재가 바로 10대 후반의 청소년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함.
 - 개념에 ‘학생’을 전제하게 되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배제되기 쉬움. 실제로 이주배경청소년의 취학률은 한국인 청소년의 취학률보다 저조하며 학교를 중단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동아일보, “다문화 학생, 학업 중단 비율 해마다 높아져. 2015.10.8.).

- 용어 부여 원칙은 체류자격의 구분과 대상별 정책 접근을 위한 용어 대신 필요한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가치와 상징이 제거된 기술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다양한 이주 배경을 지닌 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 사용을 통해 출신국, 국적, 이주경로 등에 따른 대상화 및 낙인효과를 제거할 수 있고 중복과 배제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은 ‘이주’와 ‘청소년’이라는 공통점에 기반한 포괄적 용어이므로 범부처적인 정책 용어로 기능할 수 있음. 2006년 출범한 ‘재단법인 무지개청소년센터’가 20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도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청소년들을 포괄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 외국의 경우 이민 청년(immigrant youth), 이민2세대(immigrant second generation), 이민 청소년(immigrant adolescent)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민족/종족 내 혼인에서 출생한 자녀 세대나 가족 단위 이민자들의 자녀, 즉 수용국 입장에서 부모 둘 다 외국 출신인 가족의 자녀 세대임. 내국인과의 결합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내국인으로 간주되므로 이민/사회통합 정책의 대상은 아님(Berry et al., 2006).
- 이민2세대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은 대부분 수용국 사회로의 동화 정도에 서의 세대간 차이와 그로 인한 이민자 집단 내 세대갈등/단절, 그리고 그것이 민족/종족적 소수자 집단 형성,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나(e.g., Portes & Hao, 2002; Portes et al., 2009; Ellis & Almgren, 2009), 보다 최근의 연구 관심들은 이민2,3세대가 수용국 사회에서 하층 계급을 형성하게 되는 사회적 과정, 예를 들면 학교-노동시장 이행에서의 구조적 어려움, 취약한 정신건강 등에 주목하면서 이민 2,3세대의 삶을 통해 동화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e.g., Farris et al., 2014; Salas-Wright et al., 2014; Terriquez & Kwon, 2015).
- 한국의 이민2세대들은 대부분 국제결혼을 통한 국내 출생자가 대부분이며 부모가 둘 다 외국 출신인 경우는 적고 이 경우에도 영주권자의 자녀보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단기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족/종족적 이질성으로 인한 사회적 분리/구분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함. 서구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사회통합 정책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국제결

혼 가정이 계층적으로 하층 가족으로 존재하기 때문임. 따라서 이민2세대들에 대한 정책은 이민자 통합보다는 광범위한 사회정책 하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음.

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목표로서의 사회통합의 의미

-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뿐만 아니라 이민자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낮고 중복 투자되거나 공백인 정책 영역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는 장기적 목표 없이 현안에 대응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 집행되어온 결과임. 이는 이주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목표 하에 정책을 수립, 집행, 평가하는 것으로 극복 가능함(설동훈김명아, 2008).
- 이민수용국 사회가 이민자를 통합하는 방식은 구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모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키슬과 밀러, 2013). 구분배제유형이 외국인이나 이민자에게 가장 배타적인 유형이라면, 다문화주의모형은 가장 우호적 태도를 취하며, 동화모형은 그 중간에 해당됨.
 - 구분배제모형은 3-D직종의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사회정치적 영역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내출생이 대부분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통합 모형으로 적절하지 않음.
 - 동화모형(assimilationist model)은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문화·사회적 특성을 포기하고 주류사회의 성원들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기 때문에 문화적 단일성 유지를 목표로 함. ‘동화’는 주류사회와 이민자들 사이의 종족적·인종적 구별이 사라지는 과정을 가리키는데 동화에도 두 유형이 존재함(Gordon, 1975;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6). 하나는 이민자들이 수용국 사회의 생활방식에 적응하는 것으로, 고든(Gordon)은 이를 ‘흡수 동화’로, 국제이주기구(IOM)는 ‘동화’로 구분함. 또 다른 하나는 이민자와 수용국 사회가 서로의 이질적 행동 유형과 가치를 쌍방이 받아들이며 문화적으로 섞이는 과정으로 고든은 이를 ‘용광로 동화’로, 국제이주기구는 ‘쌍방적 통합’으로 정의함. 즉 ‘흡수동화(동화)’가 이민자가 주류사회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용광로 동화(쌍방적 통합)’은 이민자와 주류사회의 문화가 한 데 섞여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함.

- 다문화주의 모형(multicultural model)은 이민자들이 출신국의 문화를 지켜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여 이민자들의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을 정책 목표로 하며 다양한 하위문화들이 평등하게 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원적 사회를 지향함.
- 한국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동화 모델은 나쁘고 다문화주의 모델은 좋다’는 인식과 달리, 동화와 다문화주의의 각 모델은 사회적 통일성(공동의 가치관과 문화적 관습)과 다양성(서로 다른 가치관과 관습)을 목표로 하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이민자에 대한 차별 제거를 목표로한다는 점에서 비교우위를 논할만하지 않으며, 각 모델의 적용은 수용국의 역사, 사회적 맥락과의 ‘선택적 친화력’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또한,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하나의 모형만을 고수하지 않으며 정책화 과정에서 혼합접근을 사용함.

〈표 2-2〉 사회통합 모형에 따른 정책의 목표

사회통합 모델	흡수동화(동화)	용광로 동화(쌍방적 통합)	다문화주의
사회통합의 과정	이민자의 수용국 단일문화로의 편입	이민자와 수용국 사회의 쌍방적 적응을 통한 공동문화 형성 추구	하나의 주류문화 대신 다양한 하위문화의 추구
사회통합의 목표	구분, 차별의 완전한 제거, 일원적 사회		다원적 사회
	통일성 ←		→ 다양성

○ 한국의 경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2조(기본이념)에서 사회통합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통합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부처별로 사회통합의 대상자, 내용 및 범주에 대해 각기 상이한 규정을 갖고 있어 정책목표로서의 사회통합의 구체적 정의와 내용이 불명확함.

- 법무부의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0-2012)은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의 기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정착가능성이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중점 지원, 둘째, 사회적응력이 낮은 자를 우선 지원하여 사회적응력을 높임, 셋째, 입국 초기 이주민을 우선 지원, 넷째,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우선 지원한 후 직업교육 등 여타 교육을 이차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수립하였음. 이는 한국

의 사회통합 정책이 ‘흡수동화’ 모델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줌.

- 다문화가족정책도 정책의 비전은 ‘다문화사회’를 표방하지만 정책의 목표에서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자신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회통합’으로 간주하고 있음.

〈표 2-3〉 주요 정책별 사회통합정책 대상과 목표

주요 정책	비전	사회통합의 대상	정책목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익제고, 사회통합 실현	합법체류 외국인	다문화포용, 이민자와 국민의 동반성장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인권보장 정책수립체계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08-2012)	외국인과 더불어사는 열린사회 구현	모든 외국인, 내국인	우수인재 유치,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인권·다문화민원편의 제공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3-2017)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합법체류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 강조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 실현	결혼이민자와 자녀	차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0-2012)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결혼이민자와 자녀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2017)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결혼이민자와 자녀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목표는 상위 정책들의 목표에 따라 ‘흡수동화’로 규정되는 것이 자연스러움. 다만, 한국의 집합적 국제결혼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국제결혼 가정이 계층적으로 하층에서 구성되어 있음을 주되게 고려해야 함. 즉 이주배경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이주’라는 소수자성보다는 ‘하층 가족’이라는 계층적 문제와 더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음. 이는 뒤에서 살펴볼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와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에서 자세히 언급할 것임.
-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목표를 이들이 겪을 수 있는 광범위한 차별을 해

소하는 것에 둘 때,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사회적 권리에의 접근성을 증진하는 세부 목표를 수립하고 이 접근성의 제약이 ‘이주’라는 소수자성에서 비롯되는지, ‘하층 가족’이라는 계층적 문제에서 비롯되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2. 이주배경청소년의 적응 및 발달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연구팀은 2010년부터 다문화청소년 패널을 구축하여 2011년부터 현재까지 7차에 걸친 종단연구자료를 축적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시리즈를 매년 발간하고 있음. 2018년 현재는 2차 패널(second wave)을 구축하고 있음. 패널 1차 웨이브에 대한 종단조사가 마무리된 2017년 총괄보고서(양계민 외, 2017)에는 그간의 종단연구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2006년~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수행된 국내 실증연구물 167편에 대한 내용분석이 담겨있음.
- 이 절에서는 2017년 총괄보고서(양계민 외, 2017)에 담긴 국내 선행연구 분석 결과와 7개년 종단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것으로 국내 이주배경청소년 전체의 현황 파악을 같음하고, 전라북도 이주배경청소년의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물을 별도로 검토함.

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 양계민 외(2017)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연구된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연구들은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문화적응과 관련된 연구로 나타나 국내 연구자들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연구관심이 대부분 ‘이주’라는 소수자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자들이 갖는 이러한 기본가정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갈등, 부적응, 결핍, 우울 등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결과로 이어지고 있었음.

- 또한, 이주배경청소년 내부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들을 단일한 집단으로 간주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오히려 방해받았을 가능성이 큼. 예컨대,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겪는 부적응과 어려움을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특징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나아가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형성하는데 기여함.
- 양계민 외(2017)의 종합적 리뷰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이 이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데에는 ‘이주’라는 변인의 영향력을 선형적으로 전제한 연구 경향과 다양한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들의 사회적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지금부터 양계민 외(2017)에서 검토한 선행연구 경향을 학교생활 적응, 심리사회적 적응 및 정신건강, 진로, 문제행동, 패널 종단조사를 통한 발달추이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학교생활 적응

- 사회적 통념과 정책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더 부적응적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연구결과들은 연구방법, 연구의 대상,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상반된 혹은 다양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음.
- 질적방법을 수행한 연구의 경우, 대부분이 학교생활, 학업, 의사소통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적응상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상은 언어와 문화 차이에 따른 부적응의 문제가 더 클 수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 또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어서 국내출생자가 80% 이상인 이주배경청소년 전체를 설명하는 것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움.
- 반면, 양적방법의 경우 다수의 연구들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은 내국인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영향요인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주요 요인으로 ‘이주, 다문화’ 요인보다 가정 및 경제적 요인, 즉 계층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는 시사점들이 도출되었음.

-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학업성취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등의 면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학교생활만족도는 내국인 청소년보다 더 높거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다수의 연구들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다문화 요인의 영향은 없거나 적은 대신, 또래 관계, 가족의 지지, 가정 및 경제적 배경, 학교 및 지역사회 변인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결과들이 도출되었음.

2) 심리사회적 적응, 자아정체성

-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연구들은 주로 비(非)이주배경청소년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초기 연구들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 수준이 낮다는 결과를 보였으나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언어 및 심리사회적 발달수준,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의 변인에서 비(非)이주배경청소년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함.
 -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학교생활 적응과 유사하게 학교, 가족, 친구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청소년의 일반적 발달 영향요인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 주로 한국인정체성, 국가정체성, 민족 또는 이중문화정체성 등으로 정체성을 다룬 연구들이 많음.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다중적 혹은 혼종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고 이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닌다고 보고함.

3) 진로

- 이주배경청소년이 비이주배경청소년에 비해 일률적으로 진로발달 수준이 낮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대다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하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계층적 요인에 의한 진로격차의 발생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은 사회적 지지와 같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을 둘러싼 지지집단의 중요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과 다르지 않음.

4) 문제행동

-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결과는 서로 상반되는 결과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이주배경청소년이 비(非)이주배경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문제행동을 일으킨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그보다는 청소년의 성장환경이 중요하다는 청소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결과로 해석됨.

나. 전라북도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전라북도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검색한 결과, 정책연구보고서 2편, 학술논문 2편, 학위청구논문 3편으로 총 7편의 연구물이 검색되었음.
 - 정책연구보고서 2편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전반적 생활실태를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부모, 교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등 제3자의 평가와 해석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생활세계를 분석하고 있고, 학술논문 2편은 비이주배경청소년과의 비교, 전북 지역과 타지역 이주배경청소년과의 비교 연구물임.
 - 학위논문은 주변인들의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연구, 초중학교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초등 고학년 다문화학생의 부모역할대행(부모화)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3편으로 연구 주제와 분석 대상이 모두 상이함.
- 연구 결과들은 집단 간 비교에서나 전북 이주배경청소년 내부 분석에서나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부정적 경험이나 인식, 발달상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보여줌.
 - 유치원에 다니는 이주배경유아의 경우 비이주배경유아와 발달상의 차이가

없으며(박신규, 2011), 교사에 대한 신뢰도, 학교생활만족도, 복지욕구 우선 순위, 가족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수준에서 비이주배경청소년과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김홍주 외, 2010). 또한, 전북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나 무사차별 경험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박신규, 2016), 부모들의 자녀의 학교 및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설동훈 외, 2015).

- 이상과 같은 전북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발달에 대한 긍정적 결과들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상의 어려움이 주로 양육교육을 전담하는 외국출신 어머니의 소통능력 및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온다는 일반적 결과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 오히려 이러한 가정영역에서의 한계를 '지역'의 공동체성이 극복해줌으로써 '이주배경'이라는 특수성이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거나 낙인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설명됨.
 - 구체적으로 지역의 양육, 교육 기관이 가정생활 영역을 대체하거나(박신규, 2011),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어머니의 소통능력 한계를 극복하고, 또래 학생들도 이주배경청소년들과의 일상적 대면을 통해 언론 등에서의 고정관념을 수정하는 것으로 나타남(이희옥, 2010).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 가정생활을 대체하는 지역보호가 작동하며 도시에 비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다수자여서 정책 지원 경험도 많고 이것이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으로 인식되지만, 도시지역의 경우는 방과 후에 사교육이나 방치 형태로 생활이 이루어지거나 학교생활에서도 '낙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박신규, 2011).
- 정책과 관련해서는, 2012년 전국조사결과에서 전북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경우 대다수가 정책수혜 경험이 없고, 진로상담교육, 학습지원, 직업기술 훈련 욕구가 높는데 비해 정책 지원이 집중된 한국어, 사회적응 교육 욕구는 낮아, 정책과 욕구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박신규, 2016). 또한, 2015년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60% 정도만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로는 나이가 많아서, 취업중이어서, 적합한 학교를 찾기 어려워서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여타의 국내 연구들과 유사하게 '이주 배경'보다는 가족의 경제적 수준, 개인적 기질이 발달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의 가장 큰 차이는 가정경제력이었으며, 두 집단 모두 가정경제 및 개인의 학업수준이 지역사회 자원이용을 결정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홍주 외, 2010).

〈표 2-4〉 전라북도 이주배경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

유형	연도	논문명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연구 보고서	2011	박신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생활세계 분석 및 지원방안』. 전북연구원	질적 연구	여성 결혼 이민자, 교사와 다가센터 종사자	가정생활, 학교생활 정책경험과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언어발달 우려로 초기에 유아기관 입소 -유아기관이 전반적 교육역할 수행하며, 발달상의 차이는 비다문화 유아와 별로 없음 -초등자녀의 경우 한국인 아버지 역할 부재로 부모의 교육역량 한계가 존재 -이중언어 교육 경험 많으나 동기부여 부족으로 지속적인 언어습득으로 이어지지 않음 -농촌지역은 방과 후 지역보호가 작동하나 도시의 경우 사교육이나 방치 형태로 지냄.
	2015	설동훈 외.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전라북도	양적 연구	여성 결혼 이민자 귀화자	자녀의 학교생활, 가정생활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 이유로 학교 공부, 한국어 미숙을 지적함 -자녀가 학교에서 차별받은 경험은 학생들로부터가 18% 내외, 교사에 의해서가 10% 내외로 다소 낮음 -중도입국 자녀의 38.5%가 학교 비재학. 이유로는 나이가 많아서, 취업, 적합한 학교를 찾기 어려워 순임 -응답자의 23.2%가 자녀들이 외국출신 부모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고 평가
논문	2010	김홍주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특징: 일반청소년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9(1)	양적 연구	다문화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	생활실태, 복지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다문화청소년과의 비교연구 -가정 경제력 차이가 확인 -소득이 낮은 다문화청소년에서 학업수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강함 -교사에 대한 신뢰도, 학교생활만족도, 복지욕구 우선순위, 가족 의사소통, 상호작

유형	연도	논문명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 수준에서 두 집단 간 차이는 없음 -두 집단 모두 경제 및 학업수준이 지역사회 자원이용 결정요인
	2016	박신규. 지역 다문화가족 청소년 실태와 지원정책 개선방안: 경북과 전북 사례 비교. 『다문화와 디아스포라』 8	양적 연구	국제 결혼 가족 자녀	가정생활 학교생활 정책수혜 및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래보다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학교를 다님 -중도입국청소년 46.1%가 학교 비재학 -학교폭력, 차별무시 경험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 -현재 고민은 공부, 진로, 경제적 어려움, 외모 순서임 -국내출생자녀는 96.5%, 중도입국자녀는 70.0%가 정책수혜 경험없음 -진로상담교육, 학습지원, 직업기술 훈련 욕구가 높고, 한국어, 사회적응 교육 욕구는 낮음
	2010	이희옥. 『부안 지역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학생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조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질적 연구	다문화 학생 담임 초등학교사, 다문화 학생 학급 초등학교 학생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외국출신 어머니의 의사소통 능력 한계 극복 -교사의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은 '다문화'보다 '학생'에 중점, 개인의 기질적 특성과 성장 발달 과정으로 인식 -학생들은 일상에서의 직접 대면을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수정 -다문화학생의 어려움은 '다문화'보다 계급, 개인의 기질, 성장기 특징 요인이 더 큼
학위 청구 논문	2011	박영철.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학교적응 영향요인 분석: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양적 연구	초, 중학교 다문화 학생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심리적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 학교적응 수준은 중간 이상으로 높아 나쁘지 않음 -자긍심, 긍정적 감정, 아버지의 직업, 부모의 부부관계, 가족지지, 어머니 모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 -학교급별(중학생), 어머니의 출신국(필리핀), 어머니 직업(무직, 판매서비스직)은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
	2016	박선주.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화	양적 연구	다문화	부모역할 대행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화 정도는 낮은 편으로, 비다문화 청소년들의 부모화

유형	연도	논문명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변인	주요결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전북지역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생 초등학교 학생	정도, 아동심리적 요인, 가정환경 및 관계	경험 수준과 유사 -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화 경험은 출생순위가 많이일수록, 수치심·죄책감이 높을수록, 경제 적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양육 태도가 거부적이고 통제적일수록, 애착이 낮을수록 부모화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다. 시사점

- 많은 연구들이 이주배경청소년 내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주’라는 단일특성을 가진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함으로써 이주노동자 자녀나 중도 입국청소년들의 부적응과 어려움을 이주배경청소년 전반의 특징으로 호도 하여 잘못된 이해와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쳐왔음. 따라서 연구대상이 이주배경청소년 중 어떤 유형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유형별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야 할 것임.
- 비(非)이주배경청소년 집단과의 비교 연구들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회 통합 수준이나 과제 모색을 위한 적절한 방법임.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발달 수준이나 요구 등은 비(非)이주배경청소년과 크게 다르지 않고 청소년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 내용이라 할만한 것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및 진로 등에서 차이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비교 대상인 두 집단의 배경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담보하지 않은 단순 비교때문일 가능성이 큼.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상대적 어려움이나 차이는 ‘이주’라는 특성보다는 사회경제적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큼. 따라서 ‘이주 배경’이 계급, 지역 등 여타 사회적 범주와 교차하여 어떤 취약한 조건으로 작용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지역의 공동체성이 이주배경청소년의 발달상의 어려움 해소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전라북도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발달에 대한 지역의 긍정적 영향은 정책이 지역과 커뮤니티에 기반할 때 개별 다문화가정이나 결혼이민자들의 역량 부족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줌.

3.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

가.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법률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의 법률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북은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 자녀 관련 법률들은 국내 출생과 국외 출생 자녀의 사회문화적응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법률들의 각 조항을 살펴보면,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 취학 아동의 학습 수행 지원,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한국어 교육 등 보육과 교육에 주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대한 명시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한국국적을 지니지 않은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이주노동자가정의 자녀, 미등록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의 법률에서 인정되고 있지 않음. 이 밖에도 학대나 가정 해체, 탈학교 등 위기상황 및 건강지원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다문화이해증진의 경우 그 중요성과 구체성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를 필수요소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족이나 그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 등 지원대상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음.
 -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외에 중도입국청소년과 이주노동자가정 자녀를 포괄함. 그러나 복지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 및 성장을 위한 전반적 지원 규정은 미흡한 한계가 있음.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학력심의 위원회를 거쳐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교육권을 보장함. 그러나 공교육진입에 대해서만 지원을 명시했을 뿐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나 학교 차원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의 의무 등은 다루지 않고 있어 다문화교육 증진에서는 한계를 지님.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다문화 이해 증진 및 불합리한 제도 시정 등을 제시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과 이들에 대한 이해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러나 ‘합법 체류자’에 한하여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과 동시에 불법체류자 위치에 놓이게 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보호까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이라는 보편적 기준에서 볼 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표 2-5>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법률과 조항

법률	조항	주요내용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정의)	-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한국인, 혹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혹은 부부 둘 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 - ‘아동·청소년’은 24세 이하로 규정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돕는 교육 제공을 의무화
	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 제공 및 사회적응교육, 한국어교육 지원
	제7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상담, 부모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추진을 의무화
	제10조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게 차별없이 제공할 의무 - 학교생활에 신속한 적응,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 -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 언어발달을 위한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교육 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별지원 :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제18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의무화
	제30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여성가족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귀국학생 및	- 귀국학생, 재외국민 자녀, 외국인인 아동, 그 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75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아동·학생의 입학·전학·편입학 인정 및 절차 간소화
	제98조의2 (학력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재한외국인처우기 본법	제2조 (정의)	- 재한외국인을 합법 체류자로 정의 -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제10조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인권옹호 조치 노력 의무화
	제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생활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지원
	제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 대한 적응 지원
	제18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이해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 시정 등의 노력을 의무화

나.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본계획 분석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국내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이라 볼 수 있음.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중심 정책체계로 하고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연계 정책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책의 추진체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고 청소년 관련 활동 및 복지 기관/시설들을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까지는 취학 전 자녀 양육과 발달, 초등학생 자녀의 언어 및 이중언어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이 중심이었고,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은 무지개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사업들이 대표적이었으나, 2016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진체계로 하는 ‘다(多)재다능’ 프로그램이 사업으로 포함,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체성 회복, 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 교육부는 <다문화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공교육 진입을 교육권의 관점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다문화 정책학교를 지정하여 학습 지원, 진로교육뿐 아니라 비이주배경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다문화이해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도 이주배경청소년의 방과 후 생활과 학습 등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I 사업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직업훈련 및 취업을 지원하는 대표적 정책임.

<표 2-6>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추진체계 : 중앙-지자체, 민-관

구분	근거법령	정책체계	정책대상		관할 기관/기구	
			법주	명칭	중앙	지자체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법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	만0세 ~24세 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 기본법 (1991 제정)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만9세 ~ 24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다문화 청소년	-한국청소년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 활동진흥법 (2004 제정)					-청소년수련시설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복지 지원법 (2004 제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꿈드림' 중앙관리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14 제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지역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교육부	다문화교육 근거법령 제정 추진 진로교육법 (2015 제정)	다문화 교육 지원계획 (연도별)	초중등 과정 재학생 (만6세 ~18세 이하)	다문화 학생	-중앙다문화교육센터	-교육청 진로진학센터 -다문화 정책학교 (유치원, 초중고)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1961 제정)	아동정책 기본계획	만18세 미만	다문화 아동 청소년		-아동복지시설(양육 시설, 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어린이공원, 아동회관) -지역아동센터
고용노동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1997 제정)	취업성공 패키지 1유형	만18세 이상 (위기 청소년에 한해 만15세 이상)	결혼이민자의 자녀		-시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시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은 3-1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3-2의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3-3의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3-4의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 4-2의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의 5개 영역에서 이주배경청소년과 직접 관련된 정책을 명시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8).

- 이 중 3-1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역량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3-2에서 3-4까지의 3개 영역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며, 4-2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다루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음.
- 학령기 이전이나 저학년 대상의 언어교육, 유아를 둔 학부모의 부모교육, 레인보우스쿨과 같이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적응프로그램 등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그 외 학령기 청소년 대상 사업과 학부모교육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어 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 범위가 가장 넓고 다양하다고 볼 수 있음(양계민, 2017).

- 그동안 한국어 교육에 사업이 편중된 것으로 평가되었던 것과 달리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한국어 및 한국생활 적응 지원을 중도입국청소년에 집중시키고, 청소년기에 필요한 사회성 및 리더십 개발, 진로 코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함.
- 그러나 3-2의 역량강화 영역에서 대학생 멘토링과 방문교육을 통한 기초 학습지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중언어 가능 청소년, 혹은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엘리트 양성 위주의 역량강화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청소년기에 가장 큰 과제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이를 키우는 것이라 할 때 이주배경청소년 전체의 발달 과업에 부합하는 역량강화 사업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보완할만한 사업이 '다(多)재다능 프로그램'과 지역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 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추진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성, 유관기관들과의 원활한 연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기존의 인력과 네트워크만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하중만 증가하고 정책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다(多)재다능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심리상담지원, 진로코치 등의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들을 총망라해놓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적응을 담당하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는 청소년 관련 전문성을 별도로 구축할 것에 대한 계획과 비전이 구체적으로 갖추어져야 함.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해당 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운영인력을 기존 인력이나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직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수요자 발굴 및 상황의 경중 판단 후 외부 전문기관으로 모두 연계하는 시스템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음. 중심 기관이 사안에 대한 전문성 없이 모두 외부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이라면 굳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추진근거가 약함. 또한, 연계 기관들이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전문적 차원에서 다룰 준비가 되어있는지도 중요한 관건임. 그렇지 않을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되

지 않은 채 기존 청소년 사업들에 연계하는 것에 그칠 수 있음(양계민, 2017: 55-56).

- 3-3의 진로 지원 영역의 경우 그 중요성에 비해, 진로활동실 구축을 교육청에 '권장'하거나 선발시 다문화청년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계획 자체는 상당히 소극적임. 이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직접 사업이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사업 뿐이고 대부분 교육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사업을 취합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임.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직접 사업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타 부처 사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표 2-7〉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중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영역	과제명	대상	세부내용	부처
3-1.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3-1-1.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다재다능) 확산	다문화 가족 자녀	-다재다능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성 및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부모-자녀 관계향상, 사회성 발달, 진로코치 등)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으로 추진	여가부
	3-1-2. 청소년기 자녀 및 부모 상담 지원 강화	다문화 가족 부모, 상담교사	-부모상담 지원 -다문화학생 전문상담교사(학교 및 Wee센터 배치) 대상 다문화 이해연수 실시	여가부 교육부
	3-1-3. 외국어, 예체능 등 다양한 양질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 청소년	-청소년수련관, 지역사회 유관 기관 등에서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추진	여가부
	3-1-4. 자녀 발달주기별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다문화 가족 부모	-찾아가는 부모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위한 학교생활, 진로 진학 정보 영상 콘텐츠 개발보급	여가부 교육부
	3-1-5. CYS-Net을 통해 위기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위기 다문화청 소년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CYS-Net) 통한 위기다문화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여가부
3-2. 학업 및 글로벌	3-2-1. 이중언어인재 양성사업 내실화	이중언어 가능 다문화 학생	-이중언어 인재 DB 등록자수 확대 및 진로 정보 제공 자료집 제작 -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 이중언어 교재 보급 확대	여가부 교육부

영역	과제명	대상	세부내용	부처
역량 강화 지원	3-2-2.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다문화 가족 자녀	- 대학생 멘토링(지역아동센터와 멘토링 연계 추진) - 교과보조교재 개발 및 보급 - 접근성 취약한 다문화가족 대상 방문 교육서비스 강화	여가부 교육부
	3-2-3. 글로벌브릿지 사업 추진	우수 다문화 학생	- 다문화학생 잠재능력 개발,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4개 분야 특별 교육 프로그램	교육부
	3-2-4. 국제교류 프로그램(청소년 국가간 교류, 해외자원봉사단 등)참여 활성화	이중언어 가능 다문화 청소년	- 이중언어 능력 다문화청소년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KOIKA 드림봉사단 선발시 다문화청소년 가산점 부여	여가부 외교부
3-3.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3-3-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인식 고취 및 진로직업 체험기회 확대	다문화 학생, 중도입국 청소년	- 전국 17개 시도 220개 진로체험지원센터 중 거점 센터 지정, 다문화학생 중심 진로체험처 지속 발굴 -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무지개 job아라'(진로교육), '내-일을 job아라'(직업교육) 활성화	여가부 교육부
	3-3-2. 학교에 진로지도 및 상담 등을 위한 진로활동실 확충 유도	초중고 학교, 교육청	- 학교 내 진로활동실을 구축 하도록 교육청에 권장	교육부
	3-3-3.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 인턴 활성화	우수 다문화 청년	- 이중언어 능력과 특정분야 전문성 갖춘 청년층 대상으로 '다문화 무역인' 양성 - KOICA 영프로페셔널(청년인턴) 선발시 다문화청년 가산점 부여	KOTR A, 외교부
	3-3-4. 직업교육훈련 기관(다문화 청소년 특화 폴리텍 다문화고 등) 운영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다문화 청소년 특화 직업훈련 기관		고용노동부
3-4.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	3-4-1.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 수준 제고	중도입국 자녀	- '한국어 교육과정(KSL)' 개정에 따른 교재개발과 교원연수 실시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사업 내 한국어 능력시험(TOPIK) 대비반 포함 운영	여가부 교육부
	3-4-2. 중도입국자녀의 조기적응을 돕는 레인보우스쿨 확대, 운영방식 다양화	중도입국 자녀	-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야간 및 주말과정 운영 등 참여기회 확대 - 레인보우스쿨 과정을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연계여부 검토	여가부 법무부

영역	과제명	대상	세부내용	부처
	3-4-3. 중도입국자녀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중도입국 자녀	- 중도입국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적 상담 및 사례관리 - 대인관계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 그램 및 통합캠프 운영	여가부
	3-4-4.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지원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중도입국 자녀	- 학력증빙이 어려운 중도입국청소년의 편입 학 지원 및 학력심의위원회 활성화	교육부
	3-4-5. 학교생활 조기적응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 확대 및 내실화	중도입국 자녀	- 특별학급(한국어(KSL) 교육과정 운 영 학급)을 다수 운영하는 예비학교 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예비 학교’ 운영, 사후 학교적응 모니터링 실시	교육부
	3-4-6. 다문화청소년 취업사관학교 운영 및 훈련과정 확대	중도입국 자녀	- 내일이룸학교 9개소 운영 중*(17년 기준)	여가부
4-2. 다문화 이해교 육 활성화	4-2-3. 교원의 다문화 역량 제고 및 학교현장의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	교사	- 예비교원의 다문화 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교직과목에 반영하도 록 권고 - 다문화 중점학교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일 반학교에 적용 가능한 다문화교육 모델 개 발 및 공유 - 교원연수, 교사연구회 지원 등을 통해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다문화 교육 관련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교육부

출처: 여성가족부. 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기본계획임.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될 제6차 기본계획은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을 통해 ‘청소년 주도의 지원작협업적 청소년정책으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하고 있음. 4개 영역 12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이주배경청소년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1-3의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과 3-2의 ‘대상별 맞춤형 지원’임(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8).
 - 1-3의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은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와 북한이탈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과의 교류 촉진 과제로 이루어져 있음. 두 번째 영역인 3-2의 대상별 맞춤형 지원은 이주배경청소년과 북한이탈청소년 지원에 초점을 둔 계획들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은 대부분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의 청소년 지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은 이주배경청소년보다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원 전체가 대상이며 이주배경청소년은 그 속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써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주제적 시각에서 추진되는데 한계가 있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은 선별적 접근보다 ‘청소년’이라는 통합적 접근으로 가되 ‘이주배경’이 차별적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이주배경청소년정책에 대한 중심과 선도적 시각과 정책을 제안하는 위상을 가질 필요가 있음(양계민, 2017: 36).
- 그러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의 내용과 동일하며, 1-3의 세부과제 중 다문화이해 프로그램 보급을 청소년 전반에 실시하기보다 학교 교육에 국한하고 있는 등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선별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청소년이 함께하는 교류체험 프로그램 개발도 그 중요성에 비해 계획의 구체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다문화가족 프

로그램 운영 횟수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등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일선 기관에서의 자율적 프로그램 운영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표 2-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영역	과제명	대상	세부내용	부처
1-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1-3-1-2.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이해 및 수용성 제고	모든 청소년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보급 및 다문화중점 학교 확대 -다양한 청소년이 함께하는 교류체험 프로그램 개발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 일반 청소년과의 교류 촉진	교육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3-2. 대상별 맞춤형 지원	3-2-4.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중점 학교 확대 -교원 대상 다문화역량강화 연수 확대 -학령기 다문화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다재다능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한국어 학습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방문 한국어 교육 서비스 -중도입국 등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 등 초기 사회 적응 지원 -중도입국 등 이주배경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직접체험 및 진로훈련 지원(무지개 잡아라) -중도입국청소년의 훈련기간 중 체류를 보장하는 비자 발급 등 제도개선 검토 -북한이탈학생을 위한 정규학교 전담교육사 배치 및 하나원 교사 파견 -초중고 및 대학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멘토링 지원 -북한이탈청소년 초기 사회 적응 프로그램 지원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통일부

3)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계획

- 교육부는 다문화시대 인재 양성과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목표로 매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2018년 지원계획은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교육 참여확대’,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 ‘중도입국외국인학생 교육 사각지대 해소’, ‘다문화교육 추진 체계 확립’을 정책과제로 하고 있음(교육부, 2018).
- 이주배경청소년을 하나의 집단으로 대상화하지 않고 국내출생과 해외출생

을 구분하고 해외출생 중에서 중도입국청소년과 이주노동자 자녀를 구분하여 유형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청소년 발달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획된 점 등이 여타 이주배경청소년정책보다 진일보한 점이라 볼 수 있음.

○ 첫 번째 정책영역인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교육 참여 확대’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다문화중점학교 사업으로 ‘친다문화적 학교환경조성’을 목표로 다문화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다문화교육주간 운영 등 일상에서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반차별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하고 있음. 다문화중점학교는 2006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18년에 313교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또한, 다문화중점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다수 학교의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해 연간 2시간 이상의 다문화교육 관련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실시를 교육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다수자 대상 다문화이해 교육의 발전에 대한 비전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이중언어교육 지원 사업으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부모나라의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해 있음. 그러나 부모 국적이 다양한 학생들이 한 학교에 존재하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한 명의 강사가 파견되어 한 가지 언어를 가르치는 실정이기 때문에 당초 취지와 달리 파견강사의 언어를 기초적인 제2외국어 수준으로 배우는 것에 가까움. 학교의 이중언어교육은 가정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조성되고 이를 독려하는 형태의 간접 교육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고, 따라서 학부모교육과의 연계 및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등의 시도가 필요함(양계민, 2017: 48).
- 세 번째는 교원의 다문화 역량 강화 사업으로, 교육부는 예비교원 단계부터 다문화교육을 받도록 교원연수를 체계화하고 있음. 그러나 교직실무라는 하나의 과목에 다문화교육을 포함함으로써 다문화이해교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현직 교원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강화는 예비교사 역량강화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동안 교원 연수는 교원 대상의 다문화이해교육 내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강의 내용이 강사의 재량에 맡겨져 왔기 때문에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활동경험이 풍부한 교원들로 구성된 ‘다문화교육지원단’이 연수 및 현장 지원, 다문

화교육 자료개발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두 번째 영역인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 지원' 사업은 주로 '다문화멘토링' 사업이 핵심임. 이 사업은 교육부의 직접 주관보다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90여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고, 참여 다문화학생 수도 5,000여명 이상으로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그러나 다문화학생 수에 비해 참여 학생이 5% 수준에 불과하여 매우 부족한 수준이며, 대학이 없는 농산어촌 지역 다문화학생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사업임. 기초학력 지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다문화멘토링 확대 및 다른 정책 수단의 강구가 필요함.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의 인재육성 사업은 글로벌브릿지 사업과 정서·심리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글로벌브릿지 사업은 잠재능력이 있는 영재를 선발하여 대학에서 영재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강점을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둔 사업임. 2010년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전국 20개 대학에서 수학과학, 글로벌리더십, 언어, 예체능 등 4개 영역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진로와의 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한편 정서·심리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사업은 기존의 이주배경청소년 별도의 심리상담, 진로 및 직업교육 수강 및 실습이라는 형태가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일반적인 학생상담에 다문화 상담의 요소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되며, 진로탐색 지원도 이주배경청소년에 적합한 진로교육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음.

○ 세 번째 영역인 '중도입국외국인학생 교육사각지대 해소'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 거주사실 증명만으로 입학이 가능하도록 공교육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에서 나아가 법무부가 보유한 신규 입국 중도입국자녀 개인정보를 연계하여 학교 편입학을 독려하여 중도입국자녀의 교육기회 보장을 더 강화하였음. 입학 후에는 다문화예비학교에서 정규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

화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고 있음. 다문화예비학교는 일반학교 안에 상시적으로 한국어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전담교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 190여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음. 또한, 예비학급이 지정, 운영 되지 않는 학교에 2016년부터 ‘찾아가는 예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함.

〈표 2-9〉 교육부 2018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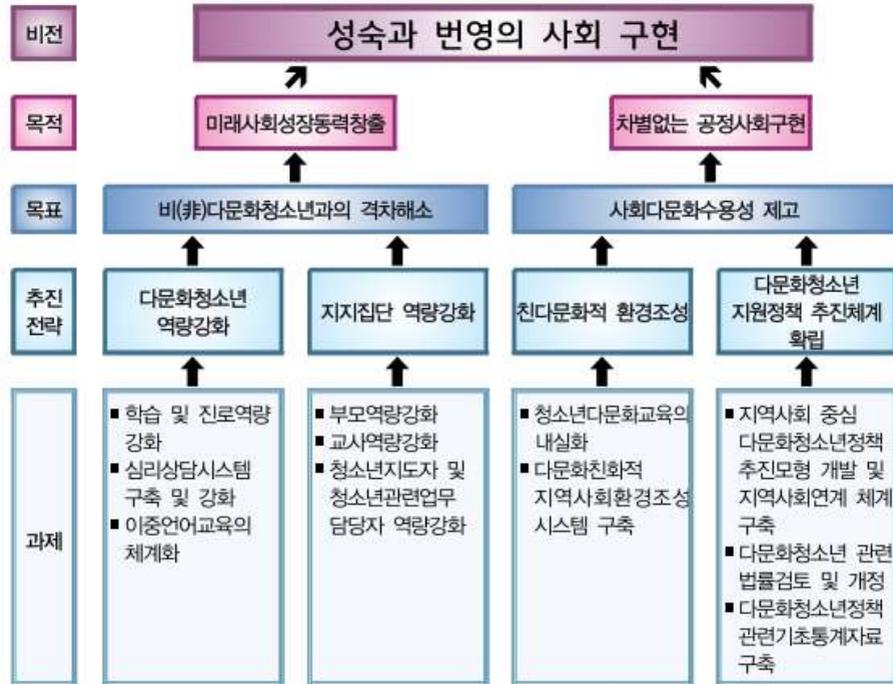
영역	과제명	대상	세부내용
1.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교육 참여 확대	1-1. 교과수업에 다문화교육 반영	학교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교육 관련 교과/비교과활동 실시 권고 -다문화중점학교(313교), 연구학교(10교) 지정 운영
	1-2.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	학생	-이중언어, 외국어교육 강화하여 글로벌 역량개발 지원 -다문화 진로탐색을 위한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 운영(80교)
	1-3.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교원	-다문화교육지원단 및 다문화교육 교사연구회(34개) 운영 -교원 대상별로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연수 실시
2.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	2-1. 출발선의 평등을 위한 발달지원	유아	-다문화유아를 위한 맞춤형 교육체계 마련 : 다문화 유치원 지정, 운영(18년 122개)
	2-2.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	아동	-입학부터 수업까지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 징검다리학교(초등예비) 시범실시, 교과 보조교재 개발 -대학생 멘토링으로 다문화학생의 기초학습 지원(5,000여명) : 기초학습 지원, 취약계층 우선 매칭, 소외지역 멘토 인센티브, 지역아동센터 연계, 모국어 멘토링
	2-3. 우리사회 인재로 성장지원	청소년	-글로벌브릿지(20개 사업단)를 통해 우수 다문화학생 발굴 및 교육 -다문화학생 특성에 맞춘 정서심리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 상담(교)사 및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다문화 역량 강화, 찾아가는 상담, 진로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운영(15교)
3.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 교육 사각지대 해소	3-1. 공교육 진입 지원		-중도입국자녀 취학안내 및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법무부 개인정보 연계하여 편입학 안내
	3-2. 맞춤형 한국어 교육 제공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	-예비학교에서 공교육을 통한 한국어교육 실시 : 상시적 한국어학급 운영하는 ‘예비학교’ 지정운영(18년 190학급), 비지정학교에 대한 찾아가는 예비학교(900여명)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지원 : 교재개발, 예비학교 운영 교원 등 한국어 교육 담당교원의 직무연수
	3-3. 이주민 밀집지역 지원		-이주민 밀집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운영 지원 : 교육국 제화 특구 지정, 교육과정 특성화, 유치원 예비학교 지정운영

영역	과제명	대상	세부내용
4.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확립	4-1. 중앙-지역 현황정비 및 범 부처 협력		-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강화 - 중앙의 다문화교육 지원기능 강화
	4-2. 다문화교육 근거법령 제정 추진		-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다. 이주배경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 이주배경청소년의 삶과 발달 실태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이주배경청소년 내부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정책의 목표와 지원방안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임. 국내출생 이주배경청소년과 외국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처지와 욕구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추진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낙인 효과가 강화되는 역효과가 초래되기도 하였음. 따라서 국내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 정책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외국출생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한국어교육 등 한국 사회적응 지원을 제공하는 등 유형별로 정책사업이 구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둘째, 다문화가족정책 안에서 부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정책으로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족생활과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목표가 이주배경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목표 전부가 되기는 부족하기 때문임. 그러나 청소년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이주배경’ 특화 정책을 폐기하고 기존의 청소년 정책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청소년’이라는 특성을 중심에 두되, ‘이주배경’이 차별의 근거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체계가 필요함을 의미함. 따라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청소년지원정책’, ‘다문화교육지원정책’ 등으로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는 정책들이 ‘이주배경청소년정책’이라는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별도의 정책체계로 재편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추진할 별도의 추진체계, 예컨대 여성가족부 내 (가칭)이주배경청소년과’를 구성하는 등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셋째,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이는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이 당사자들의 현실과 이해, 욕구에 기반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임. 거주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규모, 연령 분포, 지역의 정책 역량, 복지 및 교육 자원 등 지역의 조건이 상이함에도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동시에 이주배경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지역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문화정책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 연구 결과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중단연구 시리즈에서 제출된 정책과제들을 종합하여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양계민, 2017)를 제안한 바 있음. 이 종합계획은 다년간에 걸친 이주배경청소년의 발달 실태와 정책 평가 및 욕구에 기반하여 제안된 정책과제로,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으로 평가할만함.
- 종합계획이 지향하는 비전은 ‘성숙과 번영의 사회구현’이고, 이를 위한 정책 목적은 ‘미래사회 성장동력 창출’과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 2가지임. 정책 목적 각각은 ‘비다문화청소년과의 격차 해소’, ‘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가짐.
- ‘비다문화청소년과의 격차 해소’는 ‘다문화청소년 역량강화’, ‘지지집단 역량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하며, ‘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는 ‘친다문화적 환경 조성’,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추진전략으로 함.



출처 : 양계민, 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V: 정책제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103.
 <그림 2-1>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 종합계획(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종합계획은 새로운 정책 제안보다 기존 정책을 내실화하는데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정책 적용이 용이하고 쉽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한국 사회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일정수준에 도달해있기 때문에 이를 내실화하는 것만으로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이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장

전라북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수요 및 현황 분석

Jeonbuk Institute

-
1. 전북 다문화가족 특성과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2. 이주배경청소년의 서비스 만족도 및 욕구 분석
 3. 전북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현황 분석
 4. 소결

제 3 장 전라북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수요 및 현황 분석

1. 전북 다문화가족 특성과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가. 전북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특성

- 전북의 외국인주민 수는 2011년 31,515명에서 2017년 49,840명으로 58.1% 증가하였고, 동기간 전국의 외국인주민 증가율 47.1%보다 증가율이 더 높음. 그러나 전북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2.7%로 같은 시점 전국의 3.6%보다 낮음.
- 전북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수는 2011년 8,523명에서 2017년 10,900명으로 27.9% 증가하였고, 동기간 전국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30.6% 증가하였음. 그러나 외국인주민에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전북 모두 해마다 감소하여 2017년 전북이 21.9%, 전국이 17.7%로 나타남.

〈표 3-1〉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 외국인주민수, 결혼이민자귀화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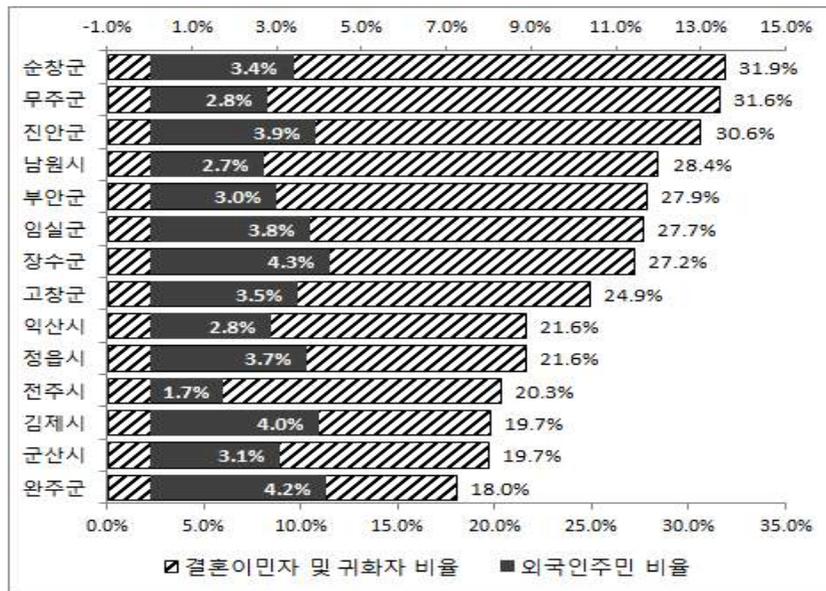
	2011		2013		2015		2017	
	외국인 주민	결혼이민자, 귀화자						
전국	1,265,006	252,764	1,445,631	281,295	1,741,919	305,446	1,861,084	330,188
	2.5%	20.0%	2.8%	19.5%	3.4%	17.5%	3.6%	17.7%
전라북도	31,515	8,523	37,788	9,626	43,141	10,291	49,840	10,900
	1.7%	27.0%	2.0%	25.5%	2.3%	23.9%	2.7%	21.9%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각년도.

주 : '외국인주민' 비율은 주민등록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의 비율이며,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비율은 외국인주민 중에서의 비율을 산출한 것임.

- 시도별 외국인주민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강원도 22.5%, 전북 21.9%, 인천 21.7%, 대전과 전남이 21.5%, 대구 20.7% 순이며, 충남이 14.9%로 가장 낮고, 그 외 시도는 16.1~19.2%임. 즉 전북의 경우 상대적으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음.

○ 전라북도에서 외국인주민의 비율이 4% 이상으로 높은 지역은 장수군, 완주군, 김제시이고 진안군, 임실군, 정읍시도 3.7~3.9%로 높음 편임. 전주시의 외국인주민 비율이 1.7%로 가장 낮음. 반면 외국인주민 중에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비율이 30% 이상 높은 지역은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이고, 남원시, 부안군, 임실군, 장수군도 27% 이상으로 높은 편임. 김제시, 군산시, 완주군은 20% 이하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비율이 낮은 지역임.



자료 : 행정안전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 현황(2018.11.1. 공개)

〈그림 3-1〉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결혼이민자귀화자 비율

- 장수군, 진안군, 임실군은 타시군에 비해 외국인주민의 비율도 높고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비율도 높은 지역이며, 순창군, 부안군, 무주군, 남원시는 외국인주민의 비율은 낮은 편이나 그 중에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비율이 높은 지역임. 이들 7개 시군 지역은 지역 거주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임.

- 반면, 완주군, 김제시, 정읍시는 외국인주민 비율은 높으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국적 동포 등 결혼 이민 이외의 이주 유형 비율이 높은 지역이고,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는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의 비율, 외국인주민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비율이 모두 낮음.

○ 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 분포는 이중언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지표 중 하나임. 전북의 경우 베트남이 38.0%로 가장 높고 다음이 중국 20.1%로 이 두 개 국가가 결혼이민자 출신국을 대표하고 있음. 그 외 국가의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은 편임. 반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중국, 한국계 중국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고 상대적으로 베트남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음.

〈표 3-2〉 전국 시도별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기타
전국	19.9	21.2	24.6	7.0	6.5	2.6	1.9	1.3	1.3	13.5
서울	18.9	34.0	10.2	7.3	3.3	1.0	1.2	0.9	1.3	21.9
부산	20.1	8.3	32.6	7.4	7.2	2.7	1.3	1.1	0.6	18.5
대구	19.6	7.4	37.3	5.2	8.4	4.5	1.4	1.8	0.7	13.8
인천	25.5	23.8	19.6	5.3	5.3	1.2	1.9	1.5	1.6	14.2
광주	22.1	7.9	34.7	7.8	8.3	5.0	2.2	1.8	1.3	9.0
대전	22.2	8.5	29.5	6.3	10.5	3.9	1.7	1.6	1.0	14.7
울산	21.2	17.2	32.7	4.5	8.6	3.0	1.7	1.7	1.3	8.2
세종	18.7	11.4	26.6	7.1	8.7	4.3	2.2	1.0	1.0	19.0
경기	22.3	28.8	17.7	6.3	5.1	1.6	2.3	1.3	1.6	13.0
강원	13.7	10.8	31.9	12.6	10.6	4.8	2.5	1.6	1.2	10.2
충북	17.7	14.6	32.0	7.2	9.9	3.3	2.4	1.5	2.7	8.7
충남	18.2	16.8	32.6	7.1	9.5	3.8	2.3	1.6	1.2	6.9
전북	20.1	7.8	38.0	9.7	8.4	5.2	1.7	1.3	1.1	6.8
전남	14.5	6.7	41.6	10.6	11.4	6.0	2.4	0.7	1.3	4.9
경북	14.5	8.5	43.9	5.5	9.7	5.1	2.3	1.3	1.0	8.1
경남	16.9	8.4	41.3	7.6	7.5	4.3	2.0	1.7	1.1	9.2
제주	18.1	10.6	30.3	6.3	12.2	3.0	0.6	1.3	1.0	16.6

자료 : 행정안전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 현황(2018.11.1. 공개)

- 전북의 14개 시군 모두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31.0%(군산시) ~ 48.9%(진안군)로 압도적으로 높음. 그 다음으로 전주, 군산, 익산시 및 완주군 등 전주 인근의 지역은 중국이, 그 외 지역은 일본이나 필리핀 비율이 2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진안과 순창군의 경우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각각 21.1%, 30.2%로 높고, 김제시는 필리핀이 19.6%로 타 시군에서 10% 이하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임실군은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13.1%로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높고, 인근지역인 순창군, 장수군도 7% 이상으로 타 시군보다 높음.
- 14개 시군 모두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고,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부안 지역은 중국이,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고창군은 일본이, 김제시와 무주군은 필리핀이, 임실은 중국과 캄보디아가 2~3위 순위인 것으로 나타남. 그 외 지역은 베트남과 중국으로 출신국이 이원화되어 있음.

〈표 3-3〉 전북 시군별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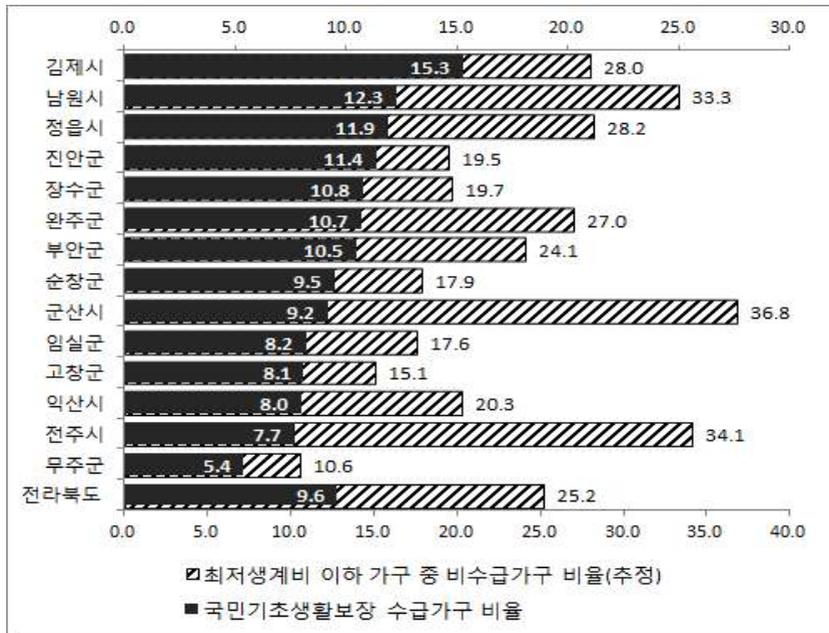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기타
전주시	22.6	7.8	34.8	10.3	6.7	4.9	0.9	1.1	1.6	9.5
군산시	31.3	11.6	31.0	3.2	7.5	3.6	1.1	2.3	1.1	7.6
익산시	22.0	9.6	34.2	8.8	9.2	5.1	1.7	1.0	**	8.4
정읍시	16.4	6.1	43.9	8.8	8.3	6.8	1.8	**	**	7.9
남원시	13.7	7.0	43.3	14.0	7.0	4.9	2.3	**	2.6	5.2
김제시	12.0	5.6	40.5	7.6	19.6	6.5	1.5	**	**	6.7
완주군	17.7	6.8	48.1	6.0	6.8	4.9	1.6	1.4	1.4	5.4
진안군	12.8	4.5	48.9	21.1	5.3	**	**	**	**	7.5
무주군	8.3	6.5	40.7	13.9	13.9	**	4.6	**	**	12.0
장수군	14.3	4.5	42.9	17.9	7.1	7.1	**	**	**	6.3
임실군	15.6	4.1	46.7	7.4	7.4	13.1	**	**	**	5.7
순창군	9.4	**	40.3	30.2	4.0	7.4	**	**	**	8.7
고창군	9.9	4.8	45.1	14.3	8.8	6.2	3.7	1.8	1.8	3.7
부안군	19.0	7.2	36.2	10.9	9.5	5.9	3.2	**	**	8.1

자료 : 행정안전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 현황(2018.11.1. 공개)

주 : **표시는 5명 미만인 경우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통계수치를 제공하지 않음.

○ 설동훈과 공동연구진들이 수행한 <2015년 전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수급가구 비율은 9.6%(설동훈 외, 2015: 57) 우리나라 전체 수급가구 비율 4.4%,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상의 수급가구 비율 5.1%보다도 높음. 설동훈과 연구진들의 추정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 다문화가구 중 비수급가구의 비율은 25.2%에 달함.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진안군, 장수군, 완주군, 부안군은 수급가구 비율이 10% 이상으로 높은 지역이며, 수급가구 비율이 낮은 지역은 무주군 5.4%, 전주시 7.7% 등임.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비수급 가구의 비율은 군산, 전주, 남원시가 30% 이상으로 높고,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도 27% 이상으로 높음. 대체로 시 지역과 전주에 인접한 완주군이 실제 가구소득 수준과 제도적 수혜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설동훈 외, 2015: 57).



자료 : 설동훈 외, 2015.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p58
 <그림 3-2> 전북 시군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

나. 전북 이주배경청소년 인구 규모

- 전라북도 전체 학령인구(만6세~19세)는 2018년 25만4천여 명에서 2028년 20만8천여 명으로 향후 10년간 4만6천여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감소율은 18.1%로 동기간 전국의 학령인구 감소율 13.3%보다 높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반면, 전라북도에서 초중고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매년 500~600여명 증가하여 2018년 4월 현재 6,718명, 전체학생 대비 3.2%로 전국 1.9%보다 약 1.5배 높음. 또한,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도입국·외국인 자녀가 2016년 276명에서 2018년 333명으로 증가, 청소년기 학생(중고생)도 2016년 1,553명에서 2018년 1,743명으로 증가함 (교육부, 교육통계).

〈표 3-4〉 행정안전부 집계 전라북도 외국인주민자녀수 연도별 현황

	2013	2014	2015	2016	2016	
					국내출생	귀화,외국 국적 자녀
만0-6세(미취학)	6,244	6,163	6,269	5,706	5,644	62
만7-12세(초등학교)	2,255	2,473	2,774	2,609	2,509	100
만7-8세(초등 저학년)	836	984	1,287	957	918	39
만9-12세(초등 고학년)	1,419	1,489	1,487	1,652	1,591	61
만13-15세(중학생)	941	986	1,008	838	795	43
만16-18세(고등학생)	549	694	769	598	539	59
전체	9,989	10,036	10,820	9,751	9,487	264
이주배경청소년 (만9~18세)	2,909	3,169	3,264	3,088	2,925	163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각년도.

주: 2015년까지 외국인주민자녀의 범주는 외국인 부모 자녀, 한국인-외국인 부모 자녀, 한국인 부모 자녀로 구분되었으나, 2016년 통계부터 국내출생 자녀,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중도입국 자녀)로 범주 구분이 바뀜.

〈표 3-5〉 교육부 집계 전라북도 다문화학생수 연도별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주민
초등학교	4,007(4.1)	4,437(4.6)	4,975(5.1)	4,759(95.7)	100(2.0)	116(2.3)
중학교	897(1.8)	927(1.7)	996(1.7)	924(92.8)	42(4.2)	30(3.0)
고등학교	656(1.1)	692(1.0)	747(1.5)	702(94.0)	28(3.7)	17(2.3)
계	5,560(2.6)	6,056(2.8)	6,718(3.2)	6,385(95.0)	170(2.5)	163(2.4)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주: 연도별 총계의 ()는 전체 학생 대비 이주배경 청소년의 비율이며, 이주배경 유형별 ()는 2018년 다문화학생 중 구성비율임

- 전라북도 전체 청소년 인구 중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율은 1.5%임. 시군별로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임실군으로 4.5~5.8%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군 지역 대부분이 3.1~3.6% 수준으로 시 지역보다 높음. 이주배경청소년 비율이 낮은 지역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로 1.4% 이하임.
- 한편,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현황 자료에는 다문화학생의 유형별 통계가 제시되어 있음. 2016년에 전북의 다문화학생 중 95%는 국내 출생자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는 외국출생 학생들의 비율이 8.3%, 10.3%, 11.3%로 타 시군의 2배 이상 높고, 순창군, 진안군, 고창군은 0.4%, 1.4%, 1.1%로 외국출생 학생들의 비율이 극히 낮음. 장수군은 외국출생 학생이 없음.
- 설동훈과 공동연구자들이 실시한 〈2015년 전북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도입국자녀 중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는 38.5%에 달함.
 - 비재학 중도입국자녀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임실군, 고창군, 김제시, 부안군으로 중도입국자녀의 50% 이상이 조사 시점까지 한 번도 한국 학교에 편입학한 바 없으며, 무주군, 완주군, 장수군, 군산시, 익산시는 비재학 중도입국자녀의 비율이 20% ~ 26.7%로 타시군에 비해 낮은 편임.

〈표 3-6〉 전북 시군별 이주배경청소년 규모

	만9세 이상 청소년 중 외국인주민 자녀 ¹⁾		다문화학생 ²⁾ 중에서		중도입국자녀 중 학교 비재학 비율 ³⁾
			국내출생자	외국출생자	
전라북도	3,088	1.5	95.0	5.0	38.5
전주시	575	0.7	91.7	8.3	37.0
군산시	367	1.2	89.7	10.3	26.7
익산시	507	1.4	89.0	11.0	26.7
정읍시	267	2.4	96.0	4.0	38.9
남원시	200	2.5	97.1	2.9	44.4
김제시	187	2.8	96.6	3.4	58.8
완주군	228	2.2	95.8	4.2	25.0
진안군	95	5.8	98.6	1.4	40.0
무주군	63	3.6	96.3	3.7	20.0
장수군	107	5.8	100.0	0.0	25.0
임실군	82	4.5	96.9	3.1	50.0
순창군	109	5.0	99.6	0.4	33.3
고창군	170	3.1	98.9	1.1	50.0
부안군	131	3.1	97.7	2.3	60.0

자료 1) 행정안전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 현황(2017.11.1. 공개)
 2) 교육부, 2016년 교육통계연보
 3) 설동훈 외, 2015, 전북형 다문화가족 발전방안 연구.

2. 이주배경청소년의 서비스 만족도 및 욕구 분석

- 본 연구를 위해 전북지역 이주배경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정리함. 각 시군별 이주배경청소년의 연령별 비율을 고려하여 표집을 하였고, 조사는 14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로 2018년 11월 26일~12월 20일까지 실시함. 수거된 총 300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하고 296부를 최종분석자료로 활용하였음.

가. 응답자 기본특성

- 응답자의 성비는 반반이고, 대부분 어머니가 외국출신인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임. 연령별로는 초등고학년이 44%, 중고등학생이 각각 29.0%, 27.0%이고 외국출생청소년이 11.5%로 전북 평균보다 높게 표집되었음. 한편, 대부분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나 비재학 청소년은 과소표집된 아쉬움이 있음.
- 81.8%의 응답자들이 자신의 계층을 ‘중간층’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다문화가족의 객관적 가구소득 수준이 비다문화가족 가구소득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과 비교하면 실질 소득수준에 비해 청소년들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더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한편, ‘하층’이라 응답한 경우는 10.7%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9.6%(설동훈 외, 2015)와 별 차이가 없음.

〈표 3-7〉 전라북도 이주배경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특성

항목	명	%	항목	명	%	항목	명	%			
성별	남자	140	47.3	출생 국가	국내	261	88.5	재학 상태	재학중	293	99.0
	여자	156	52.7		외국	34	11.5		비재학중	3	1.0
	계	296	100.0		계	295	100.0		계	296	100.0
학령 급	초등	129	44.0	외국 출신 부모님	아버지	3	1.0	주관적 계층의 식	상	22	7.6
	중등	85	29.0		어머니	288	98.0		중	238	81.8
	고등	79	27.0		모두	3	1.0		하	31	10.7
계	293	100.0	계	294	100.0	계	291	100.0			

나.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

- [이중언어] 응답자의 60.1%가 한국어 외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중언어가능자 비율이 높고, 시지역 청소년이 군지역 청소년에 비해 이중언어가능자 비율이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외국출생 청소년의 대부분은 이중언어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음.
 - 학령과 계층의식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 다만 계층의식이 하층인 경우 절반 이상이 이중언어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여 중간층 및 상층에 비해 이중언어 가능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음.

〈표 3-8〉 이중언어 가능 여부

(단위 : %)

	전체	성별		지역		유형	
		남	여	시지역	군지역	국내출생	외국출생
가능	60.1	53.2	66.7	71.8	46.2	56.2	91.2
불가능	39.5	46.8	33.3	28.2	53.8	43.8	8.8
X^2		5.539*		19.922***		15.394***	
		학령급			계층의식		
		초등	중등	고등	상층	중간층	하층
가능	64.1	54.1	59.5	63.6	61.2	48.4	
불가능	35.9	45.9	40.5	36.4	38.8	51.6	
X^2		2.112			2.001		

주 : *** P<0.001, **P<0.01, *P<0.05

- 한국어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영어가 56.9%가 가장 높고, 중국어 29.8%, 베트남어 23.9%, 일본어 15.4% 순으로 나타남. 전북의 결혼이민자 중 40% 이상이 베트남 출신이고 지역에 따라 중국, 필리핀, 일본이 그 다음임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사용가능 외국어가 가족의 이중언어 환경에 맞춰져 있기보다는 학교의 외국어교육에 좌우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영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따갈로그어 (필리핀어)	태국어	일본어	기타
56.9%	29.8%	3.2%	23.9%	1.1%	11.2%	1.6%	15.4%	2.1%

○ [학교 성적]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습성취 수준은 ‘잘한다(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응답이 63.1%로 높음.

- 성별로는 여학생이, 학령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계층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자신의 학교 성적 수준에 대해 잘하는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지역과 이주배경청소년 유형별 차이는 없었음.

〈표 3-9〉 학교 성적에 대한 인식

(단위 : %)

	전체	성별		지역		유형	
		남	여	시지역	군지역	국내출생	외국출생
못함	36.9	43.8	30.8	32.9	41.7	36.0	45.2
잘함	63.1	56.2	69.2	67.1	58.3	64.0	54.8
χ^2		5.318*		2.385		0.994	
		학령			계층의식		
		초등	중등	고등	상층	중간층	하층
못함	23.3	45.9	50.0	18.2	36.6	54.8	
잘함	76.7	54.1	50.0	81.8	63.4	45.2	
χ^2		18.862***			7.575*		

주 : *** P<0.001, **P<0.01, *P<0.05

○ [학업 수행에서 어려운 점] 이주배경청소년들의 38.2%는 학업수행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 청소년들 중에서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이 1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숙제나 과제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이 11.3%로 높게 나타남.

- 하위집단별로는 이주배경청소년 유형과 학령급별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임. 국내출생 청소년은 평균적 응답경향과 유사하지만 외국출생 청소년은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22.6%로 국내출생자의 2배 가까이 높고, ‘선생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19.4%로 매우 높아 주로 교실 안에서의 학업 수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 학령급별로는 초등학생은 절반 가까이가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중학생이 어려움을 느낀다는 비율이 가장 높음. 어려움의 내용으로는 중학생은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23.5%가 가장 높고, 고등학생

은 '책의 내용 이해 어려움'과 '공부할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13.2%, 14.5%로 유사하게 나타남.

〈표 3-10〉 학업 수행에서 어려운 점

(단위 : %)

		공부에 대해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움	선생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움	공부시간에 나의 의견을 말하기 어려움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과제수행 의 어려움	어려움 없음	기타
	전체	9.2	7.8	8.5	8.5	13.7	11.3	38.2	2.0
성별	남자	8.8	7.3	10.9	8.8	11.7	10.9	39.4	1.5
	여자	9.6	8.3	6.4	8.3	15.4	11.5	37.2	2.6
지역	시	8.1	8.7	10.6	7.5	13.7	9.9	38.5	1.9
	군	10.6	6.8	6.1	9.8	13.6	12.9	37.9	2.3
유형	국내 출생	9.6	8.0	7.3	9.6	12.6	11.5	39.5	1.5
	외국 출생	6.5	6.5	19.4	-	22.6	9.7	25.8	6.5
학령 급	초등	6.2	7.8	5.4	7.8	7.8	16.3	46.5	1.6
	중등	7.1	11.8	12.9	8.2	23.5	8.2	25.9	2.4
	고등	14.5	3.9	9.2	10.5	13.2	6.6	38.2	2.6
계층 의식	상	4.5	9.1	4.5	4.5	9.1	9.1	54.5	4.5
	중	11.1	8.9	8.1	9.4	13.6	11.5	35.3	1.7
	하	0.0	0.0	16.1	6.5	16.1	9.7	45.2	3.2

주 : 유형*학업수행 어려움 $X^2=23.301(P<0.01)$, 학령*학업수행 어려움 $X^2=35.438(P<0.01)$

- [학교 내 관계]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두 관계 모두 평균 점수가 '매우 잘함'의 4점에 가까워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위집단별 차이는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거주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군 지역 청소년들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 외 집단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표 3-11〉 학교 내 관계에 대한 평가

		교우관계			교사관계		
		N	M	t / F	N	M	t / F
전체		289	3.20	-	290	3.12	-
성별	남자	136	3.16	-1.06	137	3.07	-1.26
	여자	153	3.23		153	3.16	
지역	시부	159	3.24	1.349	158	3.22	2.807**
	군부	132	3.16		132	3.00	
유형	국내출생	259	3.23	2.236	259	3.13	1.449
	외국출생	31	3.00		30	2.95	
학령급	초등	126	3.14	2.01	126	3.16	.93
	중등	84	3.29		85	3.14	
	고등	76	3.22		76	3.03	
계층의식	상	22	3.33	2.20	22	3.11	.12
	중	231	3.20		232	3.11	
	하	31	3.03		31	3.05	

- 주 1. 「교우관계」: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준다. 매우못함(1)~매우잘함(4).
 2. 「교사관계」: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매우못함(1)~매우잘함(4).

○ [학교폭력]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유형별 학교폭력 경험에 대해 한 가지라도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5.3%로 이주배경청소년의 1/4은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집단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

〈표 3-12〉 학교폭력 경험 여부

(단위 : %)

	전체	성별		지역		유형	
		남	여	시지역	군지역	국내출생	외국출생
없다	74.7	70.1	78.8	72.0	78.0	75.5	67.7
있다	25.3	29.9	21.2	28.0	22.0	24.5	32.3
χ^2		2.974		1.374		0.877	
		학령			계층의식		
		초등	중등	고등	상층	중간층	하층
없다	69.8	77.6	80.3	72.7	74.9	74.2	
있다	30.2	22.4	19.7	27.3	25.1	25.8	
χ^2		3.304			0.054		

- 폭력유형별로는 '말로 하는 헐박/욕설'이 21.1%로 가장 높고,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욕설과 비방이 7.2%로 나타남. 그 외 직접적인 물리적, 신체적 폭력들은 5% 미만으로 나타남.

〈표 3-13〉 학교폭력 유형별 경험

(단위 : %)

	한번도 없다	1년간 10번미만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거의매일
1. 말로 하는 헐박/욕설	79.9	12.6	4.1	1.7	1.7
2. 집단따돌림	95.6	2.7	1.0	0.0	0.7
3. 강제로 심부름	95.6	3.1	1.0	0.0	0.3
4. 돈 빼앗김	96.9	2.4	0.0	0.7	0.0
5. 구타 혹은 감금	96.9	1.7	0.7	0.7	0.0
6. 성추행	98.3	0.3	1.4	0.0	0.0
7. (SNS)욕설과 비방	92.8	3.8	2.0	1.0	0.3

○ [사교육 경험] 지난 1년 동안 학원, 과외, 학습지 등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3.1%(155명)가 사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하위집단별로는 외국출생 청소년의 사교육 경험자 비율이 국내출생 청소년 보다 월등히 낮고, 학령이 높아질수록 사교육 경험자 비율이 낮아져 고등학생의 경우 59.2%가 사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계층도 사교육 경험과 밀접히 관련되는데,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사교육 경험자 비율이 크게 낮아짐.

〈표 3-14〉 사교육 경험

(단위 : %)

	전체	성별		지역		유형	
		남	여	시지역	군지역	국내출생	외국출생
있다	53.1	52.9	53.2	52.8	53.4	54.8	36.7
없다	46.9	47.1	46.8	47.2	46.6	45.2	63.3
χ^2		0.002		0.012		3.547*	
	전체	학령			계층의식		
		초등	중등	고등	상층	중간층	하층
있다	62.5	50.6	40.8	68.2	53.4	41.9	
없다	37.5	49.4	59.2	31.8	46.6	58.1	
χ^2		9.382**			3.567*		

주 : *** P<0.001, **P<0.01, *P<0.05

다. 사회생활

- [평일 저녁시간에 하는 일] 평일 저녁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는지 복수선택하게 한 결과 대부분이 'TV 시청, 인터넷게임, 만화책, 잠자기' 등 혼자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41.2%는 공부를 하거나 학원을 간다고 응답하였음.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극히 낮음.
 -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군 지역 거주 청소년이 시 지역 청소년들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비율이 2배 가까이 높아 22% 수준이었고, 외국출생 청소년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31.3%로 국내출생 청소년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음.
 - 학령이 높아질수록 '나홀로 미디어매체 즐기기' 비율은 낮아지고 '공부나 학원' 비율이 높아짐. 계층별로는 중간층이 '공부, 학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하층이 '가족과 보내기' 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월등히 높은 차이가 있음.

〈표 3-15〉 평일 저녁시간에 하는 일(복수응답)

저녁시간 전		나홀로 TV,게임,잠 등	가족과 함께	공부, 학원	사회,봉사, 종교활동	아르바이트	집 밖에서 친구와	기타
전체		104.8	18.6	41.2	2.7	0.7	2.1	6.9
성별	남자	112.4	14.6	41.6	0.7	1.5	3.6	3.6
	여자	98.1	22.1	40.9	4.5	0.0	0.6	9.7
지역	시부	107.5	15.7	37.1	2.5	0.6	3.1	5.0
	군부	101.5	22.0	46.2	3.0	0.8	0.8	9.1
유형	국내 출생	105.4	17.1	42.6	2.3	0.8	2.3	7.0
	외국 출생	100.0	31.3	31.3	6.3	0.0	0.0	6.3
학령 급	초등	116.4	16.4	38.3	2.3	0.0	0.8	9.4
	중등	107.1	22.6	38.1	2.4	0.0	3.6	1.2
	고등	85.7	16.9	50.6	2.6	2.6	2.6	9.1
계층 의식	상	104.5	18.2	36.4	9.1	0.0	4.5	0.0
	중	105.2	16.7	43.3	2.1	0.9	1.3	8.2
	하	106.5	32.3	25.8	3.2	0.0	6.5	3.2

- [희망하는 교육수준]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가 48.9%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학(30.7%), 박사(8.6%), 고등학교 이하(8.2%)의 순으로 나타나,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대부분이 고등교육 진학을 진로로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하위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국내출생 청소년에 비해 외국출생 청소년이 고등학교까지 희망하는 비율이 14.7%로 2배 이상 높고, 계층의식이 중간층인 청소년들의 대학교 진학 의향이 다른 계층에 비해 더 높고 상층 청소년들은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려는 비율이 22.7%로 월등히 높게 나타남.

〈표 3-16〉 희망하는 교육수준

(단위 : %)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석사	박사
전체		8.2	30.7	48.9	3.6	8.6
성별	남자	10.9	28.7	48.1	4.7	7.8
	여자	6.0	32.5	49.7	2.6	9.3
지역	시부	7.3	31.1	41.5	3.7	9.1
	군부	8.3	26.5	52.3	3.0	6.8
유형	국내출생	6.9	27.6	48.3	3.8	8.4
	외국출생	14.7	41.2	29.4	-	5.9
학령급	초등	11.9	28.0	42.4	5.1	12.7
	중등	3.6	30.1	55.4	2.4	8.4
	고등	7.9	35.5	51.3	2.6	2.6
계층의식	상	13.6	31.8	22.7	9.1	22.7
	중	7.1	30.2	51.1	3.1	8.4
	하	13.8	34.5	48.3	3.4	0.0

- [삶의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가 3.35점으로 가장 높고, 친구관계, 학교생활 만족도가 3.26점, 3.22점으로 높으며, 외모, 학업 만족도도 만족에 가까움.
- 하위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친구관계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고, 시 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외모 만족도가 군 지역 청소년들보다 높게 나타남. 또한, 친구관계 만족도도 시 지역 거주 청소년들이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음.
- 국내출생 청소년들이 외국출생 청소년에 비해 친구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가족관계 만족도 점수 역시 높음.

- 학령이 높아질수록 학업, 학교생활,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아져 고등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낮음. 계층의식은 모든 영역의 만족도에서 차이를 나타내는데, 계층의식이 하층에 가까울수록 모든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짐.

〈표 3-17〉 삶의 만족도

(단위 : %, 점)

	외모		학업		학교생활		친구관계		가족관계		
	불만족	평균									
전체	19.3	2.98	25.9	2.92	7.4	3.22	8.8	3.26	7.5	3.35	
성별	남자	16.4	3.03	25.0	2.93	7.9	3.25	5.0	3.32	7.9	3.36
	여자	21.8	2.94	26.6	2.92	7.1	3.19	12.3	3.19	7.1	3.34
지역	시부	16.5	3.05	20.9	2.98	9.1	3.24	12.2	3.25	8.5	3.37
	군부	22.7	2.89	32.1	2.86	5.3	3.20	4.6	3.26	6.1	3.31
유형	국내	19.2	2.98	26.2	2.92	6.5	3.24	7.3	3.27	6.5	3.37
	국외	20.6	3.00	24.2	2.94	14.7	3.06	20.6	3.15	14.7	3.12
학령 급	초등	16.3	3.08	18.1	3.09	5.4	3.33	8.5	3.35	4.7	3.53
	중등	23.5	2.92	29.4	2.87	4.7	3.22	8.2	3.24	7.1	3.27
	고등	19.0	2.91	34.2	2.71	13.9	3.04	9.0	3.13	11.5	3.13
계층 의식	상	9.1	3.32	4.5	3.36	0.0	3.55	4.5	3.64	0.0	3.82
	중	19.7	2.96	27.0	2.90	6.7	3.21	8.4	3.24	8.0	3.30
	하	25.8	2.84	35.5	2.65	19.4	2.97	16.1	3.00	9.7	3.23

주: 만족도는 1 매우 불만족-4 매우 만족으로 측정
음영표시는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경우임

- 각 만족도 항목 간에는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친구관계 만족도는 학교생활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와 높은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보이며, 외모 만족도와 학업만족도의 상관계수도 0.544로 높은 편임. 따라서 어느 한 가지에 만족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영역의 만족도도 높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표 3-18〉 삶의 만족도 각 항목 간 상관관계

	외모	학업	학교생활	친구관계
(1) 외모만족	1			
(2) 학업만족	.544**	1		
(3) 학교생활 만족	.450**	.513**	1	
(4) 친구관계 만족	.419**	.392**	.583**	1
(5) 가족관계 만족	.381**	.354**	.405**	.573**

** .상관계수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 [현재 고민거리] 청소년들의 현재 고민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46.3%는 현재 고민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고민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공부(성적)’가 41.2%로 가장 높고, ‘용돈부족’이 23.6%, ‘진로선택’ 17.9%, ‘친구(우정)’ 문제가 15.2%, ‘외모’ 14.5%의 순으로 나타남.

-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진로선택, 인터넷중독으로 고민하는 비율이 더 높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외모, 친구 문제로 고민하는 비율이 더 높았음. 거주지역 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음. 국내출생 청소년이 용돈 부족, 진로선택이 고민이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외국출생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정환경, 학교폭력을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음. 학령이 높아질수록 고민이 없다는 응답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공부와 진로선택 고민 응답률이 높았음. 중학생의 경우 외모로 고민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남.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고민이 없다는 응답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경제문제, 용돈부족, 진로선택으로 고민한다는 응답률이 높아짐.

〈표 3-19〉 최근 고민거리(복수응답)

(단위 : %)

	전체	성별		지역		유형		학령			계층의식		
		남	여	시부	군부	국내 출생	외국 출생	초등	중등	고등	상	중	하
고민없다	46.3	45.7	46.8	43.3	50.0	46.4	47.1	60.5	40.0	30.4	59.1	48.3	19.4
외모	14.5	10.7	17.9	12.8	16.7	14.9	11.8	15.5	21.2	5.1	9.1	16.4	6.5
건강	6.8	8.6	5.1	6.1	7.6	7.3	2.9	9.3	3.5	6.3	0.0	6.3	12.9
가정환경	5.1	3.6	6.4	5.5	4.5	3.4	17.6	7.0	2.4	5.1	9.1	4.2	9.7
경제문제	7.1	3.6	10.3	9.8	3.8	7.3	5.9	0.8	7.1	17.7	0.0	5.5	25.8
용돈 부족	23.6	27.9	19.9	22.0	25.8	25.3	11.8	27.1	22.4	20.3	4.5	25.6	22.6
공부	41.2	37.9	44.2	41.5	40.9	41.4	41.2	31.8	47.1	49.4	13.6	42.9	48.4
진로선택	17.9	20.7	15.4	18.3	17.4	18.8	11.8	4.7	24.7	31.6	13.6	17.6	25.8
친구(우정)	15.2	10.7	19.2	16.5	13.6	15.3	11.8	19.4	14.1	8.9	36.4	14.3	6.5
이성문제	2.4	1.4	3.2	3.0	1.5	1.9	5.9	2.3	2.4	2.5	4.5	1.7	3.2
학교폭력	3.0	3.6	2.6	4.3	1.5	2.3	8.8	4.7	1.2	2.5	9.1	2.9	0.0
술, 담배	2.4	3.6	1.3	1.8	3.0	2.7	0.0	3.1	1.2	2.5	4.5	2.5	0.0
인터넷중독	10.1	14.3	6.4	10.4	9.8	9.6	14.7	10.9	9.4	10.1	22.7	8.8	9.7
기타	3.7	6.4	1.3	3.7	3.8	3.4	5.9	2.3	3.5	6.3	9.1	2.5	9.7

○ [자신의 정서·신체 건강에 대한 평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심리·육체적 안녕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하위집단별로 차이가 있음.

- 시 거주 청소년의 다문화긍정 인식은 긍정적이나 군 거주 청소년의 다문화긍정 인식은 부정적임. 국내출생 청소년보다 외국출생 청소년들의 주관적 안녕 수준이 낮고 우울감과 다문화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 부적응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담론들이 외국출생 청소년들에게는 적용될만한 것임을 알 수 있음. 학령이 높을수록,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자존감과 주관적 안녕, 다문화긍정 인식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0〉 자신의 정서·신체 건강에 대한 평가

	자존감		주관적 안녕		우울감		건강		다문화긍정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전체	3.23		3.15		1.58		3.24		2.62	
성별	남자	0.47	3.20	1.70	1.59	0.01	3.29	1.05	2.54	2.64
	여자		3.11		1.58		3.19		2.70	
지역	시부	1.90	3.19	1.54	1.63	1.12	3.23	0.08	2.75	8.42**
	군부		3.10		1.53		3.26		2.46	
유형	국내출생	0.03	3.18	4.92*	1.55	4.87*	3.26	1.21	2.63	0.37
	외국출생		3.21		2.93		1.89		3.09	
학령급	초등	4.49*	3.36	18.22** *	1.64	0.76	3.30	0.47	2.71	2.37
	중등		3.30		1.51		3.22		2.46	
	고등		3.06		2.87		1.56		3.19	
계층의식	상	3.36*	3.55	6.58**	1.45	1.11	3.48	1.67	2.83	1.47
	중		3.21		1.58		3.20		2.62	
	하		3.08		1.77		3.29		2.42	

*p<.05, **p<.01, ***p<.001

- 주 1. '자존감':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친구들과모임에서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전혀그렇지않다(1)~매우그렇다(4).
 2. '주관적 행복': 사는 게 즐겁다.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삶이 행복하다고 느낀다. 전혀그렇지않다(1)~매우그렇다(4).
 3. '우울감':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적이 있다. 그런적없다(1)~자주경험했다(4).
 4. '건강':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본인의 건강상태 평가. 매우 건강하지 못함(1)~매우 건강함(4).
 5. '다문화긍정':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즐긴다.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부모님 나라에 취직하고 싶다 3문항. 전혀그렇지않다(1)~매우그렇다(4).

○ [인적 지지체계 및 지역사회 만족도] 한국에 친한 친구가 몇 명 정도 있는지 알아본 결과, 평균 약 14명(범주: 0명~172명, 중위수: 6명)으로 응답하였음.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88.4%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대상으로 '가족친척'과 '친구'를 선택함. 한편,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평가에 대해 2.91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고등학생 집단과 계층의식(하) 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3-21〉 인적 지지체계 현황 및 지역사회 만족

(단위 : 명, %, 점)

	친구 수	도움요청할 사람이 있다	↳ 도움 요청할 수 있는 대상(복수응답)					지역사회 만족도 ²		
			가족	학교선생님	친구	종교기관	멘토 등 ¹	M	t/F	
전체	14	88.4	53.8	18.1	46.9	1.2	10.0	2.91	-	
성별	남자	17	88.5	55.7	23.0	49.2	0.8	9.8	2.92	.26
	여자	12	88.3	52.2	13.8	44.9	1.4	10.1	2.90	
학령급	초등	16	85.2	65.7	16.7	35.2	1.9	13.0	3.00b	6.37**
	중등	12	94.1	53.8	16.7	52.6	0.0	9.0	2.96b	
	고등	15	89.6	36.5	21.6	58.1	1.4	6.8	2.73a	
계층의식	상	11	77.3	73.3	20.0	40.0	0.0	13.3	3.14b	3.81*
	중	15	88.6	55.2	16.5	46.2	1.4	9.9	2.92ab	
	하	9	93.3	39.3	32.1	46.4	0.0	7.1	2.72a	

*p<.05, **p<.01, ***p<.001

주 1. '멘토 등': 상담선생님, 학원선생님, 대학생 멘토 등.

2. '지역사회 만족': 동네사람 대부분 알고 있다, 동네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현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등 5문항. 전혀그렇지않다(1)~매우그렇다(4).

라. 정책에 대한 태도와 경험

- [관련 기관/시설 이용경험] 지난 1년간 청소년 관련한 지원기관/시설 이용 경험률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74.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방과후교실 71.3%, 지역아동센터 47.4%, 청소년수련관 등 32.6% 순서로 높았음.
-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청소년 시설 이용율이 더 높은 편임. 지역별로는 군 지역 청소년들이 시 지역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상담센터나 수련시설 등 청소년 시설 이용률이 월등히 높고, 고용센터나 사회복지관 이용률도 약간 더 높음.
- 외국출생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 방과후 교실, 지역의 청소년 시설 이용율이 국내출생 청소년들보다 낮음. 학령이 높아질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이용율이 급격히 낮아짐.
- 계층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나 계층이 중간이거나 하층인 경우에 청소년 시설 이용율이 상층 청소년보다 높음. 특히 하층 청소년에 비해 중간층 청소년의 청소년 시설 이용률이 더 높음.

〈표 3-22〉 관련 기관/시설 이용경험

(단위 :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과후교 실	지역아동센 터	청소년상담 센터 및 1388	청소년수 련관 등	고용센 터	사회복지관	
전체	74.1	71.3	47.4	11.1	32.6	3.8	14.2	
성별	남자	71.0	69.6	49.3	9.6	27.2	3.7	11.9
	여자	76.8	72.9	45.8	12.5	37.4	3.9	16.3
지역	시부	72.2	69.1	49.7	6.2	25.3	0.6	10.5
	군부	76.3	74.0	44.4	17.5	41.9	7.9	18.9
유형	국내출생	74.0	72.9	48.4	11.5	34.4	4.0	14.6
	외국출생	73.5	58.8	38.2	9.1	20.6	3.0	11.8
학령 급	초등	84.4	83.6	56.0	8.7	26.8	4.0	15.1
	중등	81.0	67.9	46.3	11.1	36.1	3.7	18.3
	고등	48.7	55.1	33.8	13.0	38.5	3.9	9.1
계층 의식	상	72.7	68.2	40.9	4.5	18.2	9.1	18.2
	중	75.3	73.2	48.0	12.2	33.9	3.0	13.9
	하	64.5	61.3	45.2	10.0	29.0	6.7	16.1

주.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 [지원서비스 수혜 경험] 지난 1년간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지원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76.3%로 서비스 수혜율은 높음. 받았던 서비스로는 문화체험활동이 55.2%로 가장 높고, 문화공연 관람이 42.2%, 방과후 수업료 지원 33.5%, 진로지원 29.1%, 대학생 멘토링 21.7% 순으로 나타났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던 언어 교육이나 학습보조 서비스 경험률은 10% 대에 머물러 정책적 노력에 비해 서비스 수혜율 자체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3〉 다문화가족이라 하여 받았던 지원서비스

		수혜경험율	방과후 수업료	문화공연	놀이공원	문화체험	특기적성프로그램	심리적응프로그램	물질적지원
전체		76.3	33.5	42.2	18.3	55.2	16.5	13.5	17.4
성별	남자	71.2	34.0	36.0	22.0	54.0	13.0	12.0	20.0
	여자	80.8	33.1	46.9	15.4	56.2	19.2	14.6	15.4
지역	시부	76.1	28.8	33.1	11.0	35.6	11.0	11.7	12.3
	군부	76.5	22.7	32.6	18.2	52.3	15.2	9.1	15.2
유형	국내출생	76.2	26.2	32.7	14.6	43.1	13.1	9.6	11.9
	외국출생	76.5	26.5	32.4	8.8	41.2	11.8	17.6	23.5
학령급	초등	76.7	36.6	48.5	26.7	59.4	20.8	9.9	20.8
	중등	87.1	33.3	41.3	16.0	64.0	18.7	22.7	20.0
	고등	64.1	28.8	30.8	5.8	34.6	5.8	7.7	5.8
계층의식	상	59.1	46.2	53.8	38.5	53.8	30.8	23.1	30.8
	중	78.1	30.5	43.7	18.4	58.4	17.4	13.2	14.7
	하	80.6	52.0	24.0	8.0	28.0	4.0	12.0	28.0
		멘토링	학습보조 선생님	이중언어 교육	한국어 교육	학습지	급식비	진로 지원	
전체		21.7	11.7	18.3	10.4	10.4	11.7	29.1	
성별	남자	19.0	12.0	9.0	9.0	12.0	13.0	33.0	
	여자	23.8	11.5	25.4	11.5	9.2	10.8	26.2	
지역	시부	15.3	9.2	14.1	9.2	6.7	12.3	19.6	
	군부	18.9	9.1	14.4	6.8	9.8	5.3	26.5	
유형	국내출생	17.7	8.1	14.2	6.2	8.5	8.1	21.5	
	외국출생	11.8	17.6	14.7	23.5	5.9	14.7	32.4	
학령급	초등	26.7	16.8	21.8	13.9	11.9	10.9	17.8	
	중등	18.7	9.3	17.3	5.3	13.3	12.0	44.0	
	고등	15.4	5.8	11.5	9.6	3.8	13.5	28.8	
계층의식	상	7.7	7.7	15.4	23.1	0.0	30.8	15.4	
	중	22.6	11.1	18.4	8.9	11.6	8.4	30.5	
	하	16.0	20.0	16.0	12.0	8.0	28.0	28.0	

-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중언어교육 경험율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점이 두드러짐.
 - 군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진로지원 수혜 경험율이 시 지역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군 지역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청소년 시설 이용율이 높은 것과 관련 있어 보임.
 - 외국출생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심리적응 프로그램, 물질적 지원, 학습 보조, 한국어 교육 등에서 지원받은 경험률이 더 높음.
 - 학령별로 초등학교의 경우 심리적응프로그램과 진로지원 수혜율이 낮고 그 외 대부분의 서비스 수혜율이 고르게 높은 수준을 보임. 중학생은 다른 학령에 비해 심리적응과 진로지원 서비스 수혜율이 현저하게 높음. 고등학생은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수혜율이 낮은 편인데, 그 중에서는 문화공연, 문화체험, 진로지원 서비스 수혜율이 높은 편임.
 - 계층이 낮을수록 수혜경험률이 높는데, 하층 청소년의 경우 방과후 수업료 지원, 물질적 지원, 급식비 지원 등 실질적인 물질 지원 수혜율이 높은 편임. 상층 청소년의 경우 특기적성 및 심리적응 프로그램 수혜율이 높음.
- [서비스별 필요성 인식]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각 서비스들에 대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어 교육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점수는 2.31점으로 4점 척도의 '보통'을 의미하는 2.5점 이하로 불필요한 서비스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심리적응 프로그램, 멘토링, 학습보조 교사 지원도 2.51~2.58점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러 불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도 아니었음. 필요성 점수가 가장 높은 서비스 항목은 특기적성프로그램임.
-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문화공연과 진로지원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높았고, 지역별 차이는 없음.
 - 국내출생 청소년들이 외국출생 청소년보다 놀이공원 방문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더 높고 외국출생 청소년들은 전체 집단 중 유일하게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놀이공원 방문, 문화체험활동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
 - 계층의식이 상층인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서비스들을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방과후수업료지원, 놀이공원 방문은 하층보다 중간층 청소년들이 더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고, 물질적 지원과 멘토링, 학습보조 교사 지원은 하층 청소년들의 필요성 인식이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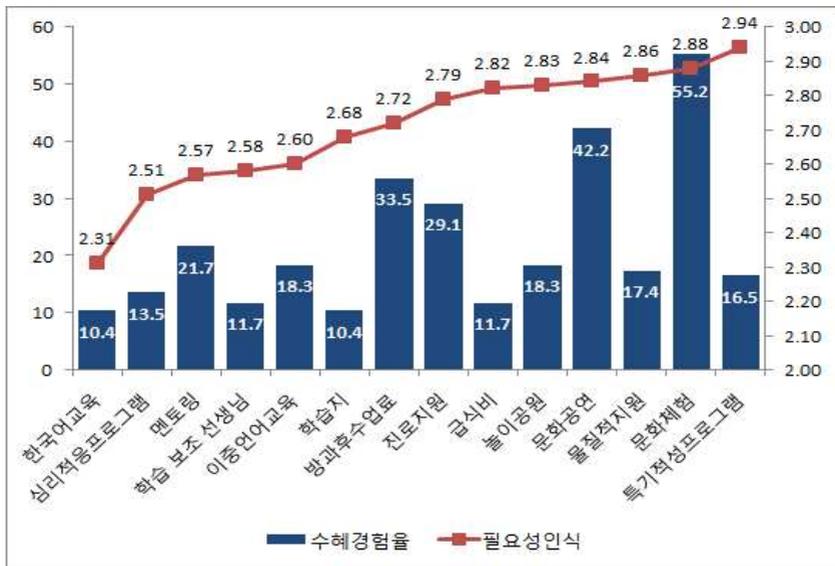
〈표 3-24〉 지원서비스에 대한 청소년들의 필요성 인식

(단위 : 점/4점만점)

		방과후수업료	문화공연	놀이공원	문화체험	특기적성 프로그램	심리적응 프로그램	물질적지원
전체		2.72	2.84	2.83	2.88	2.94	2.51	2.86
성별	남자	2.68	2.72	2.73	2.80	2.85	2.41	2.78
	여자	2.77	2.96	2.92	2.95	3.02	2.60	2.93
지역	시부	2.68	2.82	2.75	2.87	2.91	2.51	2.85
	군부	2.78	2.88	2.93	2.89	2.97	2.51	2.86
유형	국내출생	2.74	2.88	2.88	2.89	2.97	2.53	2.88
	외국출생	2.68	2.65	2.53	2.82	2.76	2.41	2.74
학령급	초등	2.72	2.93	3.08	3.06	3.13	2.47	2.87
	중등	2.66	2.73	2.63	2.73	2.79	2.54	2.71
	고등	2.84	2.84	2.64	2.72	2.77	2.55	3.00
계층의식	상	2.00	2.41	2.41	2.50	2.64	2.00	2.41
	중	2.80	2.88	2.89	2.92	2.98	2.56	2.86
	하	2.67	2.87	2.68	2.84	2.77	2.53	3.13
		멘토링	학습보조 교사	이중언어 교육	한국어교육	학습지	급식비	진로 지원
전체		2.57	2.58	2.60	2.31	2.68	2.82	2.79
성별	남자	2.55	2.54	2.52	2.33	2.65	2.87	2.67
	여자	2.59	2.62	2.68	2.28	2.70	2.77	2.90
지역	시부	2.57	2.55	2.61	2.40	2.65	2.78	2.82
	군부	2.57	2.62	2.60	2.19	2.70	2.87	2.75
유형	국내출생	2.59	2.59	2.60	2.26	2.68	2.82	2.80
	외국출생	2.44	2.59	2.65	2.71	2.71	2.82	2.79
학령급	초등	2.56	2.58	2.69	2.42	2.70	2.81	2.77
	중등	2.51	2.52	2.46	2.14	2.66	2.67	2.75
	고등	2.67	2.66	2.64	2.31	2.68	3.00	2.88
계층의식	상	1.91	2.14	2.36	2.09	2.41	2.55	2.41
	중	2.62	2.61	2.63	2.35	2.71	2.81	2.84
	하	2.77	2.81	2.55	2.20	2.63	3.07	2.67

- 주: 1. 전혀 필요없음(1점) ~ 매우 필요함(4점).
 2. 숫자에 밑줄이 쳐진 경우는, 4점 척도에서 '보통'에 해당하는 2.5점 이하로 불필요에 가까운 경우임.
 3. 음영 표시 셀은 집단간 평균차이가 유의확률 0.05 기준에서 유의한 경우임

- 각 서비스를 받은 경험률과 청소년들의 서비스 필요성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특기적성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수혜경험률은 16.5%로 낮은 실정임. 이처럼 서비스 필요성 인식은 높으나 수혜 경험률은 낮은 경우는 급식비 지원, 놀이공원 방문, 물질적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요구와 실제 정책이 괴리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줌. 반면, 문화체험, 문화공연 관람, 진로지원, 방과후수업료 지원 등은 필요성 인식과 수혜경험률 간의 괴리가 크지 않음.



〈그림 3-3〉 서비스 수혜경험률과 필요성 인식 비교

- [향후 원하는 지원서비스] 향후 원하는 지원서비스를 모두 선택하게 한 결과, 원하는 서비스가 없다는 응답은 2.4%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지원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원서비스의 내용으로는 놀이공원 방문 45.4%, 문화공연 관람 44.1%, 방과후 수업료 지원 41.3%, 특기적성 프로그램 40.3%, 학원비 지원 38.6%, 문화체험 36.6%, 급식비 지원이 31.5%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한국어교육과 학습 지원(보조교사 지원,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 요구도는 낮았음.

〈표 3-25〉 향후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서비스

(단위 : %)

	없음	방과후수 업료	문화 공연	놀이 공원	문화 체험	특기 적성	심리 적응	물질적지 원	
전체	2.4	41.3	44.1	45.4	36.6	40.3	21.0	23.1	
성별	남자	3.6	41.0	41.0	43.9	35.3	38.8	16.5	20.9
	여자	1.3	41.6	46.8	46.8	37.8	41.7	25.0	25.0
지역	시부	3.1	39.5	44.2	44.2	36.8	38.0	19.6	22.7
	군부	1.5	43.5	43.9	47.0	36.4	43.2	22.7	23.5
유형	국내출생	2.7	41.1	43.8	46.2	36.9	39.6	20.4	23.1
	외국출생	-	41.2	44.1	38.2	32.4	44.1	26.5	20.6
학령 급	초등	2.3	38.6	48.8	62.8	44.2	43.4	19.4	22.5
	중등	3.5	36.5	40.0	38.8	34.1	38.8	23.5	25.9
	고등	1.3	51.3	41.0	24.4	26.9	38.5	20.5	21.8
계층 의식	상	4.5	42.9	45.5	54.5	31.8	40.9	13.6	18.2
	중	2.5	41.1	43.0	45.6	37.1	39.7	21.9	22.4
	하	-	38.7	48.4	32.3	32.3	38.7	19.4	35.5
	멘토 링	학습보조 교사	이중언어 교육	한국어교 육	학습 지	급식 비	학원 비	진로 지원	
전체	17.6	16.9	24.1	11.5	19.3	31.5	38.6	29.2	
성별	남자	18.0	13.7	20.1	11.5	17.3	38.8	38.1	23.0
	여자	17.3	19.9	27.6	11.5	21.2	25.0	39.1	34.6
지역	시부	20.2	16.6	27.0	14.1	20.2	30.1	42.9	30.7
	군부	14.4	17.4	20.5	8.3	18.2	33.3	33.3	27.3
유형	국내출생	18.5	16.9	23.8	8.8	20.0	32.3	36.9	28.5
	외국출생	11.8	14.7	23.5	32.4	11.8	23.5	50.0	32.4
학령 급	초등	17.1	20.9	24.8	12.4	17.8	26.4	31.8	28.7
	중등	20.0	17.6	22.4	5.9	22.4	31.8	44.7	27.1
	고등	16.7	10.3	24.4	15.4	19.2	39.7	42.3	32.1
계층 의식	상	9.1	13.6	27.3	4.5	9.1	31.8	27.3	18.2
	중	16.5	16.9	23.2	12.2	19.8	30.4	35.9	30.8
	하	32.3	22.6	25.8	12.9	19.4	35.5	64.5	25.8

주. 중복응답.

- 대체로 문화체험활동 기회와 학교·학업 관련 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학습지원을 위한 인적 자원 지원 요구도는 낮은 것으로 요약됨. 문화체험활동 기회는 청소년 활동 지원과 관련되고 학교·학업 관련 각종 비용지원 서비스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사업과 관련되어 이주배경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서비스들이나 학습 지원 서비스들은 대체로 다문화가정이나 학교에서 이주배경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이상의 결과만으로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학습지원 서비스 자체를 덜 필요로 하는 것인지, 사업 시행의 방식이 구분, 선별적이어서 덜 선호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음.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업성적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기평가가 매우 양호하고, 약 40%의 청소년들이 학업수행에서 어려움이 없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습 장애나 낮은 학업성취도를 이주배경청소년의 고유한 특성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여기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방문 학습지원 사업에서 멘토와 방문교사의 교육역량과 자질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청소년들의 해당 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나아가 학습지나 학원비, 방과후교실 수업료 지원과 같이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개인선택권을 일정 정도 보장해주는 현금지원 서비스 선호도가 더 높은 것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와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됨.

3. 전북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현황 분석

가. 관련 기관/시설 현황

- 전라북도의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은 크게 3유형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의 핵심 추진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 관련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및 상담복지 시설, 그리고 교육부의 다문화 중점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무부서는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 다문화지원팀’이고,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청소년팀’이 주무부서이나 청소년 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는 ‘여성청소년과의 출산아동팀’이,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이 주무부서로 되어있어, 시설명칭에 청소년이 명기되었는지 아동이 명기되었는지에 따라 담당부서가 다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통합적, 체계적 수행을 위해 부서 간, 담당자 간의 유기적이고 일상적인 협력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표 3-26〉 전북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구분	시설명	광역기구	시설수	목적 및 주요활동	주무부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전북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14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추진체계	국제협력과 다문화지원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전라북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10	청소년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 사회봉사 등 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비, 프로그램 제공. 여성가족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정된 시설만)	여성청소년과 청소년팀
	청소년 문화의 집		18		
	청소년 수련원		14		
청소년 복지·보호 시설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전라북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14	청소년 상담 사업, CYS-Net 및 1388 운영, 고위기청소년 대상 ‘청소년동반자’ 사업, 학교밖청소년 통합지원(꿈드림)	

구분	시설명	광역기구	시설수	목적 및 주요활동	주무부서
	청소년 쉼터		5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단기 2, 중장기 2, 일시 1)	
	지역아동 센터	지역아동 센터 전북 지원단	286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놀이와 오락 제공,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아동복지 시설	여성청소년과 출산아동팀
	해바라기 아동센터		1	19세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학교 다문화 교육	다꿈준비 학교		5 (초4, 중1)	중도입국 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교육을 돕기 위한 학교	전북교육청 교육혁신과
	다꿈키움 학교		23 (유6, 초15, 중2)	다문화교육 지역거점학교로 문화다양성교육, 이중언어교육과 문화예술체육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다꿈사랑 방학교		77 (유24, 초47, 중6)	다문화학생의 학습 지원, 학교적응, 모든 학생의 문화다양성교육을 돕는 학교	
	다꿈연구 학교		1(초)	한국어 교육과정(KSL)을 다문화학생에게 적용하는 교육부 과제 수행 도지정 연구학교	
	다꿈터 학교		24 (초17, 중6, 고1)	다꿈교육 특구 내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필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18년 현재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 센터가 전라북도거점센터를 겸하고 있으며,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의 4개 지역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장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청소년 시설과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봄.

1) 청소년 수련시설

-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문화활동, 청소년 교류활동 등 청소년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 청소년 지도사를 갖춘 청소년 활동시설임.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텔, 청소년특화시설의 6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수련시설의 최초 설치 근거인 개정 이전 <청소년기본법>(1991.12 제정)에서는 위치와 기능에 따라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호텔로 구분하였음. 생활권 수련시설은 일상생활 속에서 취미, 정서함양, 체험, 교류활동 등을 실시, 제공하는 시설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포함하며, 자연권 수련시설은 대자연 속에서 수련 및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을 포함함. 자연권 수련시설의 경우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고 개인 이용보다는 학교나 단체수련회 활동이 중심임.

<표 3-27> 청소년 수련시설의 유형 및 주요 프로그램

구분		주요 기능 및 운영 프로그램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하는 종합수련시설 - 입지조건은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시설은 연건축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하며, 15인 이상 수용가능한 실내집회장, 연면적 150㎡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2개소 이상의 자치활동실, 2개 이상 특성화 수련활동장, 1개소 이상의 상담실, 1개소 이상의 휴게실, 1개소 이상의 지도자실이 필수 - (청소년활동) 캠프, 주말체험, 성취포상제, 자원봉사활동, 해외문화체험·자원봉사 등 국제교류활동, 동아리 활동 - (교육문화) 외국어·과학 창의력·수학·미술·음악·취미 독서·논술 등 평생교육프로그램 - (생활체육) 수영, 헬스, 농구, 배드민턴 등 체육강좌 - (진로교육) 파티쉐·바리스타·디자이너·요리사 등 진로체험, 진로·직업 적합도 검사, 진로상담, 관련학과 대학생 실습 등
	청소년문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 중 가장 작은 규모의 시설로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캠프·동아리활동 등 청소년활동, 수학·어학 강좌 등 교육문화 강좌, 진로체험 및 진로지도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체육관, 대규모 강당 등을 보유하지 않은 소규모 시설로 수련관의 체육활동 이외 대부분의 프로그램 운영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종합수련시설 입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 - 시설기준으로 100명 이상 수용가능한 생활관, 식당, 실내집회장, 야외집회장, 체육활동장, 수련의 숲, 강의실, 특성화 수련활동장, 지도자실, 휴게실, 비상설비, 기타시설 등을 설치 - 초·중·고교 연계 학교단체 수련활동, 임원수련회,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일현장체험활동, 특성화 캠프 운영
	청소년야영장	- 야영시설을 갖추고 수련거리 및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야영을 매개로 수련원과 유사한 학교단체수련활동 등 운영
	유스호스텔	- 청소년에 적합한 숙박 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을 위한 수련시설 유스호스텔은 허가 받은 시설·설비 범위 내에서 수련원과 유사한 학교단체수련활동 등 운영
	청소년특화시설	-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수련시설 - 영상미디어, 진로 및 대안교육, 성문화, 국제교류, 자원봉사 등 특정 분야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료 :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5.do(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9.2.20. 검색)
http://youthnet.or.kr/?page_id=11(청소년수련시설포털, 2019.2.20. 검색)

○ 전라북도에는 청소년수련관 10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8개소, 청소년수련원 14개소, 청소년야영장 3개소, 유스호스텔 8개소, 특화시설 1개소(부안청림천문대)로 총 54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

- 생활권 수련시설은 모두 공공시설인에 비해 자연권 수련시설과 유스호스텔은 민간시설의 비중이 더 높음. 시설 운영 주체가 민간일 경우 운영비 마련을 위해 영리목적의 사업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청소년 시설로서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표 3-28〉 전라북도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개요

시군명	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54	10	18	14	3	8	1
공공	38	10	18	5	2	2	1
민간	16	0	0	9	1	6	0

자료 : http://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3006001000 (전라북도 홈페이지, 2019. 2. 20 검색)

- 그러나 공공시설인 경우에도 민간위탁의 경우는 공공성이 저해될 위험이 많은 것으로 평가됨. 인건비 등 부족한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을 기반으로 하는 수익사업, 예컨대 성인 대상의 문화강좌나 유료 프로그램 등에 보다 집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활동 분야가 위축되거나 청소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거나, 사전 등록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자율적 이용이 제한되거나 참가비 부담으로 인해 계층과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시설이용 기회가 제약되는 등 청소년 수련시설로서의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진단됨(김형주 외, 2017: 55).
- 전라북도 28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중에서 고창군(3개소), 김제시(3개소), 부안군(1개소), 완주군(1개소), 장수군(1개소), 정읍시(2개소), 진안군(1개소)이 전부 혹은 일부를 시군청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비중이 57.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추후 이들 위탁 시설에서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생활권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각 1개소 이상씩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남원시, 진안군, 장수군, 부안군에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둘 중 한 종류만 설치되어 있고, 임실군에는 두 가지 시설 모두 없음. 순창군의 경우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이 모두 순창읍에 설치되어 있어, 면 단위 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시설의 부족과 더불어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은 설치 근거법령인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시설 이용의 접근성이 시설 설치 및 허가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함. 이로 인해 지역의 일부 청소년만이 시설을 이용하고, 시설들은 이용자 감소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됨(김형주 외, 2017: 13).
- 시군별로 수련시설의 개수가 차이나는 외에도 종사자 현황, 수용정원, 홈페이지 개설 여부 등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음. 대체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별도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시설 이용 및 대여, 프로그램 안내 및 모집 공고 등을 게시하고 있으나 게시물 접근이 쉽지 않아 충분한 홍보나 공지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수련시설 중 가장 규모가 적은 시설이지만 시설 대여를 제외하고는 청소년수련관의 사업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소년 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청소년지도사가 없거나 1명만 있는 시설이 다수 있음. 전문가들은 청소년지도사의 부족을 청소년 참여 및 활동 진흥

의 중요한 장애물로 지적함.

〈표 3-29〉 전라북도 시군별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현황

시군	시설명	운영형태	설립지역	종사자 현황	수용정원	홈페이지
고창군	고창청소년수련관	직영	고창읍	청소년팀장 1명, 기획총괄 1명, 청소년업무 2명, 경영지원 6명	450	○ (고창군체육청소년사업소)
	성내청소년문화의집	직영	성내면	청소년지도사 1명, 청사관리 1명	80	
	흥덕청소년문화의집	직영	흥덕면	청소년지도사 1명, 청사관리 1명	70	
군산시	군산청소년수련관	위탁 (군산YMCA)	송풍동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부장 1명, 활동팀 3명, 참여자치팀 3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6명, 경영지원 7명	882	○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조촌동	(정보없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200	○
김제시	김제청소년수련관	직영	검산동	시청 체육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 6명)	570	×
	김제청소년문화의집	직영	서암동		50	×
	만경청소년문화의집	직영	만경읍		200	×
남원시	남원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사)삼동청소년회)	쌍교동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청소년지도사 2명, 사서 1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명	100	○
무주군	무주청소년수련관	위탁 (재)전주카톨릭청소년육성회)	무주읍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활동지원팀 2명, 회계자치팀 3명, 기획홍보팀 3명	300	○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	안성면	관장 1명, 청소년지도사 2명	70	○
부안군	부안군청소년문화의집	직영	부안읍	군청 교육청소년과 여성청소년주무관 1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300	×
순창군	순창청소년수련관	위탁 (전주YMCA)	순창읍	(정보없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250	○
	순창군청소년문화의집			정규직원(청소년지도사) 2명	100	×
완주군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직영	삼례읍	군청 교육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친화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50	×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사)봉상청소년육성회	봉동읍	관장 1명, 부장 1명, 업무지원팀 2명, 교육문화팀 1명 방과후아카데미 3명	200	○
익산시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위탁 (사)새벽이슬	여양동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청소년활동팀 2명, 청소년인권복지팀 2명, 업무지원팀 2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명	500	○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사)삼동청소년회	모현동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총무 1명, 청소년활동 2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명	150	○
장수군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	직영	장수읍	군청 주민복지실 여성청소년팀	80	×
전주시	솔내청소년수련관	위탁 (천주교 전주교구)	덕진구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교육팀 4명, 운영지원팀 1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명	350	○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위탁 (흥사단)	덕진구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운영지원팀 4명, 사서 1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명	150	○
	완산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사)삼동청소년회	완산구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청소년활동 2명, 청소년복지 3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명	215	○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위탁 (한기장복지재단)	완산구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업무지원 1명, 사업팀 3명, 사서 1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명	250	○
	효자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사)아모스청소년회	완산구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활동기획팀 3명, 운영관리팀 2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명	294	○
정읍시	정읍청소년수련관	위탁 (정읍YMCA)	시기동	관장 1명, 부장 1명, 운영관리팀 5명, 수영팀 1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명	300	○
	신태인청소년문화의집	직영	신태인읍	시청 교육청소년과	150	×
	정읍청소년문화체육관	직영	상동	시청 교육청소년과	250	×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직영	진안읍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청소년활동팀 3명, 행정팀 1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명	250	○

자료 : http://youthnet.or.kr/?page_id=15(청소년수련시설포털, 2019.2.20. 검색), 각 시설 홈페이지

- 한편, 정부는 2005년부터 공적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기반으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중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 및 활동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3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함.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전문체험활동과정(STEAM교육, MAKER교육 등), 학습지원활동(보충학습, 교과학습 등), 자기개발활동과정, 특별지원과정, 생활지원과정(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5개 영역임. 운영유형은 기본지원형, 농산어촌형, 특별지원형(장애형, 다문화형) 중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함. 이중 다문화형은 정원의 50% 이상을 이주배경청소년으로 구성해야 함(여성가족부, 2018).
- 전라북도는 2018년에 수련관 7개소, 수련원 1개소, 문화의 집 9개소, 청소년센터 1개소로 총 18개소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하였음. 대부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초, 중학생 모두를 포함하였으나 전주 솔내 청소년수련관, 완산청소년문화의집,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남원청소년문화의집, 순창군청소년센터, 군산청소년수련관의 6개소는 초등학교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표 3-30〉 전라북도 2018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 현황

시군명	운영시설명	참가인원		
		계	초등	중등
합계	18개소	690	300	390
전주	솔내청소년수련관	40	40	
	전주청소년문화의집	40	20	20
	완산청소년문화의집	40	40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40		40
	효자청소년문화의집	30		30
군산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40		40
	군산시청소년수련관	40		40
익산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40	40	
	익산시청소년수련관	40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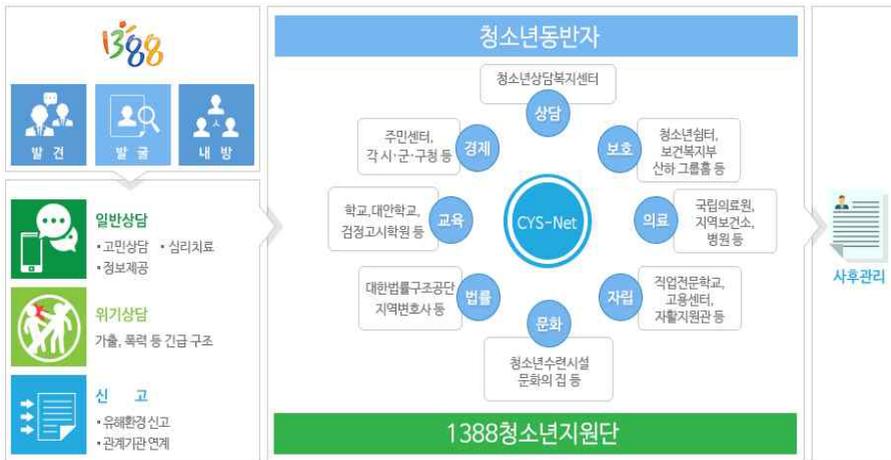
정읍	정읍시청소년수련관	40		40
남원	남원청소년문화의집	40	40	
완주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40		40
	완주군청소년수련관	40		40
진안	진안군청소년수련관	40	20	20
임실	임실군청소년수련원	40	20	20
순창	순창군청소년센터	40	40	
부안	부안군청소년문화의집	40	20	20
군산	군산청소년수련관 (시범: 초등돌봄연계형)	20	20	

자료 : http://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3006003000(전라북도 홈페이지, 2019.2.20. 검색)

2) 청소년 복지 및 보호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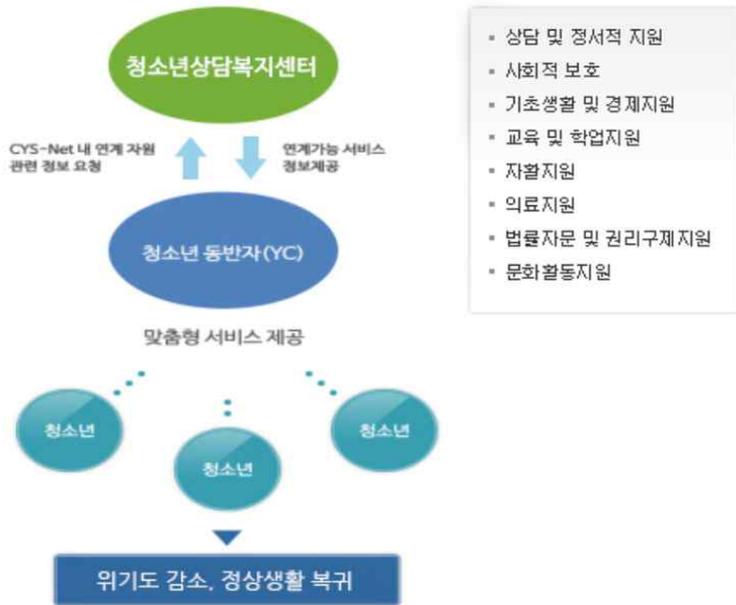
- 〈청소년기본법〉 제3조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청소년 복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4호는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복지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청소년 복지 및 보호를 위한 시설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지역아동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있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해 설치된 청소년복지지원의 중추기관으로서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상담·복지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고위기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청소년 동반자’ 운영, 학업중단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꿈드림’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는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자원, 즉 경찰청, 교육청, 학교, 심

터 및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지역사회 기반의 청소년사회안전망 확대, 위기청소년 발견·보호·지원을 위해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및 '청소년동반자' 운영 확대,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기관 및 단체 등 협력체계(1388청소년지원단) 강화를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음. CYS-Net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로는 상담 및 정서지원, 사회적 보호지원, 교육 및 학원 지원, 진로 및 취업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 구제,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을 포함함.



〈그림 3-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서비스 지원절차

- CYS-Net의 중요 축인 '청소년 동반자' 사업은 청소년 상담전문가인 청소년 동반자가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일대일의 지속적 관계를 맺으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지속적 상호교류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위기청소년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해 줌.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소속되어 '발견·구조', '의료·법률', '복지지원', '상담·멘토'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 지역사회 내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회사, 학원, 자원봉사자, 변호사, 교사 등이 참여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그림 3-5〉 청소년 동반자 사업의 업무흐름도



〈그림 3-6〉 1388청소년지원단의 운영체계

- '꿈드림'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두 가지 진로트랙(학업 복귀, 사회 진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



〈그림 3-7〉 꿈드림 사업 업무 흐름도

- 전라북도에는 15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전주시, 전라북도 센터가 위탁운영이며, 나머지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음. 2015년 이후에 다수의 지역 센터들이 청소년 동반자 사업과 꿈드림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2018년 현재 부안군, 익산시, 장수군, 진안군 센터는 두 사업을 하지 않았고, 무주군 센터는 청소년 동반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서비스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심리 및 정서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상담 서비스와 물리적 지원, 긴급 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자활 및 재활 등 물리적 환경변화와 경제 원조에 중점을 둔 복지지원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 센터들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상담 서비스에 치중해 있고 복지지원은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박승곤, 2017: 63).

○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근거하여 가출청소년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로, 가출청소년의 일시 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선도·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 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가출청소년의 상황 및 욕구 수준을 고려하여 일시(7일), 단기(3개월), 중장기(2년) 쉼터로 유형이 구분되어 있음.

- 전라북도에는 2018년 현재 5개의 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있음. 익산일시쉼터는 가출예방, 조기발견, 조기개입 및 보호를 주목적으로 일시보호와 거리상담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단기쉼터는 3개월 이내 단기 보호기관으로 가출청소년들이 최초로 접하게 되는 안정된 주거 공간이면서 입퇴소가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으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가 가장 중요한 기능임. 중장기 쉼터는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을 중심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 지원을 핵심 기능으로 하며 보호기간은 최대 2년 이내임. 각 생활권 내 연속적 지원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설 접근성, 위기 청소년의 수, 서비스 제공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했을 때 쉼터의 신설은 긴요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며, 가출청소년의 상황에 맞춰 쉼터의 기능을 다각화, 특성화하는 것이 요구됨(박신규 외, 2013).

〈표 3-31〉 전라북도 청소년쉼터 현황

쉼터명	구분	운영주체	개소일	입소정원
군산꽃동산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중장기(여)	(사)군산기독교청소년협회	2010	7명
임마누엘청소년쉼터	중장기(남)	(사)사랑자리	2005	8명
전주푸른청소년쉼터	단기(여)	(사)기독교청소년협회	2002	10명
전주한울안남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남)	(사)한울안운동	2009	12명
익산청소년일시쉼터	일시(공용)	(사)희망청소년복지재단	2013	

자료 : http://www.jikimi.or.kr/guide/country_kysa.php?state=jeonbuk&sca=MM(전국청소년쉼터 협의회 홈페이지, 2019.2.20. 검색), 각 쉼터 홈페이지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시설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만18세 미만의 고등학생까지를 포괄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주이용자는 초등학교생임.

- 2017년 전북의 지역아동센터는 285개소이고, 이 중 초·중·고등생 혼합센터가 198개소, 초등학생 전용 82개소, 중고생 전용 센터가 3개소임(2개소는 미응답)임. 이용아동은 7,141명으로 전북 5세~14세 인구(163,075명)의 4.4%를 차지함. 전국 평균 이용율이 2.4%인 것을 감안하면 전북의 지역아동센터 이용률이 더 높음. 이용 아동 중 이주배경아동은 226명(3.2%)으로 전국 평균 2.9%보다 높음(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8).

〈표 3-32〉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이용현황

	5-14세 총인구	지역아동센터		
		개소수	이용아동수	이주배경아동수
전라북도	163,075명	285개	7,141명	226명
전국 평균	4,579,793명	4,189개	108,578	3,153명

자료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8. 2017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 전라북도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전체적 총량에서 추가적 설치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지역별로 미설치 지역이 있어(이중섭 외, 2018) 해당 지역의 방과 후 돌봄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과 중첩되는 점도 있으나 아동 보호가 중심이고, 취약계층 아동의 사례관리 기능과 사례관리 체계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에 따라 역할과 중점 대상에서 차이를 두어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을 적립하는 것이 필요함(박신규, 2012).

〈표 3-33〉 지역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역할분담 예시

구분	역할 분담
방과 후 학교	- 학력신장 및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 지역사회에 공간 개방 - 학령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자료활용
초등돌봄교실	- 학교 공간 및 프로그램의 승계 효과 - 보안적인 야간 돌봄 및 보호 인프라 역할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내의 연계 및 사례 관리 - 정서적지지 등 가정친화적 보호가 요망되는 청소년 보호
중소도시형	- 학교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청소년 전용 센터의 확대 : 교과학습지도, 문화정서 지원프로그램 강화, 야간 보호
농촌형	- 초중고 혼합센터로 가되, 성장 발달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사례 관리 - 친다문화 센터 확대

자료 : 이태수 외. 2010. 박신규 외. 2012.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운영개선방안 연구. 144 재인용

3)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 ‘다꿈학교’

-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여 전체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감수성 함양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다문화 학생의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 등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교과 연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필수사업으로 강조하는 등 특정 프로그램을 통하기보다 수업시간을 통해 일상적으로 다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교육부의 다문화교육계획은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은 한국어 및 교과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세심하게 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예를 들면, 학습부진의 원인이 한국어 능력 부족 때문인지 방과 후 학습시간의 부족 때문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라도 대학생이나 지역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개별 지도가 효율적이며 반드시 학생의 자발적 의지를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18).

-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자체 지정한 학교들에 대해 “다꿈학교”라는 브랜드명을 부여하고 5가지의 유형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2018년 ‘다꿈학교’는 총 130개교가 지정되어 있음.
 - ‘다꿈준비학교’는 중도입국 학생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교육을 돕기 위한 학교로 초등 4개교, 중학교 1개교가 지정되어 있음. ‘다꿈키움학교’는 다문화교육의 지역거점 학교로 문화다양성 교육, 이중언어교육,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유치원 6개교, 초등 15개교, 중학교 2개교, 총 23개교가 지정되어 있음. ‘다꿈사랑방학교’는 다문화학생의 학습 지원, 학교적응, 전체 학생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돕는 학교로 유치원 24개교, 초등 47개교, 중학 6개, 총 77개교가 지정되어 있음. ‘다꿈터학교’는 다문화교육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로 전라북도에는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이 다문화교육 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의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개교, 총 24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음. 마지막으로 ‘다꿈연구학교’는 한국어교육과정(KSL)을 다문화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교육부 과제를 수행하는 학교로 군산의 구암초등학교가 다꿈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있음.

〈표 3-34〉 전라북도 2018년 다꿈학교 현황

지역	다꿈준비			다꿈키움			다꿈사랑방				다꿈연구			다꿈터(기움)				계	
	초	중	소계	유	초	중	소계	유	초	중	소계	초	중	소	고	소계			
전주	1	1	2	1	1		2	5	6	1	12							16	
군산	1		1	1	1		2	2	5		7	1		1				11	
익산				1	2		3	2	4	2	8							11	
정읍				1	1	1	3	2	5		7							10	
남원	1		1		1		1	2	3		5							7	
김제	1		1		3		3	3	4		7							11	
완주				1			1	2	4		6							7	
진안					1		1	1	1	1	3			6	1		7	11	
무주							0	1	3		4							4	
장수					1		1	1	2		3			4	2		6	10	
임실				1	1		2		2		2			4	1		5	9	
순창					2		2	1	2	1	4			3	2	1	6	12	
고창					1		1	1	3	1	5							6	
부안						1	1	1	3		4							5	
계	4	1	5	6	15	2	23	24	47	6	77	1	0	1	17	6	1	24	130

〈표 3-35〉 전라북도 2018년 다꿈학교와 주요 운영 프로그램

구분	급별	학교명	주요 운영 프로그램
다꿈준비 학교	중	전북중학교	KSL 활용 언어교육 프로그램 및 다문화학생 진로 교육 프로그램
	초	전주금평초등학교	KSL을 활용한 언어교육 및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군산구암초등학교	KSL 활용 언어교육 프로그램 및 다문화학생 진로 교육 프로그램
		덕과초등학교	KSL 활용 언어교육 프로그램
		월성초등학교	한국어강사와 이중언어강사의 협력 적응 프로그램 운영
다꿈키움 학교	중	왕신여자중학교	다문화 편견해소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변산서중학교	다문화 이해 및 체험교육 아버지나라 문화체험현장학습
	초	전주금암초등학교	미술로 이해하는 다문화교육
		군산남초등학교	다문화감수성 증진 및 상호문화이해교육
		합라초등학교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한 가족공동체역시 함양
		황등남초등학교	다양한 어울림활동을 통한 직업세계 체험
		신태인초등학교	知·情·意의 조화로 함께 배우는 다문화 이해교육
		남원서원초등학교	친구와 가족 사랑을 통한 다문화 통합 프로젝트
		봉남초등학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김제검산초등학교	연극영화를 통한 문화체험활동 및 이중언어교육
용지초등학교	다양성 교육을 통한 진로교육		
	안천초등학교	다문화 이해 및 체험교육, 다문화 함께하기	

구분	급별	학교명	주요 운영 프로그램
		계북초등학교	고사리인형극, 다문화 이해주간, 다문화 음식축제
		관촌초등학교	비교과연계 다문화교육
		순창초등학교	다문화가정 동아리 운영 및 다문화이해프로그램 운영
		동계초등학교	다꿈프로젝트수업 및 이중언어교육
		흥덕초등학교	하나되는 다꿈 어울림 교육
연구학교	초	군산구암초등학교	디딤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더딤 없는 다꿈교육 실현
다꿈터학교 (다꿈교육특 구 — 순창 · 장수 · 임실 · 진안)	고	순창고등학교	오순도순 다꿈터
		복흥중학교	다함께 다같이
	중	순창북중학교	문화산책으로 우리언어역사알기
		장수중학교	어울림 세상속으로
		천천중학교	다문화이해증진
		관촌중학교	도란도란 함께
	용담중학교	다문화 속으로	
	초	팔덕초등학교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다꿈학교
		복흥초등학교	존중과 자율로 성장하는 다꿈터
		순창초등학교	함께 나누는 맛과 멋
		장수초등학교	더 넓게, 더 깊이 이해하는 다꿈터
		수남초등학교	나를 사랑하고 너를 아껴주는 다꿈터
		산서초등학교	나나우리
		장수초등학교	꿈담이들의 학생자율동아리
임실기림초등학교		모두가 함께하는 다꿈터	
오수초등학교		더불어 살아가는 오수 다꿈터	
임실초등학교		화목하고 차별없는 학교만들기	
신평초등학교		파랑새, 꿈을 디자인하는 다꿈터	
동향초등학교		사랑·보람·행복을 여는 동향다꿈터	
백운초등학교		행복한 다꿈 가족 캠프	
주천초등학교		함께라서 행복한 주천다꿈터	
진안초등학교		배려와 존중의 어울림	
오천초등학교		어우렁 더우렁	
진안중앙초등학교		함께해서 행복한 우리	
다꿈 사랑방 학교	중	전주근영중학교	다꿈사랑방학교
		성당중학교	다함께 꿈을 키워가는 행복한 성당 사랑방학교
		황등중학교	문화품격, 더불어 함께 행복점프!
		안천중학교	안천에서 함께 꾸는 다꿈
	초	순창중학교	독서활동을 통한 문화이해 및 역량강화
		고창남초등학교	별솔마당과 함께하는 문화의 장
		전주덕일초등학교	다꿈사랑방학교
		전주반월초등학교	다꿈사랑방학교
		전주삼천초등학교	다꿈사랑방학교
		전주서문초등학교	다꿈사랑방학교
전주서원초등학교	다꿈사랑방학교		
전주송원초등학교	다꿈사랑방학교		

구분	급별	학교명	주요 운영 프로그램
		군산산북초등학교	산북 다꿈 다사랑
		소룡초등학교	소룡 다꿈 사랑방
		회현초등학교	다꿈사랑방학교
		군산서해초등학교	다꿈사랑방학교
		새만금초등학교	다꿈사랑방학교
		다송초등학교	다꿈사랑방학교
		성당초등학교	나눔으로 퍼지는 다꿈향기
		여산초등학교	다꿈사랑방학교
		이리동초등학교	더불어 살아가는 다꿈 행복 프로그램 운영
		영원초등학교	다꿈사랑방학교
		감곡초등학교	다꿈사랑방학교
		입암초등학교	다꿈사랑방학교
		소성초등학교	다꿈사랑방학교
		고부초등학교	다꿈사랑방학교
		남원교룡초등학교	함께 나누는 행복, 함께 나누는 기쁨
		운봉초등학교	함께 어울려 꿈을 키워가는 행복한 우리들
		인월초등학교	함께여서 행복한 우리
		공덕초등학교	다꿈사랑방학교
		김제중앙초등학교	다꿈사랑방학교
		초	종정초등학교
	김제초등학교		다꿈사랑방학교
	대덕초등학교		우리는 지구촌 가족
	봉동초등학교		다함께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이서초등학교		다꿈사랑방학교 "이서 다누리"
	화산초등학교		함께가는 어깨동무 학교
	마령초등학교		마령다꿈사랑방
	무주초등학교		달라서 즐거운 우리, 함께하는 행복 만들기
	무주중앙초등학교		다꿈 나꿈
	설천초등학교		해피투게더
	천천초등학교		2018 천천 다꿈사랑방학교
	범암초등학교		다름에서 어울림으로
	갈담초등학교		다꿈! JOB끼!
	삼계초등학교		함께 해요~ 함께 뛰어요~
	금과초등학교		너와 나의 꿈이 자라는 다꿈배움터
	인계초등학교		우리는 하나! 오순도순 인계 다꿈사랑방
	공음초등학교	너 나 우리 다꿈	
선동초등학교	꿈과 희망 가득한 부채울 다꿈사랑방학교		
성송초등학교	별향솔빛 다꿈사랑방학교		
변산초등학교	다꿈사랑방학교		
부안동초등학교	다양한 꿈, 다같이 가치있는 우리		
영전초등학교	사랑으로 하나되는 영전 가족		

나. 사례조사 : 주요 사업내용 및 종사자 인터뷰

1) 14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2018년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사업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정책과제는 5가지 영역 20개 과제임(제2장 3절 참고). 2차 기본계획까지와는 달리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한국어 및 한국생활 적응 지원은 중도입국청소년에 집중하고 청소년기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강화 지원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소관 사업이 더 중심에 놓여있음. 이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선별적, 분리적 접근보다 학교를 통한 통합적 접근을 채택하였기 때문임.
- 3-1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은 다재다능 프로그램(부모-자녀 관계 향상, 사회성 발달, 진로코치 등),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CYS-Net을 통한 위기다문화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중심임.
- 3-2의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은 기초학습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과 방문교육, 이중언어교육, 글로벌브릿지 사업이 중심임.
- 3-3의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다문화학생 진로체험처 지속 발굴, 학교에서의 진로 지도 및 교육 강화, 폴리텍 다솜학교 지원 사업이 중심이며 주로 교육부 소관 정책과제들임.
- 3-4의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은 레인보우스쿨 확대 및 운영 다양화, 중도입국자녀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프로그램, 공교육 진입 지원, 내일이룸학교 운영 등이 중심이며, 이 역시 교육부 소관 정책과제가 더 많음.
- 4-2의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는 학교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이 이주배경청소년에 해당하는 정책 과제임.
- 따라서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독자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3-1-1.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다재다능), 3-1-2. 청소년기 자녀 및 부모 상담 지원 강화. 3-1-4. 자녀 발달주기별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중에서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 3-2-2.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중에서 방문교육 서비스 강화, 3-4-3. 중도입국자녀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서

상담 및 사례관리 정도임.

- 14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8년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 진로지원(다재다능 프로그램), 둘째, 학습 및 이중언어 지원, 셋째, 심리·정서적 안녕 및 관계성 증진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지원 사업은 다재다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로설계 상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직업체험캠프가 기본 프로그램으로 실시되었음.
 - 진행된 세부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개인별 진로설계 프로그램과 체험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대부분의 센터에서 참여자를 초등학생으로 제한하거나(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중고생을 포함하더라도 초등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김제시, 고창군, 무주군, 장수군의 경우 중고생의 참여비율이 더 높긴 하지만 초등학생과 중고생의 진로설계 및 체험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같이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이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수준이 초등학생에 맞춰지기 쉽기 때문임. 실제로 진로직업체험처가 잡월드나 테마파크, 드론, 제과제빵 등 자신의 선호가 아니면 일회적 체험에 그칠 뿐 장기적인 진로전망으로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음. 초등학생의 경우 놀이와 체험이 결합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자신의 잠재력, 선호, 가치관을 곱씹는 시간도 필요하고, 직업 이전에 노동의 의미,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과 노동조건,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교육과 학습도 필요하며,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전에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떤 세상이 되길 바라는가'와 같은 사회 전망을 토의하고 성찰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함. 이러한 숙고들이 무르익는 가운데 선호하는 진로와 연관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임.

〈표 3-36〉 전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청소년 진로지원 사업실적(2018년)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주요내용	총 참여자 수		
					계 (모집 정원)	성별	학년
군산시	2018년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사업	·청소년의 직업능력 및 사회적응력 향상 ·실질적인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	2018.4 ~ 11월	-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 직업체험캠프 - 부모교육	42	남 24 여 18	초 38 중 4
익산시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사업 (드림 스케치)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실질 적인 진로·직업체험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하여 올바 른 진로직업관을 형성하 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 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2018.1 ~12월	- 사전검사 실시 - 진로설계 상담(개인) - 심리정서 지원(부모- 자녀상담) - 진로직업체험(한국잡 월드, 쇼콜라티에) - 진로캠프(진로특강, 진로체험활동: 가상 항공체험, 태양관측, 화장품 제작, 119 안 전체험 등)	63	남 25 여 38	초 58 중 4 고 1
정읍시	다문화가족자 녀성장지원사 업-미래설계 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과 교육 취 업분야에 걸쳐 IT 컴퓨터 의 필수적인 부분이 확산 됨에 따라 코딩을 공부	2018.6 ~7월	EQ두이노 로봇코딩 교실(5회)	93 (15)	남 40 여 53	초등 93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사업	자신의 적성, 흥미, 성격 등 특성을 이해하고 급변 하는 직업세계의 정보를 통하여 스스로의 진로를 설계	2018.5 -9월	- 진로탐색프로그램('난 할 수 있어' 3회) - 직업현장체험(스포츠 클라이밍, 제과제빵 4회) - 진로성장체험캠프, - 지식탐양프로그램	297 (10)	남 140 여 157	초등 297
김제시	진로 나침반	청소년 진로지원	2018.2 ~11월	- 진로탐색검사 - 직업체험 - 문화활동	42	남 12 여 30	초 13 중 29
남원시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사업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전 진로·직업선호도 조사결 과에 따른 유형별 진로설 계 및 맞춤형 진로교육 -중도입국자녀, 학교이탈 자녀 등에 대한 언어교 육, 진로지도, 심리·정서 상담, 직업능력 및 사회 적응력 향상 지원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발달을 도모	2018.1 ~12월	- 심리검사(NEO, 홀랜 드, 프레디저 검사) - 부모·자녀교육 - 집단상담 - 직업체험	42	남 18 여 24	초 42 (비다 문화 6)
완	2018년	다문화 및 중도입국 자녀	2018.6	- 직업 심리검사	20	남 4	초 8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주요내용	총 참여자 수		
					계 (모집 정원)	성별	학년
주 군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사업	부모의 심리·정서를 지원하여 건강한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	~12월	- 직업체험 - 부모상담 - 진로캠프		여 16	중 4 기타8
진 안 군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사업	내면의 장점을 발굴, 자신에게 맞는 꿈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제시	2018.8 ~12월	- 관계형성 감정에 대해 알아보기 - 꿈을 위한 세상의 관점갖기 - 긍정적 생각과 마인드 갖기 - 나의 강점 찾기 - 꿈 보드 만들기	10		초 10
고 창 군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다문화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응력 향상과 올바른 성장발달을 도모	2018.4 ~ 6월	- 부모님 설명회 1회 - 진로적성검사 1회 - 자기탐색과 이해활동 3회 - 진로캠프(1박2일) - 진로체험 및 활동9회 - 포트폴리오만들기2회	10	남 3 여 7	초 1 중 9
장 수 군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하여 올바른 진로·직업관을 형성하기 위함.	2018년 3~12 월	진로적성검사, 진로체험 등	12	남1 여11	초5 중7
무 주 군	청소년진로지 원사업	다문화가족자녀에 대한 종합적인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도모	2018.5 ~ 11월	- 전문 유형검사(프레디저 검사)를 이용한 진로 설계 프로그램 - 학부모교육프로그램 - 직업체험활동 실시 - 1박 2일 청소년진로 캠프 운영	12명	남 6 여 6	초등 5 중등 5 고등 2
임 실 군	다문화 청소년진로 지원	다문화 청소년의 올바른 직업관 확립 및 적성 찾기	2018.4 -8월	- 사전 진로 검사 - 전문가 특강 및 영역별 체험교육 - 현장 직업체험 및 진로캠프	10	남 5명 여 5명	초 10
순 창 군	청소년진로지 원사업	청소년 진로탐색, 진로체험 등 진로지원	2018.6 ~9월	진로검사 및 진로교육진로체험 진로캠프 등	10	남7 여3	초10

○ 두 번째 영역은 학습 및 이중언어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의 언어 및 학습 역량강

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익산, 진안, 고창, 장수군 4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되었음. 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학습지원 사업만 실시하였고, 진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중언어교육을, 장수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학습 지원과 이중언어지원사업 모두 시행하고 있었음.

- 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장수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자체 재원으로 가정방문 학습지 혹은 학원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음. 학교 적응 수준이 낮은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학업에 대한 열망은 많으나 정보가 부족하고 학습지나 학원에 보낼 여력이 없다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양계민, 2017: 72)를 고려하면, 학습지나 학원 비용 지원 사업은 사교육 의존을 기정사실화하는 문제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학습지 비용 지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장수군의 학습지, 학원 비용 지원은 중학생까지 포괄하고 있음. 고창군과 장수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마을학당을 운영하여 초등학생의 학습지도를 실시하였음. 다문화마을학당은 2013년 전라북도가 국제아동권리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한 이중언어지원 사업임.
- 학습 지원이 초등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함. 중고생에 대한 학습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함. 이때 앞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멘토나 방문교사와 같이 인적 자원을 매칭해 줄 것인지, 청소년의 선택권이 일정 정도 허용되도록 현금 지원을 할 것인지 정책 수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함. 인적 자원을 지원할 경우 멘토나 방문교사의 역할과 자질이 충분히 보증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이중언어 지원 사업의 경우, 제2차 다문화가족기본계획에서는 교육부의 학교에서의 이중언어 교육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중언어 자체를 교육하기보다 가족 내 이중언어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7). 제3차 다문화가족기본계획에서도 이중언어 자체를 교육하는 사업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중언어

가능 청소년의 역량 발휘,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음.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14개 시군 센터 중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은 진안과 장수군 센터 2개소밖에 시행하지 않았음. 진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글로벌마을학당을 통해 이중언어 교육사업을, 장수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일본어, 베트남어, 중국어반을 별도로 운영하여 제 2외국어 수준의 언어교육을 실시하였음. 두 센터 모두 초등학생 참여자가 대부분이며 장수군 센터의 경우 일본어반에 중학생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학교 이중언어 교육이 이주배경청소년의 배경과 무관하게 강사가 할 수 있는 언어에 좌우되거나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또 다른 학습 부담으로 느껴지는 등의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이중언어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가정이나 마을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음. 큰 원칙은 기존대로 교육부가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중언어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이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중언어 교육을 학교 전담사업으로 고정할 것이 아니라 학교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예컨대, 학교에서 다양한 언어에 대한 교육사업이 어려울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거나 학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중언어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이렇게 하면 이주배경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청소년 모두에 대한 통합교육 방식으로 이중언어 교육이 진행될 수 있으며 사업의 중복성을 피할 수 있음.

〈표 3-37〉 전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청소년 학습 및 이중언어지원 사업실적(2018년)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주요내용	총 참여자 수		
					계 (모집)	성별	학년
익산시	다문화가족방문학습지사업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 사전레벨 테스트를 진행하고 최대 12개월간 학습지 비용 지원	2018.10월~2019.9월	한국어 가정방문 학습지 지원 사업	10		초등10
진안군	글로벌마을학당 운영	- 한국어기초능력이 부족한 초등저학년다문화자녀나 중도입국자녀 한국어지원 - 다문화 일반자녀의 다문화이해교육 - 이중언어교육(베트남, 중국, 일본, 영어) - ITQ한글컴퓨터교육	2018.3~12월	- 한국어교육 진행 - 다문화이해교육(일본문화)진행 - 이중언어교육 진행 - 컴퓨터교육 진행	77		초 74 중 1 기타2
고창군	다문화마을학당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녀들에게 자녀학습고침을 제공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018.3~11월	- 자녀학당을 개설하여 일대일 또는 2대1 수업으로 자녀들의 학업성적향상 및 자신감 증진,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줌.	22	남 15 여 7	초등 22
장수군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사업	다문화 자녀들의 학습에 대한 자신감 향상을 위한 긍정적인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함.	2018년 6~12월	- 다문화자녀 학원/학습비지원 (자자체 사업)	37명	남21 여16	초29 중 8
	다문화마을학당 자녀학당	다문화 자녀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건전한 학교생활 지원.	2018년 3~12월	- 자녀학습지도	17명	남11 여6	초17
	베트남어 아동반	다문화 및 비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습득으로 언어에 대한 자신감 및 성취감 향상	2018년 3~12월	베트남어 교육	4		초등4
	일본어 이중언어학당	일본어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이중언어 능력 및 자신감 향상, 다문화 감수성 향상	2018년 3~11월	일본어 교육	3		초3
	다문화자녀 일본어반	참여아동의 언어습득에 대한 자신감 향상 및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여 다문화 감수성 향상.	2018년 4~6월	일본어 교육	8	남1 여7	초 5 중 3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주요내용	총 참여자 수		
				계 (모집)	성별	학년
다문화자녀 중국어반	참여아동의 언어습득에 대한 자신감 향상 및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여 다문화 감수성 향상.	2018년 4~7월	중국어교육	5	남4 여1	초 5

- 세 번째 영역은 심리정서적 안녕 및 관계성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가족관계 증진, 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 문화예술 활동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들로 진행되었음.
-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기본사업으로 진행해오던 것으로 부모 자녀 동반 교육이나 체험교실 등 집합교육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사업은 두 가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두 이에 해당함. 대부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공예를 하거나 견학을 함께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음. 부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문화 체험교육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행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이들 사업은 모두 다문화가정의 초등학교 자녀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었고 프로그램의 내용면에서도 한국문화 체험이 중심이어서 다문화 가정의 초기 정착에 필요한 사업들로 보임. 따라서 신규 정착한 결혼이민자나 초기 적응단계에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선별적으로 실시한다면 효율적인 프로그램이겠으나 일부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도 다수 참여해 있는 등 다문화가족의 발달단계와 무관하게 실시되는 경우도 발견됨. 이 경우 사업의 효과성은 물론 프로그램의 획일성이나 중복성의 문제들이 개선되기 어려움.
- 체험 위주의 부모자녀 동반 교육이 초기 적응단계 가족에 효과적이라면, 다재다능 프로그램의 관계증진 및 심리정서 지원 사업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 효과적인 사업임. 김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진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재다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족 및 자녀의 심리

정서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김제시 센터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교육을 4회에 걸쳐 진행하였고, 진안군 센터는 놀이미술치료 및 부모 상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심리정서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음. 아쉬운 것은 두 센터의 사업 모두 초등학생으로만 참여자가 구성된 것임.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심리정서 지원이 청소년 관련 전문가나 전문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가족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생 자녀로 사업의 영역을 더 확장하는 것이 필요함.

- 이주배경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다재다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인성, 정체성,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과 청소년의 또래관계 및 사회성, 역량 향상을 추구하는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분됨.
 - 청소년 대상 다재다능 프로그램은 남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순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실시하였는데 남원시 센터는 집단상담과 요리 활동으로 구성된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순창군 센터는 스피치 교육과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청소년 또래문화 및 관계성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김제시 센터와 고창군 센터, 부안군 센터는 스포츠 교실(태권도, 축구)을 운영하였고,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은 음악 교실 및 활동을 진행하였음. 스포츠 교실은 모두 초등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이고 이주배경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음악 활동은 비이주배경청소년과 함께 진행하거나(진안군 센터), 초등학생과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들을 분리하여 진행하였음(장수군, 순창군 센터). 장수군 센터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마을합창단을 조직하여 연습과 활동을 지원하였고 중학생 이상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잡지 제작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을 지원하였음. 순창군 센터는 중학생 중심의 청소년 밴드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였음.
 - 청소년들의 발달단계를 구분하여 단계에 부합하는 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추진 방식임. 장수군 센터와 순창군 센터의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은 전북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8년에 실시한 청소년 대상 사업 중 유일하게 중학생 이상에 초점을 맞춘 사업임.
 - 이주배경청소년 활동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

다 지역의 청소년 활동 지원 정책 내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역의 청소년 지원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청소년 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이주배경 청소년으로만 제한하지 않는 개방적 접근이 필요함.

〈표 3-38〉 전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청소년 심리적 안녕관계성 증진 사업실적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주요내용	총 참여자 수			
					계 (모집)	성별	학년	
전 주 시	14개 센터	다문화 청소년 성장지원-글로벌 친한친구 캠프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엄마 나라 문화 탐방과 우호협력 지역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베트남 이해 증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기회 제공	2018.12.	3박 5일간 베트남 호치민 및 덕락성 방문	28		(베트남 다문화 가정) 초등고학년 28명
	우리아이 마음을 읽는 행복한 소통	자녀 감정대처법을 알아보고 다육이 화분 만들기 진행	2018.3.24	다육이 화분 만들기	23	남10 여13	초23	
	하나된 세계, 아름다운 동행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제고 등 붐 조성	2018.2.28	다문화가족 초청 콘서트,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시설물 견학 및 체험 등	11	남 6 여 5	초 9 중 2	
	우리아이의 소중한 건강한 성&자녀 떡케익 만들기	어렵고 다루기 힘든 성교육진행과 동시에 자녀 만들기 진행	2018.4.21	떡케익 만들기	22	남 10 여 12	초 22	
	서울랜드로 떠나요	문화체험을 통한 한국사 회적응력 향상	2018.7.6	서울랜드 탐방	11	남 9 여 2	초 10 중 1	
	방학전부모 교육, 여름방학울부탁해 &자녀동전 지갑만들기	방학전부모교육 진행과 동시에 자녀 만들기 진행	2018.7.28	동전지갑 만들기	27	남 8 여 18	초 27	
	역사의 숨결 청남대 나들이	부모-자녀 관계향상을 위한 나들이	2018.5.12	청남대 탐방	21	남 9 여 12	초 21	
	뮤지컬 흥도	한국의 한을 담은 뮤지컬을 관람하고 한국사회 적	2018.5.25	뮤지컬 흥도 관람	8	남 3 여 5	초 7 중 1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주요내용	총 참여자 수		
					계 (모집)	성별	학년
		응기회를 넓힌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해피맘,해피 대디	한부모교육과 자녀 만들 기 진행	2018.6. 9.	에코백만들기 비누꽃바구니 만들기	14	남 3 여 11	초 14
정읍 시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 원-부모자 녀 관계향상 프로그램 '행복 jump!'	이동청소년기 부모자녀의 상호이해와 관계 향상을 기 초로 가족의 갈등을 예방	2018.5 ~6월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기술습득(4회)	101 (자녀 +부모 30명)	남 40 여 61	초101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 원-사회성 발달프로그 램	드론을 제작하고 조정하 는 과정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소그룹 활동을 통한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 키고 사회적응력을 높임	2018.7 -11월	드론초급비행과정	99 (15)	남 40 여 59	초 99
김제 시	우리고장 김제 쌀이야기	우리고장의 역사적 사실 에 대한 종합적 사고 기 르기	2018.7 ~9월	- 쌀 수탈 역사 이해 - 우리 고장 역사현 장 탐방	13	남 3 여 10	초 12 중 1
	태권도학교	다문화자녀와 일반자녀가 함께 배우는 태권도를 통 한 또래관계 향상 및 건 강한 성장 지원	2018.1 ~12월	- 태권도 배우기 - 다문화 이해교육	31	남 17 여 14	초 30 고 1
남원 시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 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정체성 회복, 사회성 리 더싱 개발을 위한 프로그 램 제공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부모 자녀관계 향상에 기여	2018.8 -12월	- 초기면접 - 부모자녀관계향상 (집단상담) - 사회성발달(집단상 담, 요리활동) - 미래설계(직업체 험)	13	남 3 여 10	초 13
진안 군	문화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자녀 및 비다 문화자녀들이 켄베체험을 통해 서로 어울리고 소통 하며 유대감 형성 및 또 래관계 증진에 기여함으 로서 문화매개체를 통한 긍정적인 사고와 문화감 수성을 향상기회 제공	2018.3 ~12월	- 아프리카 타악기 켄베 교육 진행	36		초 35 기타 1
	엄마나라	모국인 어머니 나라를 방	2018	- 베트남 다문화가	15	남6	초 14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주요내용	총 참여자 수		
					계 (모집)	성별	학년
	문화 바로알기 지원사업	문화어 문화, 역사 차이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고취의 기회로 올바른 자아 정체성 확립과 글로벌 인재 양성의 초석 마련	3월	족자녀 대상 엄마 나라 방문		여9	중 1
	다문화가족 자녀 심리정서 지원사업	독서·놀이·음악·미술치료 등 심리정서적 프로그램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감정이나 억압된 내면세계를 표현하게 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내면에 쌓였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여 자아존중감 향상과 긍정적 자아를 발견해 갈수 있도록 지원	2018.9 ~12월	- 사전검사를 통한 놀이, 미술치료 진행 - 부모상담 진행	12명	남6 여6	초 12
고 창 군	모로모로족 구교실	다양한 체육활동과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게임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018.3 ~11월	- 놀이축구 및 프로그램운영 - 축구경기관람(2회) - 친선경기(1회) - 다문화축구대회참가(1회) - 워크샵(1회)	19	남 18 여 1	초 19
장 수 군	물부랭이 마을 어린이 합창단	음악활동을 통해 밝고 긍정적인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함.	2018년 3~12 월	- 합창연습, 공연, 봉사활동, 문화공 연관람 등	21명		초 21
	물부랭이 마을 청소년의 fun fun한 잡지만들기 프로그램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통한 또래관계 향상	2018년 3~12월	- 잡지제작교육/잡 지제작활동/문화 활동 등	9명	남1 여8	중 9
	우리함께 놀자 집단놀이프 로그램	집단놀이활동 참여를 통해 서로 질서와 규칙, 배려심을 배우며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	2018년 7~10 월	집단놀이프로그램	16	남8 여8	초 16
순 창 군	다문화가정 자녀 인성·정체성 스피치야카 데미	다문화가정 청소년 인성 교육 및 자신감 향상	2018.8. ~10월	- 청소년 스피치 교육 - 인성 정체성 교육 (태권체조)	31	남20 여11	초 29 중 2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주요내용	총 참여자 수		
					계 (모집)	성별	학년
	통기타청소 년밴드	문화지원을 통한 정서함 양. 지역민과의 소통화합	2018.3 ~12월	성인통기타 및 청 소년밴드반 운영	7	여7	초 2 중 5
부 안 관	2018년 어울림 태권도 교실	체육교육을 매개로 건 전한 가족관계 형성 및 다문화자녀의 전인 적 발달 도모	2018.1 ~12월	태권도 교육	24	남20 여 4	초24
	2017~2018 년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 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 착을 위한 가족관계향상	2017~ 2018	한국문화 체험 교육	10	남51 여49	초10

2) 전북 청소년 시설의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사업 현황

- 국가 정책사업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 3개소(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부안군청소년문화의집, 전주 완산청소년문화의집)와 이주배경청소년 비율이 높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개소(완주, 진안, 무주, 부안)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사업과 효과, 타기관과의 연계사업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음.
-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에서 실시하는 방과후아카데미는 중등부 전용이고, 부안군청소년문화의집의 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반, 중등반 각각 1개반씩 구성된 통합형임. 전주 완산청소년문화의집의 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생으로만 반이 구성되었음.

① 이주배경청소년의 참여

- 청소년 수련시설들은 ‘방과 후 아카데미’ 참여자 기준에 이주배경청소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업을 홍보하고 참가 신청 안내를 요청하고 있음.
-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은 참여하는 중학생 40명 중 5명이 이주배경청소년이며, 부안군청소년문화의집은 참여자의 절반이 이주배경청소년으로 참여율이 높음. 전주 완산청소년문화의집은 참여하는 초등학생 40명 중 2명이 이주배경청소년임.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용가능한 청소년 시설들과 서비스가 적은 군지역의 경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정도가 높은 편이지만, 전주시와 같은 중도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음.

아카데미 사업지침에 다문화가정 아이들, 다자녀가정 아이들, 조손가정 아이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방과후 아카데미에 넣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매뉴얼 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어요(부안군청소년문화의집)

다문화 대상 아이들이 있는데, 다문화 청소년들은 복지관이나 구청이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방과후아카데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아이가 많지는 않아요. 평균적으로. 저희 기관에 참여하는 두 명의 다문화 아이들은 그런 활동은 없었던 아이들에게요. 다른 기관에서 혜택이 없었던 아이들에게요(전주 완산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는 대부분 학교를 통해 연계되어 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 지역의 청소년 유관기관이나 종사자들이 상담을 연계해 오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음. 이주배경청소년이 개별적으로 참여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청소년 시설보다는 드림스타트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종사자들은 파악하고 있었음.

저희가 만 9세부터가 저희 대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다문화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구요. 저희가 집단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에 그 안에 섞여있고 이런 정도이지 따로, 개인으로 오는게 한 해 정도에 열 건 밑으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드림스타트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 다문화 아이들이 좀 있고...(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기관의 목적도 상이하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구별짓기 하지 않으려는 의식적 노력이 더 강하고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참여도 낮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시설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들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고민이나 관심도가 낮은 편임.

거의 애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오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거의 학교를 통해서 오는데 학교는 이제 학교폭력이 가장 높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상담받으러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거의 다루는 거죠....이게 어차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근데 이제 저도 그냥 이제 강사를 연계만 해줬고 그 프로그램을, 다문화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연계 사례

-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CYS-Net의 허브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개별 기관

들에서 2차적으로 연계되는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개별 기관 및 학교들의 요청을 받고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을 운용해 주거나 강사를 파견하는 등의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음.

- 청소년 수련시설의 연계 사업은 대부분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지역복지협의회, CYS-Net, 지역돌봄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협의체가 잘 작동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와 주로 연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지역의 다양한 협의체들이 네트워크로 기능하기보다는 각 기관의 이해와 목적이 중시되는 가운데 정보교환의 장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한계를 보였음.
- 부안군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담당자는 1388지원단, 지역돌봄협의체 등에 소속되어 있으며, 지역돌봄협의체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였음. 지역돌봄협의체의 정기 회의를 통해 사례 관리나 프로그램 기획, 강사 섭외 등에 대해 정보를 주고받고 회의 이후 각자의 기관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실행한다고 함. 1388지원단, 지역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를 통해 도움이 조직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종사자들이 이중삼중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 친분이나 연줄로 도움이 조직되고 있었음.
- 이렇듯 협의체가 네트워크 기능을 하기보다 정보교환의 장으로 머물러 있고 자원의 교환이 협의체에 소속된 구성원들 간의 다중 멤버십과 개인적 친분에 기반하여 기관별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중복, 사업의 중복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 대상자 및 사업 중복 문제는 부안군뿐만 아니라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도 개선해야 할 문제로 강조하였음. 그러나 원인에 대한 진단은 상이한데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는 시설 및 사업의 평가기준 및 사업 규모가 도시와 농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였음. 즉 인구가 적어서 참여자 규모가 도시와 동일하기 어려운데 사업규모 및 예산이 똑같이 책정되기 때문에 한 명의 대상자가 여러 기관에 불려다니는 악순환이 지속된다고 지적함.
-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 연계를 활발하게 한 것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담당자는 설명함.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안

심귀가 서비스, 가까운 의경 부대와의 학습 멘토링 사업,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복지관 관장 등을 진로특강 강사로 섭외하는 등의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러한 연계사업 참여자들에 대해 청소년들이 선물이나 전역식 등으로 보답하면서 연계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에 방과후아카데미를 널리 알리는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었음. 또한, 지역사회 연계가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낙인 이미지를 벗는데도 일조함. 그러나 완주군의 지역사회 연계는 담당자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정보수집 노력에 기반한 것이어서 담당자가 바뀌면 언제든지 약화될 가능성도 있음.

모집을 하고 연초에 그런 걸 보면 '저거 못사는 애들 가는 거잖아요' 애들 스스로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호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들어오면서도 자신감이 없이 들어와요. 엄마가 다니라고 하면 다니긴 하는데 주변에서도 방과후 다닌다고 하면 막 코피노 어찌고저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미지를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지역에서 연계를 많이 하다보니까 입소문을 타고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이미지는 거의 없어졌어요(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 한편,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청소년 시설이 연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랐음. 외부전문기관에 인도하는 역할만 한 경우는 연계에 실패하기 쉬움.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사례는 연계 및 네트워킹이 수요자의 이익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한 모범사례로 평가될만함.
-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정신건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정신건강 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자살충동, 폭력성 등 정신건강 상태가 고위험군인 참여자가 발견되어 치료 프로그램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정신건강센터로 인계할 경우 그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 치료가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파악하고 그 한 명에게 필요한 치료 프로그램을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참가자 전체가 다 같이 이수하도록 하였음.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청소년의 이해를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유연한 대처로 판단됨.
-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이 지역의 자원들을 개인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활용하는 수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협의체들이 네트워크로 기능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의 가용한 자원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 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군 차원에 국한된 자원 정보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움.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자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만 의존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이를 지적한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인터뷰 사례는 적어도 전라북도 차원에서의 정보제공 필요를 확인시켜 줌.

무주교육청에서 무주 자체에 직업체험이나 이런 거 뭐가 가능한지, 전화번호가 뭔지, 수용인원까지 해서 다 모은 책자가 하나 있거든요. 자율학기를 대비 해서.. 근데 그때 교육받은 사람들한테만 나눠줬었는데... 활용도는 한 20% 정도?... 큰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책자는 만들게 되었는데 실재로는 진로 체험이라던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무주에 구성되어 있진 않는거죠. 예를 들면 가게, 조그맣게 가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일단 거기에 등록되어 있지 만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소라던지 그런게 갖춰져있지 않고, 그 분들이 학교로 오셔서 강의를 하는 그런 스타일로 가다보니까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현장에서 체험하는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훨씬 더 효과가 좋을텐데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듯이 하는게 아주 제한적이거든요(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③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킹 방안에 대한 의견

-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선별적 접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전체 청소년 지원 사업 내에서 통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저는 다문화 프로그램도요, 그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보다 이렇게 일반 아이들을 같이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울려서 해야 더 효과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방과 후 아카데미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전혀 애들이 다르게 생각을 안 하니까. 다 똑같아요. 그냥 섞여서 같이 활동을 하니까(전주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다문화 아이들이 일반, 이 아이들만 데리고 뭘 프로그램을 하네, 그런 건 할 수가 없고, 일반 아이들과 같이 해서 같이 어울리게 해야 해요. 다문화라고 그 일부만 하면 안 돼요. 개네들만 갖고 뭘 하기에는, 학교도 좀 그렇고 사회에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또 따로 이렇게 보는, 또 이중적인 잣대로 보니까, 너넨 같은 한국인이지만 다문화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애들은 특히 더 그렇게 생각하겠죠(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그러나 네트워크의 허브가 청소년 시설이어야 하는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하였음. 전체 인터뷰를 종합하면 두 가지의 안이 제시되었는데, 첫째는 기관 중심보다 주제와 기능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허브를 지정하기보다 네트워크의 기능별로 주도 기관을 정하자는 것임. 두 번째는 네트워크 허브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담당하되 허브 역할을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파견 등의 지원 역할로 규정하고 청소년 시설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임.
- 한편, 대부분의 청소년 시설에서 어려움으로 꼽은 것이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이었음. 지원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청소년들을 찾는 것이 어려운 난제라고 지적하였음. 이는 유사한 사업이 난립해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청소년 지원사업이 취약계층 청소년 위주의 선별적 접근을 취하고 있어 대상자의 중복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저소득층에 국한되었던 기준을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맞벌이 가구로 확대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취약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1차적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은 가구형태의 확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참여자들은 대상자의 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이와 더불어 지역의 청소년 및 서비스 제공 실태를 모든 관련 기관들이 공유하고 정보를 공동생산할 수 있는 일원화된 사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안되었음. 예컨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개별 기관들의 연계와 아웃리치만으로는 대상자 발굴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임. 타 기관에서 연계되어 오는 경우는 문제가 풀을 대로 풀아 사실상 긴급치료 및 구조가 필요한 수준의 심각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함. 상담과 프로그램으로 접근가능한 수준의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는 개별적 발굴을 넘어서서 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일괄적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임. 이 경우 서비스의 중복 문제도 해결가능하다고 강조하였음.

저번에 사례 회의를 한 게, 복지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000 이름을 치면 부모들이 짝 나와가지고 다문화면 다문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각자 시스템이 틀려요. 상담 시스템, 기초수급자 관리 시스템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발견이 되면 그 아이가 기초수급자인지 뭔지를 다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뜻을 모은 게 뭐였냐면 사회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자. 이 아이가 뭘 받고 있는지 어떤지... 기관 아이디를 주면 기관에서 사례 등록을 해주는 거죠. 우리 센터에 방문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했고, 어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떠 어떤 게 개선이 됐다. 다문화도 마찬가지로 일반 학생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이나 그런 받는 그 담당자도 아, 아이는 이렇게 케어를 받고 있구나, 그게 일원화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이루어져 있다 하면 거기에서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메일로라든지, 청소년의 상담 요망이라든지, 상담 기관에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달아주면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 시스템이에요(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4. 소결

가. 전북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비율) 2017년 전라북도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2.7%로 전국 평균 3.6%보다 낮으나, 외국인주민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비율은 21.9%로 전국 평균 17.7%보다 높음.
 - 장수군,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무주군, 남원시 7개 시군 지역은 거주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고, 완주군, 김제시, 정읍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비율이 낮음.
-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전북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은 베트남이 38.0%, 중국 20.1%로 이 2개 국가가 결혼이민자 출신국을 대표하고 있음.
 - 14개 시군 모두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고,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부안 지역은 중국이,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고창군은 일본이, 김제시와 무주군은 필리핀이, 임실은 중국과 캄보디아가 2, 3위 순위인 것으로 나타남. 그 외 지역은 베트남과 중국으로 출신국이 이원화되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2015년 전북의 다문화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수급가구 비율은 9.6%로 우리나라 전체, 다문화가족 전체 수급가구 비율보다 높음. 최저생계비 이하 다문화가족 중 비수급가구 비율은 25.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설동훈 외, 2015).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진안군, 장수군, 완주군, 부안군은 수급가구 비율이 10% 이상으로 높은 지역임. 군산, 전주, 남원, 김제, 정읍, 완주는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비수급 가구의 비율이 27% 이상으로 높아 다문화가족의 실제 소득수준과 제도적 수혜 간의 격차가 큰 지역으로 추정됨.
- (이주배경청소년 규모) 2016년 11월 현재 3,088명으로 전체 청소년 인구의 1.5%를 차지함.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의 95%는 국내출생자임.
 - 진안, 장수, 순창, 임실군은 이주배경청소년 비율이 4.5~5.8%로 높은 지역이고, 그 외 군 지역 대부분이 3.1~3.6%로 시 지역보다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율이 높음.
 - 순창, 진안, 고창, 장수군은 국내출생 청소년이 99% 이상임.

나. 이주배경청소년의 서비스 만족도 및 욕구

- (이중언어) 응답자의 60.1%가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로는 영어가 56.9%가 가장 높고, 중국어 29.8%, 베트남어 23.9%, 일본어 15.4%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사용가능 외국어가 가족의 이중언어 환경보다 학교 외국어교육에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학업)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자신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잘하는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38.2%가 학업수행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그러나 외국출생 청소년과 중학생, 고등학생은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더 높음. 외국출생 청소년들은 책 내용 이해, 교사의 말 이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고, 중학생은 ‘책 내용 이해’, 고등학생은 ‘공부에 대해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음.
- (학교생활)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 만족도는 상당히 높으나, 응답자의 25.3%가 지난 1년간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어 교우 및 교사 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는 사뭇 다른 결과를 보임.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폭력에 순응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결과임. 폭력의 유형은 주로 언어폭력으로 나타났음.
- (여가) 평일 저녁시간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TV나 인터넷게임 등 혼자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극히 낮음.
- (삶의 만족도) 외모, 학교생활, 학업, 가족관계, 친구관계 만족도는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외국출생 청소년, 학령이 높을수록,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만족도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음.
- (현재 고민거리) 53.7%의 청소년들이 현재 고민거리가 있으며, 고민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공부(성적)’가 41.2%로 가장 높고, ‘용돈부족’이 23.6%, ‘진로선택’ 17.9%, ‘친구(우정)’ 문제가 15.2%, ‘외모’ 14.5%의 순으로 나타남. 외국출생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정환경, 학교폭력을

고민거리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령이 높아질수록 공부와 진로선택 고민 응답률이 높음.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경제문제, 용돈부족, 진로선택 고민 응답률이 높음.

- (심리작신체적 안녕)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군지역 거주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다문화 긍정 인식은 부정적임. 또한,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외국 출생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 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낮음. 학령이 높을수록,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긍정적 심리상태의 수준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남.
- (관련 기관/시설 이용경험) 지난 1년간 이주배경청소년들의 74.1%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71.3%가 학교 방과후교실을 이용하였음. 지역아동센터는 47.4%, 청소년 활동시설은 32.6%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1.1%로 이용경험율이 낮음. 군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청소년 시설 이용율이 시지역 청소년들보다 월등히 높고, 학령급별로 청소년 시설 이용율은 큰 변화가 없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과후교실 이용율은 고등학생이 초, 중학생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낮음. 하층 청소년에 비해 중간층 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이용율이 더 높음.
- (지원서비스 수혜경험과 필요성 인식) '다문화'로 받은 서비스 수혜율은 76.3%로 높음. 서비스 유형은 문화체험활동 55.2%, 문화공연 관람 42.2%, 방과후 수업료 지원 33.5%, 진로지원 29.1%, 대학생 멘토링 21.7% 순임. 언어 교육이나 학습지원 서비스 경험율은 10% 대에 머물러 정책적 노력에 비해 서비스 수혜율 자체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어 교육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식함. 가장 필요성 인식이 높은 서비스는 특기적성프로그램이나 실제 수혜경험율은 16.5%로 낮음. 이처럼 서비스 필요성 인식은 높으나 수혜경험율은 낮은 경우는 급식비 지원, 놀이공원 방문, 물질적 지원으로 이 항목들은 청소년들의 요구와 실제 정책이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방과후수업료지원, 놀이공원 방문은 하층보다 중간층 청소년들이 더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고, 물질적 지원과 멘토링, 학습보조 교사 지원은 하층 청소년들의 필요성 인식이 더 높음.

- (향후 원하는 서비스) 놀이공원 방문, 문화공연 관람,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문화체험활동 기회 서비스와 방과후수업료 지원, 학원비 지원, 급식비 지원 등 학교·학업 관련 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 반면 학습보조교사 지원, 대학생 멘토링 등 학습지원 서비스 요구도는 낮음.

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체계 및 사업 현황

1) 관련 시설 현황

- 전라북도의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은 크게 3유형으로 다문화가족 정책의 핵심 추진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 관련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및 상담복지 시설, 그리고 교육부의 다문화 중점학교로 지정된 '다꿈학교'가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14개 시군에 1개소씩 설치·운영되고 있고 위치는 모두 동읍 지역에 있음.
- (청소년 수련시설)은 모두 6가지 종류가 있으나 청소년의 취미, 정서함양, 체험, 교류활동 등의 프로그램 제공이나 그를 위한 공간 제공을 주로 하는 시설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전라북도에는 10개의 청소년수련관, 18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음.
 - 이 역시 시설들이 동읍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면단위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어렵고, 남원시, 진안군, 장수군, 부안군, 임실군은 관련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두 시설 중 하나만 설치되어 있거나 둘 다 없음.
 -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수련관과 시설규모가 달라 공간 대여사업을 하지 않을 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서는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지도사가 아예 없거나 1명만 있는 시설이 대부분임.
 - 한편, 이들 중 18개 시설에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초등 4학년~중학 2학년 중

취약계층의 방과 후 돌봄 및 활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2018년에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하지 않은 지역은 김제시,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임.

- (청소년 상담 및 복지시설)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하여 14개 시군에 각 1개소씩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주요 사업 내용은 상담 및 관련 교육,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고위기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학업중단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꿈드림’ 등이 있음. 전북의 지역아동센터는 285개소(2017년)이며, 주이용자는 초등학교생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서비스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심리 및 정서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상담 서비스와 물리적 지원, 긴급 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자활 및 재활 등 물리적 환경변화와 경제 원조에 중점을 둔 복지 지원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 센터들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상담 서비스에 치중해 있고 복지지원은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보호, 교육, 놀이 등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로, 학교 방과후교실 및 돌봄교실과 달리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아동의 사례관리 기능 수행이라는 차별성을 가짐.
 - 2017년 이용아동은 전북 아동의 4.4%이고, 이용 아동 중 이주배경아동은 3.2%로 청소년 시설 중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이용율이 가장 높은 시설임.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다꿈학교’)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과 전체 학생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을 필수사업으로 하는 ‘다꿈학교’는 총 130개교가 지정되어 있음.
 - 이중 초등학교가 84개교, 중학교가 15개교, 고등학교가 1개교임. 지역별로 적게는 3개교(무주군)에서 많게는 11개교(순창군)가 있고, 이중 다문화교육 특구로 지정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은 다꿈학교가 8~11개로 많음.
- 관련 시설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청소년지도사가 있고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면단위에도 있는 지역은 무주군과 고창군이 나 그 수가 1~2개소에 불과하며, 그 외 시군은 모두 동부와 읍 지역에 관

런 시설들이 다 밀집해 있어 면단위 거주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취약함. 면 지역까지 분산되어 있는 시설은 다꿈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이나 학교는 구성원 이외 타교생을 포함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면단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수행 역할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아동센터와 긴밀한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게 되어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김제시,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일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청소년 사업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청소년 사업 현황

- 전북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비해 사업의 총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중도입국 및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전무한 실정임. 또한, 대부분 초등학생으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중고생 대상의 사업이 매우 부족하고, 중고생이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도 초등학생과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중고생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진행된 사업의 유형은 진로지원, 학습 및 이중언어 지원, 심리정서적 안녕 및 관계성 증진의 3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다재다능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진로지원 사업의 총량이 가장 많고 참여한 중고생의 비율도 높음. 학습 및 이중언어 지원사업은 실시하는 센터가 소수이고 참여 중고생의 수도 적음.
- (진로지원 사업) 대부분 초등학생 위주거나 초중고 통합프로그램 진행으로 발달단계에 부합하는 진로지원이 미흡함. 그 결과 진로직업체험이 놀이 위주의 단순 체험으로 진행되고 있어 중장기 진로전망으로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첫째, 초등학생과 중고생을 분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고생의 경우

체험 교육을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진로설계에 충분한 수고를 들이고 체험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진로지원 사업 내 여러 프로그램에 대해 그때그때 참여자를 모으기보다 처음에 모집한 참여자를 계속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프로그램 운용 상의 개선점 외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 진로지도와 관련한 전문성의 문제임. 현재로서는 청소년의 잠재력 발굴 및 진로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등이 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기존 종사자들이 관련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음. 다문화가족 정책에서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각 센터들은 청소년 정책 전담자를 육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두 번째는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처를 발굴, 확보하는 것임.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과 지자체들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벌이고 있는바, 이들 유관 기구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유기적 연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임.

○ (학습 및 이증언어 지원사업) 청소년 대상의 학습 및 언어 지원 사업은 시행하는 센터가 적고, 운영되는 경우도 초등학교 위주여서 중, 고생 대상의 지원은 매우 부족함. 이는 교육부의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이증언어 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한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으나 지역 현장에서의 사업 실시는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학습 지원의 경우 사업의 중복성이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청소년들에게 유용하다는 인식이 필요함. 따라서 교육부 사업과 별개로 방문교육뿐만 아니라 방학 기간 등을 이용한 집중 보충학습 프로그램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학습 지원 서비스 자체에 대한 청소년들의 선호도, 필요성 인식이 낮다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습지원 정책 수단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함. 멘토나 방문교사와 같이 인적 자원을 매칭해 줄 것인지, 청소년의 선택권이 일정정도 허용되도록 현금 지원을 할 것인지 정책 수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함. 인적 자원을 지원할 경우 멘토나 방문교사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히 보증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이증언어 교육은 이주배경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 사업이 아니게 설계 하되 학교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청소년들의 의지와 선호에 기반하여 여러 언

어를 교육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 (심리정서적 안녕 및 관계성 증진 사업) 가족관계 증진, 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사회성 발달 지원, 문화예술 활동 및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진행되었음.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사업은 초기 적응단계에 적합한 교육이 다문화가족 발달단계와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사업 부족도 개선되어야 함.
 - 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사회성 증진의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센터가 극소수인데, 애초에 이 사업의 경우 청소년 지원정책 내에서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들이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한 구상이 필요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은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만 할 경우 이 사업을 굳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시행할 당위성이 없기 때문임.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일상적인 상담을 요청할 때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운 기관이 어디인가를 파악하고 만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깝거나 상담 내용이 가족관계 중심일 경우는 각 센터들이 청소년 상담 전문가를 확보 혹은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 이주배경청소년의 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발달단계에 맞게 초등학교와 중고생을 분리하거나 비이주배경청소년과 함께 진행한 것은 바람직한 사업 모델로 판단됨. 활동 지원 사업 역시 이주배경청소년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청소년 관련 지역 기관들과의 유기적 연계로 청소년 활동 지원정책 내에서 통합적으로 사업을 설계할 필요 있음.

〈표 3-39〉 전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2018년 청소년 대상 사업실적 종합

사업 영역	세부사업	사업 시행 센터	참여자수		개선점
			전체	중고생	
진로 지원	다재다능 프로그램-진로 지원 - 진로설계 - 진로교육 - 진로직업체험 및 캠프	14개 센터	298	65	- 초등학교 위주로 중고생 대상 사업이 부족 - 초중고 통합프로그램 진행으로 발달단계에 부합하는 진로지원 미흡 - 진로직업체험처가 놀이 위주의 체험으로 단순
학습 및 이증	학습 지원 - 학습지, 학원 비용 지원	4개 센터	183	12	- 학습지원은 청소년의 요구가 큰 사업임에도 소수의 센터들만이 사업을 시행

언어 지원	- 다문화마을학당 통한 초등생 학습지도 이종언어 지원 - 글로벌마을학당 통한 이종언어 교육				- 중고생의 학습지원 사업 부재 - 대학생 멘토링 외 추가사업 시행 필요 - 이종언어 사업에 대한 학교와 센터의 역할 재정비 필요
심리정서적 안녕 및 관계 증진 지원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 부모자녀 동반 체험 교육 및 견학 - 부모나라 방문 지원 사업 - 다재다능 프로그램-관계 증진	5개 센터	172	3	- 초기적응단계 교육이 다문화가족 발달단계와 무관하게 시행 - 청소년기 자녀 가족에 대한 사업이 매우 부족 - 청소년의 인성 및 사회성 증진의 다재다능 프로그램 시행 센터가 매우 극소수
	다재다능 프로그램-사회성, 심리정서 지원	2개 센터	42	2	- 청소년의 또래문화 형성 및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발달단계에 맞게 초등학생과 중고생을 분리하거나 비이주배경청소년과 함께 진행한 것은 바람직한 사업 모델로 판단됨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및 동아리 활동 지원 - 태권도, 축구 교실 - 잡지 제작 동아리 조직 및 활동 지원 - 마을 합창단, 청소년 밴드 조직 및 활동 지원	7개 센터	195	18	- 이주배경청소년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의 유기적 연계로 청소년 활동 지원정책 내에서 통합적으로 사업을 설계할 필요 있음

3) 청소년 시설의 사업 현황

-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내부의 이질성보다 ‘청소년’이라는 동일성에 주목하여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시설을 지향하고 있음. 따라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접근을 제외하고 이주배경청소년 등 구별짓기를 지양함. 이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선별적 접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전체 청소년 지원 사업 내에서 통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통합적 인식 및 사업체계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업 필요성에 대한 감각을 부재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었음.
- 청소년 시설은 지역복지협의체, CYS-Net, 지역돌봄협의체와 주로 연계하고 있고 개별 기관으로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와 주로 협력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그런데 대부분의 협의

체들이 정보교환의 장으로 머물러 있고 지역사회 연계는 종사자들의 개별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음.

-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은 지역사회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안을 제안하였음. 첫째는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자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단 자원이 부족한 농촌 지역의 경우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역사회에 국한된 정보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시군 단위가 아닌 전라북도 차원의 정보제공으로 가야 함. 둘째,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대상이 될만한 청소년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실태를 모든 관련 기관들이 공유하고 정보를 공동생산할 수 있는 일원화된 사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네트워크 방안에 대해서도 두 가지의 안이 제시되었는데, 첫째는 기관 중심보다 주제와 기능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허브를 지정하기보다 네트워크의 기능별로 주도 기관을 정하는 것임. 두 번째는 네트워크 허브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담당하되 허브 역할을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파견 등의 지원 역할로 규정하고 청소년 시설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임.

4

장

전라북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델 구축

Jeonbuk Institute

-
1. 네트워크 개념과 특징
 2.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델 개발 방향
 3.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능별 네트워크 모델

제 4 장 전라북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델 구축

1. 네트워크 개념과 특징

- 사회복지에서 네트워크 개념은 국가복지에 대한 거센 도전과 그에 따른 대안 모색의 맥락에서 출현하였음. Walker(1985)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 가 재정위기에 직면하면서 공적 서비스를 민간 영역의 지원망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사회복지 영역에서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가 나타났다고 봤음. 이와 더불어 공적 조직의 관료제 진전에 따라 클라이언트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복지국가가 국가 이외의 다른 영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촉진되었음(Walker, 1985: 42-50; 김희연 · 한인숙, 2002: 103).
- 사회복지 영역에서 네트워크는 특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 간에 연계관계가 구성되고 협력관계가 구축되면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단편성과 비연속성을 줄여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김미원, 2008:10-11). 지역에 기반을 둔 다양한 청소년 지원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지역 복지의 차원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를 검토해 보기로 함.
- 지역사회복지에서 네트워크는 지역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복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 그에 따른 정책적 우선순위, 제도개선, 인력 확충 등 지역현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함. 네트워크가 지역복지 공급 주체 간 역할을 정립하고, 주체별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임(오정수·류진석, 2005: 209-213; 초의수, 2007: 270).

- 자원의존적 관점에서 볼 때 네트워크 분석은 복지 서비스 공급패턴을 이해하는데 유용함(O'Tool, 1997:49). 네트워크는 자원의존적일 때 형성됨. 자원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내적으로 자족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이나 다른 조직으로부터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들은 서로가 보유하고 거래하는 자원들로 인해 상호의존적이 됨(Pfeffer, 1982; 김현숙 · 서윤, 2013: 78 재인용). 조직은 환경에 대한 자원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조직과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사회복지 기관은 대상자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상호교환 관계를 형성하게 됨(홍경준, 2002; 김현숙 · 서윤, 2013:78 재인용). 따라서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특정 기관이 어떤 기관과 상호의존하는지, 그리고 이런 의존을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의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연계 패턴은 무엇이며, 권력이나 감정적인 지원 그리고 실질적인 자원의 흐름은 무엇인지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됨(Trevillion, 2000:514; 김희연 · 한인숙, 2002: 104 재인용).
- 네트워크는 개인 간 혹은 조직과 조직 간에 형성된 연계체계(Wasserman and Faust, 1994)로서 교환, 협약활동 및 공동사업의 조직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사회형태이며, 경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행위주체들의 집합이고, 개념적으로나 법적으로 개별적 단위 간에 계급이 없는 공동체로 정의됨(Alter and Hage, 1993: 서혜미·민소형, 2012 재인용). 네트워크에 대한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과 '계급이 없는 공동체'라는 점임. 그렇기에 O'Toole(1997) 역시 네트워크란 여러 조직들이 공식적으로 상하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구조라고 정의하고, 네트워크 행위자들은 공식적인 권위의 공유, 상호 밀접한 교류, 공통의 이익에 기초한 연대 등을 통해 서로 엮어질 수 있다고 하였음(김미원, 2008: 11).
- 이처럼 네트워크를 조직 간의 전반적인 연계형태로 보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서는 네트워크의 분석 차원을 연계를 이루는 조직 간의 상호작용적 특성 차원과 연계의 전체적인 양상 차원으로 구분해 보는 이들(Mitchell, 1969:

Timms, 1983)이 있는 반면에 전체적인 양상, 상호작용적 특성, 조직간 연계 특성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른 기능적 차원으로 구분하는 이틀(Israel & Rounds, 1987; 김희연, 2002; 김미원, 2008)이 있음. 이 가운데 상호작용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은 모두 네트워크의 관계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음(김현숙·서훈, 2013:76).

-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양상은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임. 구조적 특성에는 조직 간의 연계 방향이 일방향인지 쌍방향인지를 짚어보는 것, 조직 간의 물리적 거리나 심적 거리, 혹은 자원이나 관리·감독의 도달 정도, 각 조직들이 네트워크 밖의 행위자와 연계하는 정도로 측정하는 네트워크 확장 정도 등이 해당됨(김희연·한인숙, 2002:107).
- 관계적 특성의 하나인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적 차원에서는 조직간 네트워크 과정에서 실제로 교환되는 조직간 관계나 교환이 주요 관심 대상이 되고, 주로 조직간의 관계 내용, 네트워크의 지속성이 포함됨(김희연, 2002). 조직간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구체적 내용으로서 자원교환, 클라이언트 의뢰, 정보교환, 협의·조정 등을 들 수 있음. 자원교환은 주로 자금, 물질, 인적 교환을 의미하며, 그 외에도 시설, 사업운용, 협의·조정 등이 사용됨(김현숙·서훈, 2013:77). 조직간 네트워크의 지속성은 다른 네트워크 구성원과의 안정적인 개인적 유대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네트워크 지속기간이 길수록 양자 간의 유대는 안정적임(김희연, 2002).
- 김현숙·서훈(2013)에 따르면 관계적 특성의 하나인 네트워크의 기능적 특성은 네트워크가 구성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의미함. 이 경우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며, 참여한 행위자들의 필요, 의도, 자원, 전략에 의존하게 됨(Waarden, 1991: 김희연, 2002 재인용). 기능적 특성의 내용은 주로 네트워크의 기여내용, 충분성 인식이 사용되는데 네트워크 충분성은 조직간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 및 자원의 충분성 인식 정도를 의미하며, 네트워크 기여도는 네트워크의 내용이 통합서비스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의미함(김현숙·서훈, 2013:77).

2.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델 개발 방향

- 네트워크의 지향점은 참여하는 기관의 이익이나 관심사의 실현이 아니라 ‘이주배경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것’임. 이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사업이나 중복사업을 단일화하는 방식의 조정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 지역사회의 자원과 서비스 연계를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의 다양화와 질의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마땅함.
- 네트워크는 수요자 이익의 최대화라는 공유된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과 조직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역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함. 지역복지는 상호연결된 사람들 간의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망을 통해 사회복지자원을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움의 총체임. 따라서 지역복지의 수준은 공급주체 어느 한 부문에 의해 배타적으로 지배되지 않음(김희연·한인숙, 2002).
-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정책 안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청소년 정책으로 통합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이는 ‘이주’라는 소수자성에 기반한 분리 접근보다 ‘청소년’이라는 일반적 특성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현재의 ‘이주배경’ 특화 정책을 폐기하고 기존의 청소년 정책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청소년’이라는 특성을 중심에 두되, ‘이주배경’이 차별의 근거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체계가 필요함을 의미함.
-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 시설이나 학교를 네트워크의 허브로 하는 것은 ‘이주배경’이라는 특수성을 소거해버릴 가능성도 큼. 전북의 청소년 시설 종사자 및 사업에 대한 인터뷰 조사 결과에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이해 이전에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감각 자체가 부재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임.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추동해내는 구심체가 필요하고 이 역할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터를 네트워크의 허브로 하되 기관 중심 네트워크가 아니라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능별 네트워크별로 여러 개의 거점을 두는 것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거점 기관은 네트워크 공동의 목표를 위한 사업 수단을 결정하고 네트워크 참여 조직들의 역할 배분과 필요한 정보 제공을 통해 네트워크 기능이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연계 모임을 조직함. 주변 역할은 사업의 공동 수행이나 서비스의 대상을 촘촘히 나누어 배분하여 동시에 사업을 수행하거나 인력과 자원을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네트워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의 다문화가족을 회원으로 등록하여 가족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에 기반하여 각 유관기관이나 외부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임.

○ 네트워크는 지속성과 실효성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원칙을 가져야 함. 네트워크의 운영원칙은 접근성, 유익성, 유연성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접근성’은 이주배경청소년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물리적 근접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거점 기관을 시군구 단위로 두더라도 이동성이 취약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근린을 단위로 네트워크의 ‘거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학교는 이주배경청소년에게 가장 접근성이 높은 기관이나 재학생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개방적인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 ‘유익성’은 서비스가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유익할 것을 의미함. 단조롭고 중복적이며 일회적인 프로그램을 피하고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는 운영자와 종사자의 의지와 역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참여 기관들 간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선행되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청소년 전담자를 배정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함. 전라북도와 전북거점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청소년 사업 전담자들의 전문성 강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유연성’은 참여 기관의 고유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하고, 참여 기관 간에는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함. 참여 기관들은 수요자의 지원서

비스에 따라서 혹은 수요자의 거주지역에 따라서 중심 역할에서 지원 역할로 변경할 수 있는 융통적 마인드 지니고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청소년 사업 전담자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역의 다양한 협의체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3.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기능별 네트워크 모델

- 지금까지 살펴본 전북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현황과 이주배경청소년 당사자들의 정책 욕구에 기반하여 지원 네트워크 모델을 제안하면,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네트워크의 통합조정 거점기관으로 하고, 현재 부처별, 기관별로 산개되어 있는 지원 사업들을 시행기관들의 고유 기능에 기반하여 특성화하여 기능별 네트워크를 구성함(〈그림 4-1〉).
 - 통합조정 거점기관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은 보유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연계 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필요시 유관기관들에 청소년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관 간 연계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이주배경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개발·보급하는, 네트워크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한편, 기능별 네트워크 구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련 사업이 학습지원, 진로지원, 심리정서 지원, 문화여가 지원 등 통합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임. 이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인구 규모가 적은 농촌 지역의 경우는 대상자 중복이 발생하기 쉬움. 따라서 유사한 수준에서 프로그램들을 병렬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학습, 진로, 심리정서, 문화여가 각각의 주제의 직접적 시행기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여타 프로그램은 시행하더라도 특성화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능별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함. 여기에 농촌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거점 기관과 떨어져있는 면단위 지역은 예컨대 지역 아동센터가 거점기관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4-1〉 전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델

-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
-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조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사업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함. 무엇보다 이 전담자가 지역에 존재하는 청소년 관련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관기관들과 정기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네트워크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함.
 - 둘째, 전라북도 차원의 지역 사회자원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무주군교육청이 발간한 지역 사회자원 수록집 발간 사례에서 보듯이 자원이 제

한되어 있는 시군에 국한된 정보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움.

- 셋째, 지역의 복지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이는 복지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제공서비스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서비스 및 대상자 중복과 사각지대의 발생을 피할 수 있음.
- 넷째,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환류체계가 부재한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임. 사실상 많은 사업들이 효과성 검증 없이 기존 사업의 반복 시행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차별화, 실효성을 피하기 어려움. 따라서 사업의 효과성을 꾸준히 검토할 수 있는 내재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가. 역량강화 지원 네트워크 모델

- 이주배경청소년의 역량강화는 '이주 배경'이 차별로 작동하여 비이주배경청소년들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영역임. 따라서 비이주배경청소년들과 격차가 있거나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강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한국어, 학습지원, 이중언어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를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함.
- 이주배경청소년의 역량강화 지원 네트워크 모델의 주요 근거와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1〉 전북 이주배경청소년의 역량강화와 관련한 주요 연구결과

학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학업 성취 수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으나 학령이 높을수록,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평가가 낮아짐 - 초등학생은 학업에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중고생은 독해 어려움과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이야기함 - 현재 고민거리로 '공부(성적)'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음 - 대학생 멘토링 사업 및 학습지원 보조교사 지원 등 인적 지원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및 선호도가 낮고, 학습지 비용, 방과후수업료, 학원비 등 학습 비용지원 필요성과 선호도는 높음
이중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의 60% 이상이 이중언어가 가능하다고 응답. - 가능한 이중언어로는 영어 비율이 가장 높고,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순으로 나타나 이중언어 능력이 가족의 이중언어 환경보다 학교 외국어교육에 좌우되고 있음 - 이중언어교육은 빠를수록 좋으며 중학교 시기는 늦은 감이 있음 - 학교 이중언어 교육은 채용된 강사의 사용언어에 좌우되어 애초 취지와 달리 제2외

	<p>국어 교육 수준에 머물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교사들은 학교 이중언어교육이 가정에서의 이중언어 사용을 독려하는 형태의 간접 교육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글로벌 마을학당을 통해 다양한 이중언어반을 구성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가족과 생활 속에서 이중언어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학교보다 교육 환경이 더 좋은 것으로 평가됨
한국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에 중도입국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으나 전북 센터들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사업 실적이 거의 없음 - 다문화예비학교에서 중도입국 및 외국인 청소년들에 대해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음

(표 4-2) 전북 이주배경청소년의 역량강화 지원 네트워크 세부 내용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거점 기관 - 지역 거주 중도입국 및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높은 기관이므로 이들에 대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학교밖 청소년이나 취업 청소년도 포괄 - 다문화예비학교와 중복되지 않도록 방과 후, 주말반 운영 - 언어 교육 특성화 기관으로 발전 - 이중언어 환경에 더 가깝고 이중언어 재원이 풍부한 이점을 살릴 수 있음 - 비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언어교실 개방 - 방학 보충교실을 운영
유관기관 및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예비학교는 학교에 다니는 중도입국 및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한국어교육 실시 - 학교의 이중언어 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 혹은 점차 축소 - 대학생 멘토링 : 관리책임 주체를 교육청으로 변경하여 지역복지 시스템 하에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멘토에 대한 관리체계와 매뉴얼을 강화. 한국장학재단은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역할로 최소화

나. 심리상담 지원 네트워크 모델

-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심리적 안녕감의 증진이 필수적임.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청소년 상담 전문성이 약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취약한 실정임.
- 그럼에도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기능거점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 네트워크 모델을 제안함. 모델의 근거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3〉 전북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정서와 관련한 주요 연구 결과

심리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안녕감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자신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나 군지역 거주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다문화긍정 인식은 부정적이며, 외국출생 청소년, 학령이 높을수록,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긍정적 심리상태가 저하됨 - 전북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적응, 자아정체성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 - 전북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율은 11.1%로 매우 낮음 - 전북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들은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의 요청으로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을 연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 프로그램 진행 경험은 거의 없음 - 상담 연계 사례는 대부분 위기상담으로 일반상담 및 프로그램이 필요한 청소년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표 4-4〉 전북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상담 지원 네트워크 세부 내용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거점 기관 - 일반상담 및 위기 상담 - 유관기관 상담 및 집합 프로그램 지원 - 유관기관 종사자 청소년 상담 관련 교육 - 위기청소년 보호구조
유관기관 및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사례 발굴 및 관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상담이 필요한 이주배경청소년 정보 제공, 심리정서 지원 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뢰하여 진행

다. 여가문화진로 지원 네트워크 모델

- 여가문화 및 진로 활동은 청소년 활동 내 중요 부분을 차지함. 청소년들이 놀고 사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개인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함. 특히,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업 외에 다양한 활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화하여 사회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함.
-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여가문화진로 지원 네트워크 모델의 주요 근거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5〉 전북 이주배경청소년의 여가문화 및 진로 관련 주요 연구결과

여가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저녁시간에 주로 'TV 시청'과 '인터넷게임'으로 시간을 보냄 -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는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문화체험활동'으로 나타남 - 향후 원하는 서비스 역시 놀이문화체험이었음. - 전북의 지역아동센터는 전체적 총량에서 추가적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 수준으로 지역 자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역할을 함. - 지역아동센터 주이용자는 초등학교생들이고 이주배경아동 이용율은 3.2%로 전국 평균 보다 약간 더 높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청소년 문화지원 활동은 이주배경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초등학교생 위주의 프로그램임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 이상의 청소년들이 전문대학 이상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진로 지원사업은 초등학교생 중심이고 놀이가 결합된 체험이 중심이어서 장기적 진로전망 수립에 도움이 되기 어려움 - 일부 방과후아카데미는 기존의 청소년 관련 협의체 및 담당자의 열의로 지역 연계가 적극 활용되고 있었음 - 학교 진로상담은 대부분 진학과 관련되어 있고 진로교육이 거의 없거나 유명무실함

〈표 4-6〉 전북 이주배경청소년의 여가문화진로 지원 네트워크 세부 내용

청소년 수련시설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거점 기관(방과후아카데미) - 진로설계 및 체험 - 다양한 문화체험 및 활동 - 또래문화 및 동아리 활동 - 방과후아카데미 다문화형 운영 : 농산어촌형, 특별형의 소득기준(중위소득 100%)을 상향 조정(중위소득 150%)
유관기관 및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진로직업체험협의체 : 진로교육 및 체험처 제공, 체험처 발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미 실시 지역 센터들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주력. 방과후아카데미 실시 지역의 경우 적극적 홍보 및 가족단위 여가문화지원 사업에 주력 - 지역아동센터: 수련시설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접근성이 취약한 면단위 센터는 중고생 프로그램에 주력. 도심부 센터는 대상이 겹치지 않도록 저소득 취약계층 초등학교생 대상 종합서비스 제공

라.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모델

- 청소년 지원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청소년 시설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차별이나 구별짓기

인식을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이는 멤버십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이 운영되므로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기 쉽기 때문임. 그러나 학교에서의 분위기는 다르다고 함. 이는 공교육 체계가 성적이거나 평가체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계적 문화와 구조에 익숙해지게 하기 때문으로 보임. 따라서 반차별을 지향하는 다문화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며, 이를 시행할 환경과 재원도 학교가 가장 풍부하므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모델을 제안함.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기능거점으로 한 다문화교육 네트워크의 주요 근거와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7〉 전북의 다문화교육 관련 주요 연구결과

다문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이주배경청소년의 25.3%는 학교폭력 경험이 있음 - 폭력의 주된 유형은 언어폭력 -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지원정책이 과거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에서 현재는 학교 구성원 전체의 다문화 이해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다문화이해교육을 필수교과 시간으로 설계할 것이 권장되고 있음 - 전라북도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130개로 확대되었고 모든 시군에 지정되어 있음
-----------	---

〈표 4-8〉 전북 이주배경청소년의 다문화교육 지원 네트워크 세부 내용

교육지원 청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거점 기관(다공학교) - 교과 연계 다문화이해 교육 - 비교과 연계 다문화이해 교육 - 다문화이해교육 자료 개발보급 -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종사자 및 학부모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유관기관 및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교육지원단 : 시도 교육청별 다문화교육 전문 인력으로 구성. 지역별 특색을 살려 다문화교육 연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컨설팅 등 현장 지원, 다문화교육 자료 개발, 연구 등 활동 - 청소년 수련시설 : 다공학교와 연계하여 비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

5

장

요약 및 결론

Jeonbuk Institute

-
1. 전북 이주배경청소년의 현황과 정책욕구
 2. 전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델
 3.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 전북 이주배경청소년의 현황과 정책욕구

가. 전북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책 욕구

- 전북의 만9세~19세 이주배경청소년은 2016년 11월 현재 3,088명으로 전북의 같은 연령대 청소년 인구의 1.5%를 차지함. 전북 이주배경청소년의 95%는 국내출생자임.
-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은 베트남, 중국 두 개 국가가 출신국을 대표하며, 다문화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9.6%로 높음. 그럼에도 최저생계비 이하 다문화가족 중 비수급가구 비율은 25.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전북 이주배경청소년 3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주배경’으로 인해 주목할만한 부정적 결과들은 대체로 나타나지 않았음.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학업성취 수준,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높은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학교생활, 학업, 외모, 친구관계 및 가족관계 등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있었음. 또한, 자존감과 주관적 행복도는 높고 우울감은 낮게 나타나는 등 심리적 안녕 수준도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이주배경청소년=취약청소년’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 그러나 외국출생 청소년, 학령이 높을수록,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긍정적 심리정서 상태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결과와 상반되게 응답자의 25.3%가 지난 1년간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국내 청소년폭력 피해 경험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언어폭력 경험율이 6.9%(2016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인 것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폭력에 순응된 결과일 가능성도 있어

우려스러운 대목임.

- 학업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큰 고민이 '공부(성적)'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외국출생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정환경, 학교 폭력을 고민거리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령이 높아질수록 공부와 진로선택 고민 응답률이 높았음.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경제문제, 용돈부족, 진로선택 고민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지난 1년간 지원기관 이용경험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경험율이 74.1%로 가장 높고, 방과후교실 71.3%, 지역아동센터 47.4%의 순으로 나타남.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경험율은 32.6%로 전국 평균 23.8%(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1.1%로 낮음. 전북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가까운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지역아동센터이고 청소년 시설은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그간의 정책이 이주배경청소년 들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접근을 취해온 것에서 기인한 바가 큼. 또한, 고등 학생의 기관 이용경험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초등학교생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계층의식이 중상층인 청소년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방과후교실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시설 등에는 중간층 청소년들의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이는 유사 프로그램이라도 실행 기관에 따라 계층이 상이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러나 유사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시설의 경우는 이주배경청소년 수가 적은 농촌 지역에서 참여자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76.3%로 높게 나타났고, 계층의식이 중하인 경우가 80% 수준으로 높았음. 지원받았던 서비스 유형은 문화체험(55.2%), 문화공연(42.2%)이 가장 높고, 언어 교육이나 학습지원 서비스 경험율은 10% 대로 낮음. 한편, 필요한 서비스라는 인식은 높으나 실제 수혜경험율이 낮은 서비스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급식비 지원, 놀이공원 방문, 물질적 지원임.
- 향후 바라는 서비스로는 놀이공원 방문, 문화공연 관람, 특기적성 프로그

램 등 문화체험활동 기회 서비스와 방과후수업료 지원, 학원비 지원, 급식비 지원 등 학교·학업 관련 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 반면 학습보조교사 지원, 대학생 멘토링 등 학습지원 서비스 요구도는 낮음.

나. 전북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현황

- 전북의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시설들에는 14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시설, 학교가 있음. 학교를 제외하고 다른 시설들은 모든 시군에서 대부분 동읍 지역에 밀집해 있어 면 단위 거주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취약함. 지역아동센터는 면 단위까지 다수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청소년시설 중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참여율이 다소 높으므로 면 지역에 있는 센터의 경우 청소년 대상 사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

-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한국어 및 한국 생활 적응 지원을 중도입국청소년에 집중시키고, 청소년기에 필요한 사회성 및 리더십 개발, 진로코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지도, 상담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센터 내 청소년 전문인력이 필요함. 전담전문인력 없이는 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이 외부기관 연계로만 이루어지거나 청소년 사업이 초등학교 이하 아동에 대한 사업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우려는 전북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이 2018년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해 실시한 사업들에서 많이 나타남. 실시한 사업의 유형은 진로지원, 학습 및 이중언어 지원, 심리정서적 안녕 및 관계성 증진의 3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지원 사업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비해 사업의 총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중도입국 및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전무함. 또한, 대부분 초등학생으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중고생 대상의 사업이 매우 부족하고, 중고생이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도 초등학생과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중고생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진로지원 사업의 경우 초등학생 위주로 진행되어 중고생 대상 사업이 부족하고 중고생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초등학생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발달단계에 부합하는 진로지원이 미흡함. 그 결과 진로직업체험이 놀이 위주의 단순 체험으로 진행되고 있어 중장기 진로전망으로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 학습 및 이중언어 지원사업의 경우 학습지원에 대한 청소년의 요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센터들만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마저도 초등학생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교육부의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이중언어 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한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으나 지역 현장에서의 사업 실시는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학습 지원의 경우 사업의 중복성이 문제적이기보다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청소년들에게 유용하다는 인식이 필요함. 따라서 교육부 사업과 별개로 방문교육뿐만 아니라 방학 기간 등을 이용한 집중 보충학습 프로그램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학습 지원 서비스 자체에 대한 청소년들의 선호도, 필요성 인식이 낮다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습지원 정책 수단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함. 멘토나 방문교사와 같이 인적 자원을 매칭해 줄 것인지, 청소년의 선택권이 일정정도 허용되도록 현금 지원을 할 것인지 정책 수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함. 인적 자원을 지원할 경우 멘토나 방문교사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히 보증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또한, 이중언어 교육 역시 이주배경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 사업이 아니게 설계하되 학교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청소년들의 의지와 선호에 기반하여 여러 언어를 교육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 심리정서적 안정 및 관계성 증진 사업은 가족관계 증진, 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사회성 발달 지원, 문화예술 활동 및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진행되었음.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사업은 초기 적응단계에 적합한 교육이 다문화가족 발달단계와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사업 부족도 개선되어야 함.

- 이주배경청소년의 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발달단계에 맞게 초등학생과 중고생을 분리하거나 비이주배경청소년과 함께 진행하는 등의 바람직한 사업 모델이 진행되었지만 이는 2개 시군 센터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센터들은 초등학생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었음. 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특히나 이주배경청소년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청소년 활동 지원정책 내에서 통합적으로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2) 전북 청소년 시설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

-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시설, 프로그램, 청소년 지도사를 갖춘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복지지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학교밖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대표적임.
- 청소년 수련시설은 초등학교 고학년~중학생 중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돌봄 및 활동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위탁수행하고 있고 여기에 중위가구소득 100% 이하의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전북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정 시설은 18개소로 김제시,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음.
 - 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은 많지 않음.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을 뿐 청소년 시설들이 이주배경청소년의 참여를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고 있음.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은 청소년 내부의 이질성보다 ‘청소년’이라는 동일성에 기반하여 사업을 진행하므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선별적 접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전체 청소년 지원 사업 내에서 통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업 필요성에 대한 무감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CYS-Net의 허브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개별 기관들에서 2차적으로 연계되는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개별 기관 및 학교들의 요청을 받고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을 운용해 주거나 강사를 파견하는

등의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음.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사업 시행은 거의 없었음. 청소년 수련시설은 지역복지협의체, CYS-Net, 지역돌봄 협의체와 주로 연계하고 있음.

-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이 꼽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조건에 부합하고 사업이 도움이 될만한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임. 그 이유로는 첫째, 청소년들의 여가문화가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나홀로'형으로 바뀌면서 사회 참여 및 활동을 잘 하지 않는 것, 한 마디로 집 밖으로 잘 나오려 하지 않는 것 때문임. 두 번째는 인구규모가 적은 농촌 및 소도시의 경우 타 도시와 동일한 사업 규모 및 예산을 배정받기 때문에 참가자의 중복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임.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방과후아카데미는 참여자의 소득 기준이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고 프로그램도 돌봄, 체험, 교육의 종합서비스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대상자 중복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함.

2. 전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델

- 네트워크는 수요자 이익의 최대화라는 공유된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과 조직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역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함. 지역복지는 상호연결된 사람들 간의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망을 통해 사회복지자원을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움의 총체이므로 공급 주체 어느 한 부문에 의해 배타적으로 지배되지 않음.
- 이러한 관점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델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 첫째, 네트워크의 지향점은 참여하는 기관의 이익이나 관심사의 실현이 아니라 '이주배경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것'임. 이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사업이나 중복사업을 단일화하는 방식의 조정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 지역사회의 자원과 서

비스 연계를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의 다양화와 질의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마땅함.

- 둘째, 다문화가족정책 안에서 부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정책으로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청소년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이주배경' 특화 정책을 폐기하고 기존의 청소년 정책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청소년'이라는 특성을 중심에 두되, '이주배경'이 차별의 근거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체계가 필요함을 의미함.
 - 셋째,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 시설이나 학교를 네트워크의 허브로 하는 것은 '이주배경'이라는 특수성을 소거해버릴 가능성도 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의 다문화가족을 회원으로 등록하여 가족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에 기반하여 각 유관기관이나 외부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임.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네트워크의 허브로 하되 기관 중심 네트워크가 아니라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능별 네트워크별로 여러 개의 거점을 두는 것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방향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모델은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네트워크의 통합조정 거점기관으로 하고, 현재 부처별, 기관별로 산개되어 있는 지원 사업들을 시행기관들의 고유 기능에 기반하여 특성화한 기능별 네트워크임. 기능별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으로 참여 기관들이 수요자의 지원서비스에 따라서 혹은 수요자의 거주지역에 따라서 중심 역할에서 지원 역할로 변경할 수 있는 융통적 마인드 지니는 것임.
- 기능별 네트워크 모델과 세부내용은 <표 5-1>과 같음.

〈표 5-1〉 전북 이주배경청소년의 기능별 네트워크 모델

네트워크 명	기능거점 기관	역할분담
	주요 연계기관	
통합조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 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 유관기관 홍보 및 연계 - 이주배경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역량강화 지원 네트워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거점 기관 - 지역 거주 중도입국 및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높은 기관이므로 이들에 대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학교밖 청소년이나 취업 청소년도 포괄 - 다문화예비학교와 중복되지 않도록 방과 후, 주말반 운영 - 언어 교육 특성화 기관으로 발전 - 이중언어 환경에 더 가깝고 이중언어 재원이 풍부한 이점을 살릴 수 있음 - 비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언어교실 개방 - 방학 보충교실을 운영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예비학교는 학교에 다니는 중도입국 및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한국어교육 실시 - 이중언어 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 혹은 점차 축소
	대학생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책임 주체를 교육청으로 변경하여 지역복지 시스템 하에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멘토 관리체계 및 매뉴얼을 강화 - 한국장학재단은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역할로 최소화
심리상담 지원 네트워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거점 기관 - 일반상담 및 위기 상담 - 유관기관 상담 및 집합 프로그램 지원 - 유관기관 종사자 청소년 상담 관련 교육 - 위기청소년 보호구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발굴 및 관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상담이 필요한 이주배경청소년 정보 제공, 심리정서 지원 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뢰하여 진행
여가문화 진로 지원 네트워크	청소년 수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거점 기관(방과후아카데미) - 진로설계 및 체험 - 다양한 문화체험 및 활동 - 또래문화 및 동아리 활동 - 방과후아카데미 다문화형 운영 : 농산어촌형, 특별형의 소득기준(중위 소득 100%)을 상향 조정(중위소득 150%)

	지역진로직업 체험협의체	- 지역진로직업체험협의체 : 진로교육 및 체험처 제공, 체험처 발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방과후아카데미 미 실시 지역 센터들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주력 - 방과후아카데미 실시 지역의 경우 적극적 홍보 및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사업에 주력
	지역아동센터	- 수련시설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접근성이 취약한 면 단위 센터는 중 고생 프로그램에 주력 - 도심부 센터는 대상이 겹치지 않도록 저소득 취약계층 초등학생 대상 종합서비스 제공
다문화 교육 지원 네트워크	교육지원청 (다꿈학교)	- 기능거점 기관(다꿈학교) - 교과 연계 다문화이해 교육 - 비교과 연계 다문화이해 교육 - 다문화이해교육 자료 개발보급 -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종사자 및 학부모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다문화교육 지원단	- 시도 교육청별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으로 구성. 지역별 특색을 살려 다문화교육 연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컨설팅 등 현장 지원, 다문화 교육 자료 개발, 연구 등 활동
	청소년수련 시설	- 다꿈학교와 연계하여 비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

3.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조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사업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함. 각 센터들은 아동청소년 사업 전담자를 배정하고 전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전라북도와 전북거점센터가 전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기획, 실시하고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전라북도 차원의 지역 사회자원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무주군교육청이 발간한 지역 사회자원 수록집 발간 사례에서 보듯이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시군에 국한된 정보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움.

- 셋째, 지역의 복지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이는 복지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제공서비스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서비스 및 대상자 중복과 사각지대의 발생을 피할 수 있음.
- 넷째,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환류체계가 부재한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임. 사실상 많은 사업들이 효과성 검증 없이 기존 사업의 반복 시행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차별화, 실효성을 꾀하기 어려움. 따라서 사업의 효과성을 꾸준히 검토할 수 있는 내재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참고문헌 및 부록

참고문헌

〈학술논문저서〉

- 길임주(2009). 청소년 활동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례에 관한 한미실태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6(4), 65-80.
- 김경근·김정숙·성열관(2010).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징 분석: J초등학교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학연구, 48(1), 53-81.
- 김경년·정지윤(2014).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교육행정학연구, 32(4), 23-49.
- 김경애(2009). 아동·청소년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요소 및 원리. 한국청소년연구, 20(3), 85-114.
- 김교정(2008).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복지 서비스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0(2), 29-48.
- 김도혜(2012). 한국 이주배경 청소년 분류와 관련 정책의 한계점. 현대사회와 다문화, 2(2), 305-333.
- 김미원(2008).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 모형정립을 위한 시론적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5(3), 5-24.
- 김준영·김현주(2013). 지역사회통합과 청소년 네트워크의 영향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4), 69-94.
- 김현숙·서운(2013). 빈곤아동·청소년 지원기관의 통합서비스 영향요인 연구-네트워크 특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6, 71-98.
- 김혜정(2009). 다문화청소년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7(4), 17-32.
- 김흥주·박길태(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특징: 일반청소년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9(1), 93-128.
- 김희연(2002). 지역사회복지의 네트워크 분석: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 김희연·한인숙(2002). 네트워크 이론에서 본 지역사회복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1), 99-122.
- 남성희·전종철(2013). 아동청소년 다문화 프로그램 연구에 대한 경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0(3), 129-158.
- 박선주(2016).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전북지역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승곤(2017). 지역사회 내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실태에 관한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2, 59-88.
- 박신규(2016). 지역 다문화가족 청소년 실태와 지원정책 개선방안-경북과 전북 사례 비교.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8, 101-130.
- 박영철(2011).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학교적응 영향요인 분석: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성(2012). 전북지역 다문화복지 실천가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응환(2002). 지역거버넌스 네트워크, 사회자본 그리고 지역정책. 정부학연구, 8(2), 216-252.
- 서혜미·민소영(2012). 지역기반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효과성 연구: 강남구 디딤돌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3(2), 89-108.
- 스티븐 카슬마크 밀러(2013). 『이주의 시대』. 한국이민학회 옮김. 일조각.
- 신동면 외(2004). 지역복지 정보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3(1), 21-38.
- 안태보(2010). 다문화가정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 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 전북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수·류진석(2004).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학지사
- 이민경·이수정(2011). '다문화 아동, 청소년' 정책 용어 사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 정책용어와 방향성에 대한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2), 1-37.
- 이성순(2013).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4(3), 161-185.
- 이영환(2011).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3), 67-100.
- 이희옥(2010). 부안 지역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학생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 조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규필 외(2018).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운영개선 방안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6(1), 413-438.
- 조혜영·최창욱(2008). 청소년 참여활동의 성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들과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5(1), 111-140.
- 천청웅(2013). 지역사회 청소년 네트워크와 외국의 실천경험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1(4), 145-156.
- 초의수(2007).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실태와 네트워크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1(4), 265-292.
- 하준태·이채식(2010).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기관의 조직간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7(4), 87-105.
- 홍봉선(2008). 아동청소년복지시설 CYS-Net 운영분석 준거틀 구축과 적용. 청소년 복지연구, 10(4), 177-202.
- 황순길 외(201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증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대내외 환경 및 발전과제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4(1), 197-219.
- Alter. C & Hage. J.(1993). Organizations Working Together, Newbury Park, CA: Sage.
- Berry, J. W., Phinney, J. S., Sam, D. L., & Vedder, P. E. (2006). Immigrant youth in cultural transition: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cross national context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Ellis, M., & Almgren, G. (2009). Local contexts of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integr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5(7), 1059-1076.
- Farris, S. R., & De Jong, S. (2014). Discontinuous intersections: second-generation immigrant girls in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Ethnic and Racial Studies, 37(9), 1505-1525.
- Gordon, Milton.(1975).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s. Oxford University Press.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6). World Migration 2005

- Costs and Benefi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 3). Academic Foundation.
- Israel, Barbara A. & Rounds Kathleen A.(1987). Social Network and Social Support, in William B. Ward(eds.), *Advances in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Greenwich: JAI Press INC..
- Mitchell, J. Clyde(1969). The Concept and Use of Social Networks. in C. Mitchell(ed.), *Social Networks in Urban Situations*, Manchester: Manchester Press
- O'Tool(Jr), Laurence J.(1997). Treating Networks Seriously: Practical and Research-Based Agendas i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7(1), 45-52.
- Pfeffer, Jeffrey(1982).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 Theory*. Marshfield, Massachusetts: Pitman Publishing Inc.
- Portes, A., & Hao, L. (2002). The price of uniformity: Language, family and personality adjustment in the immigrant second gener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25(6), 889-912.
- Portes, A., Fernández-Kelly, P., & Haller, W. (2009). The adaptation of the immigrant second generation in America: A theoretical overview and recent evidenc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5(7), 1077-1104.
- Salas-Wright, C. P., Vaughn, M. G., Clark, T. T., Terzis, L. D., & Córdova, D. (2014). Substance use disorders among first-and second-generation immigrant adults in the United States: evidence of an immigrant paradox?.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75(6), 958-967.
- Terriquez, V., & Kwon, H. (2015).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 civic organisations, and the political socialisation of second-generation immigrant youth.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1(3), 425-447.
- Timms, E.(1990), Social Networks and Social Service Workers: A Comment Sharkey,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0(6), 627-631.

- Trevillion, Steve(1992). Caring in the Community : A Networking Approach to Community Partnership. Longman.
- Walker, A. (1985). From Welfare to Caring Society?: The Promise of Informal Support Networks, in Yonder, J. A. (ed.), Support Networks in a Caring Community : Research and Policy, Fact & Fiction,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pp. 41-58.
- Waarden, Frans Van(1992), Dimensions and Types of Policy Network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1, 29-52.
- Wasserman, Stanley & Faust, Katherine(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정부 발간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년도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 교육부(2018).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 법무부(2018).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17). 2017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2018).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청소년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2018). 2018년도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 여성가족부(2017). 2018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 중앙다문화교육센터(2018). 2018 다문화중점학교 사업설명회 자료집
- 중앙다문화교육센터(2017). 2017 다문화정책학교 담당교원 워크숍 자료
- 중앙다문화교육센터(2018) 2018 다문화학생 학력심의회 운영도움 자료

<정책연구 보고서>

- 김성훈 외(2018). 2017 전국 청소년정책지표 기초조사 보고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
- 김현철 외(2015).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I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외. 201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성덕 외(201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발전방안 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정착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
- 문유경·전기택(2011). 남녀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신규(2011).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생활세계 분석 및 지원방안. 전북연구원.
- 서미 외(201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및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설동훈(2010). 국내거주 영주권자 실태조사 및 사회통합도 측정. 법무부.
- 설동훈·김명아(2008).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 법무부.
- 설동훈 외(2015).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전라북도
- 이혜경·설동훈·김명아(2009).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사회통합도 측정. 법무부.
- 양계민 외(201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외(201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박주희(2013).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외(2014).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외(2016).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V: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외(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V: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외(2017). 다문화교육 종합발전방안연구. 교육부

이창호 외(2016).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6). 2015년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결과보고집.

<인터넷 자료>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MIPEX)

<http://www.mipex.eu>

전라북도 청소년복지 시설현황 http://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3006001000

전라북도 2018년 다꿈(다문화)학교 운영현황 <http://www.jbe.go.kr/edupromotion/board.jbe?cmsid=104050301000&method=v&idx=175492>

부록 :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욕구 설문조사지

전라북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욕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는 전라북도와 함께 『지역 사회 기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필요와 욕구에 기반하여 기 시행되고 있는 지원사업들을 보다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사는 이주배경청소년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정책 경험과 욕구를 파악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9조(벌칙)에 의해 응답 내용 및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 11.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 표지 페이지는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조사 지역	조사원 연락처

조사 미진 문항에 대한 재조사용 응답자 코드(조사원용)

A. 개인과 가구 특성

A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A2. 당신이 태어난 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년)

A3. 부모님 중 어느 분이 외국출신이십니까?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두 분 모두 외국인 ④ 두 분 모두 한국인

A4. 당신은 한국 국적이 있습니까?

- ①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이다
②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으로 바꾸었다
③ 아직 한국 국적이 아니지만 앞으로 한국 국적으로 바꿀 것이다
④ 한국 국적으로 바꾸지 않고 영주권만 받을 것이다
⑤ 한국 국적으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받을 계획이 없다

A5. 당신은 한국어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가 있습니까?

- ① 예(A5-1 응답) ② 아니오(A6번으로)

A5-1. (한국어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가 있다면) 잘하는 외국어를
최대 2개까지만 알려 주세요.

- ① 영어 ② 중국어 ③ 몽골어 ④ 베트남어
⑤ 러시아어 ⑥ 따갈로그어(필리핀어) ⑦ 대만어
⑧ 태국어 ⑨ 일본어 ⑩ 기타(적을 것 :)

A6. 당신은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말을 얼마나 잘 하십니까?

- ① 전혀 하지 못함 ② 약간 하는 편 ③ 잘 하는 편 ④ 매우 잘함

A7. 당신은 당신의 가족이 어느 계층에 속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최상층 ② 상위층 ③ 중간층 ④ 중하층 ⑤ 하위층 ⑥ 최하층

B4. 다음은 학생의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문항	매우 못하는 편	못하는 편	잘하는 편	매우 잘하는 편
1. 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1	2	3	4
2. 나는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1	2	3	4
3.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준다	1	2	3	4
4. 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1	2	3	4
5.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1	2	3	4

B5. 지난 1년 동안 아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문항	한번도 없다	1년간 총 10번 미만	한 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거의 매일
1. 말로 하는 협박이나 욕설	0	1	2	3	4
2. 집단 따돌림(왕따)	0	1	2	3	4
3. 강제 심부름 시키기	0	1	2	3	4
4. 돈 또는 물건을 빼앗김	0	1	2	3	4
5. 손, 발 또는 도구로 맞거나 특정 장소에 갇힘	0	1	2	3	4
6. 성적으로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행동이나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위	0	1	2	3	4
7.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욕설과 비방	0	1	2	3	4

B6.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수업, 학습지 등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일주일에 총 _____시간 _____분) ② 없다

C. 사회생활

C1. 평일(월~금) 저녁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합니까? 아래 <보기>에서 자주하는 일 두 가지를 선택하여 그 번호를 써주십시오.

평일 저녁 시간	선택1	선택2
1) 저녁시간 전		
2) 저녁시간 후		

보기	① TV, 비디오 보기	② 집에서 인터넷(게임 포함)
	③ 라디오나 음악 듣기	④ 잡지나 책(만화책 포함) 읽기
	⑤ 집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	⑥ 집안일(청소 등) 돕기
	⑦ 그냥 쉬거나 잠자기	⑧ 집에서 숙제 등 공부
	⑨ 방과 후 학교	⑩ 학교에서 자율 학습
	⑪ 학원이나 과외	⑫ 청소년 시설 등 프로그램 참여
	⑬ 봉사활동	⑭ 종교 활동 참여(교회나 절)
	⑮ 친구들과 PC방, 노래방 가기	⑯ 아르바이트
	⑰ 집 근처나 시내 돌아다니기	⑱ 기타()

C2. 당신은 어디까지 공부하기를 원합니까?

- ① 고등학교 이하 ② 대학교(4년제 미만) ③ 대학교(4년제 이상)
 ④ 대학원(석사) ⑤ 대학원(박사)

C3. 다음은 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를 골라주세요.

- ①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놓았다.
 ② 나는 하고 싶은 일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③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해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④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졸업 후'란, 현재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졸업한 후를 말합니다.

C11. 당신은 한국에 친한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명)

C12. 다음은 부모님, 담임선생님, 친구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주시다	1	2	3	4
2	부모님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시다	1	2	3	4
3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를 잘 도와주시다	1	2	3	4
4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를 좋아하신다	1	2	3	4
5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준다	1	2	3	4
6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친구들은 날 위로하고 격려해준다	1	2	3	4

C13.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상담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C13-1번으로)

C13-1. 그 사람은 주로 누구입니까?

- ① 가족, 친척 ② 학교선생님 ③ 이웃 등 동네 사람들
 ④ 친구 ⑤ 교회사람 등 종교기관
 ⑥ 전문가(상담선생님, 공부방이나 학원 선생님, 대학생 멘토, 센터 선생님 등)

C14. 다음은 당신이 동네와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	1	2	3	4
2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	1	2	3	4

	면 인사를 한다				
3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1	2	3	4
4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1	2	3	4
5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1	2	3	4

D. 정책에 대한 태도와 경험

D1. 당신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알고 있거나 지난 1년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시설	모른다	알고 있지만, 이용한 경험은 없다	이용한 적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①	①	②
2) 학교 내 방과후교실	①	①	②
3)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①	①	②
4) 청소년상담센터 및 1388 상담전화	①	①	②
5)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 청소년 시설	①	①	②
5) 고용센터	①	①	②
6) 사회복지관	①	①	②

D2. 작년부터 지금까지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D2-1번 응답) ② 아니오(D3번으로)

D2-1.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하여 지금까지 어떤 지원들을 받았습니까? 받은 경험이 있는 지원의 종류를 모두 골라주세요.

- ①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②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③ 놀이공원 방문
 ④ 문화체험활동(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 ⑤ 특기적성 프로그램(체육, 음악, 미술 등)
- ⑥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 ⑦ 물질적 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 ⑧ 대학생 멘토링
- ⑨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 ⑩ 이중언어 프로그램
- ⑪ 한국어 교육 지원
- ⑫ 학습지 지원
- ⑬ 급식비 지원
- ⑭ 진로지원 프로그램
- ⑮ 기타 (적을 것:)

D3. 학교 수업 이외에 아래의 교육이나 도움이 당신에게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교육/지원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필요 함	매우 필요함
1) 한국어 교육	①	②	③	④
2)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언어 교육	①	②	③	④
3) 한국사회 적응 교육(문화 체험, 예절 교육 등)	①	②	③	④
4)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문화 이해 교육	①	②	③	④
5) 학습 지원(국어, 영어, 수학 등)	①	②	③	④
6) 진로 상담 및 진로 교육	①	②	③	④
7) 학습, 친구, 가족, 이성 관련 상담	①	②	③	④
8) 직업 기술 훈련	①	②	③	④
9) 일자리 소개	①	②	③	④

D4. 앞으로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외국 출신인 자녀들을 위한 지원을 해 준다면 어떤 것들을 해주길 원하십니까? 원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 ②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 ③ 놀이공원 방문

- ④ 문화체험활동(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 ⑤ 특기적성 프로그램(체육, 음악, 미술 등)
- ⑥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 ⑦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 ⑧ 대학생 멘토링
- ⑨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 ⑩ 이중언어 프로그램
- ⑪ 한국어 교육 지원
- ⑫ 학습지 지원
- ⑬ 급식비 지원
- ⑭ 학원비 지원
- ⑮ 진로지원 프로그램
- ⑯ 기타 (적을 것: _____)
- ⑰ 없음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책연구 2019-06

**지역사회 기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발행인 | 김 선 기

발행일 | 2019년 3월 29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56-1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